

# 襄陽文化

제25호

襄陽文化院



#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주지 도후 외  
사부대중일동

무산사(양양포교당)

낙산유치원

불교대학

템플스테이

강원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무산복지재단

낙산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양양군 노인복지관

양양시니어클럽

무산지역아동센터

의상도서관

아동청소년 장학사업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100

033)672-2447~8 [www.naksansa.or.kr](http://www.naksansa.or.kr)



# 襄陽文化

제25호



襄陽文化院





고마워요! 50년, 함께가요! 100년

## 꿈을 주는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새마을금고는 회원분들의 신뢰에 부응하여  
사회전체를 이롭게 하는 인간중심의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예금, 대출, 공제(보험)



**MG새마을금고 양양**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59

033) 671- 4413 . 4414

FAX) 671-4415





# 양양에너지월드

“물로 만드는 빛 이야기”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 관 시 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휴관 및 휴무 : 매주 월요일(명절연휴, 회사사정에 의한 지정일)
- 문 의 전 화 : 070-4034-2344~5

 한국수력원자력 |주| 양양양수발전소



## PHOTO CLUB



문화학교 개강식



물치만세운동 제94주년 기념행사



제3회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제35회 양양현산문화제 기미만세운동재현행사



제18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청소년 지역문화 창조 프로그램 특강



문화원 회원 선진지 견학



문화학교 수강생 유적지탐방





경료효친문예작품공모전 입상자 시상식



대한민국문화원상(향토발굴및조사연구) 수상



설악문화원연합회



강원도 어르신 한마당 잔치(어르신문화학교)



복무장병대상 전통문화교육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체험



제23회 강원도향토문화연구발표대회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시회





## 목차 Contents

발간사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8
신년사   양양군수 정상철	10
신년사   양양군의회위원장 김일수	14
신년사   국회의원 정문헌	16

### 특별기고

● 금강산과 한시(漢詩) 이야기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18
--------------------------------	----

### 향토사료

● 일제강점기 창지개명 사례연구 (제23회 강원도향토문화연구발표회 장려상 수상)   향토사연구소	22
●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 해설	42

### 문화학교 운영

● 2013년도 문화학교 소개 및 수강생 수상, 공연내역   편집실	134
---------------------------------------	-----

### 건강상식

● 겨울철 건강상식,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질환들	135
-----------------------------	-----





## 가족여행

- 체험마을 ..... 140

## 전설

- 체마대 ..... 143
- 관덕정 ..... 143
- 수산굴암자 ..... 143

## 민속놀이

- 질래꾼 씨래매기 ..... 144

## 문화재

- 금석문(선정비) .....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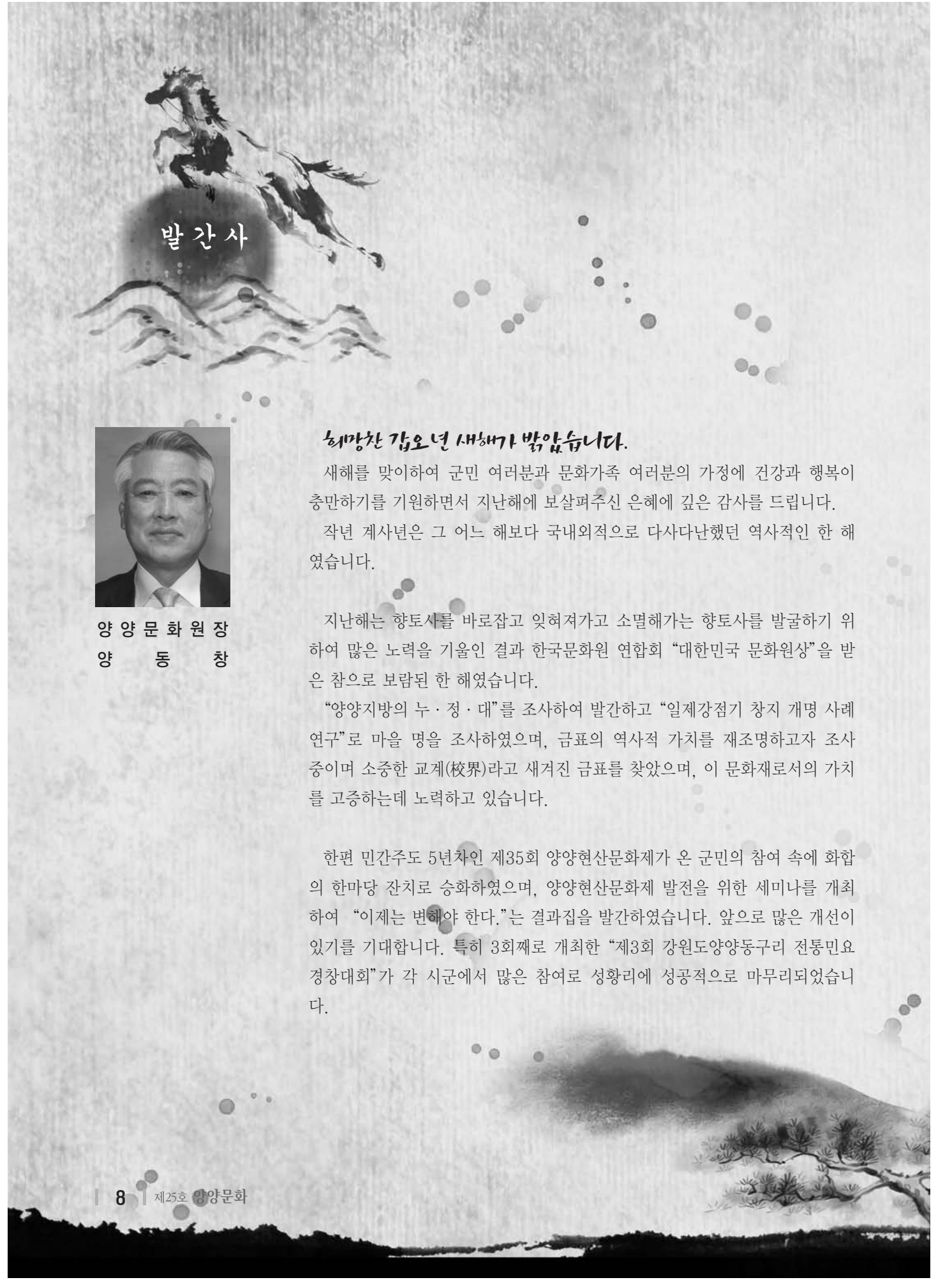
## 경로효친문예작품

- 심사평 ..... 154
- 입상현황 ..... 155
- 시부문 최우수상
  -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 | 김시흥(상평초등학교 6학년) ..... 156
- 산문부문 최우수상
  - 기억속의 아빠 | 최무엽(현북중학교 3학년) ..... 157
  - 비싼 옷 보다 맛있는 음식보다 | 함주경(한남초등학교 4학년) ..... 158
- 포스터부문 최우수상
  - 내가 효도하면 내아이도 효도한다. | 김서연(한남초등학교 3학년) ..... 159

- 2013 양양문화원 언론홍보 현황 | 편집실 ..... 160







## 발간사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 희망찬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과 문화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지난해에 보살펴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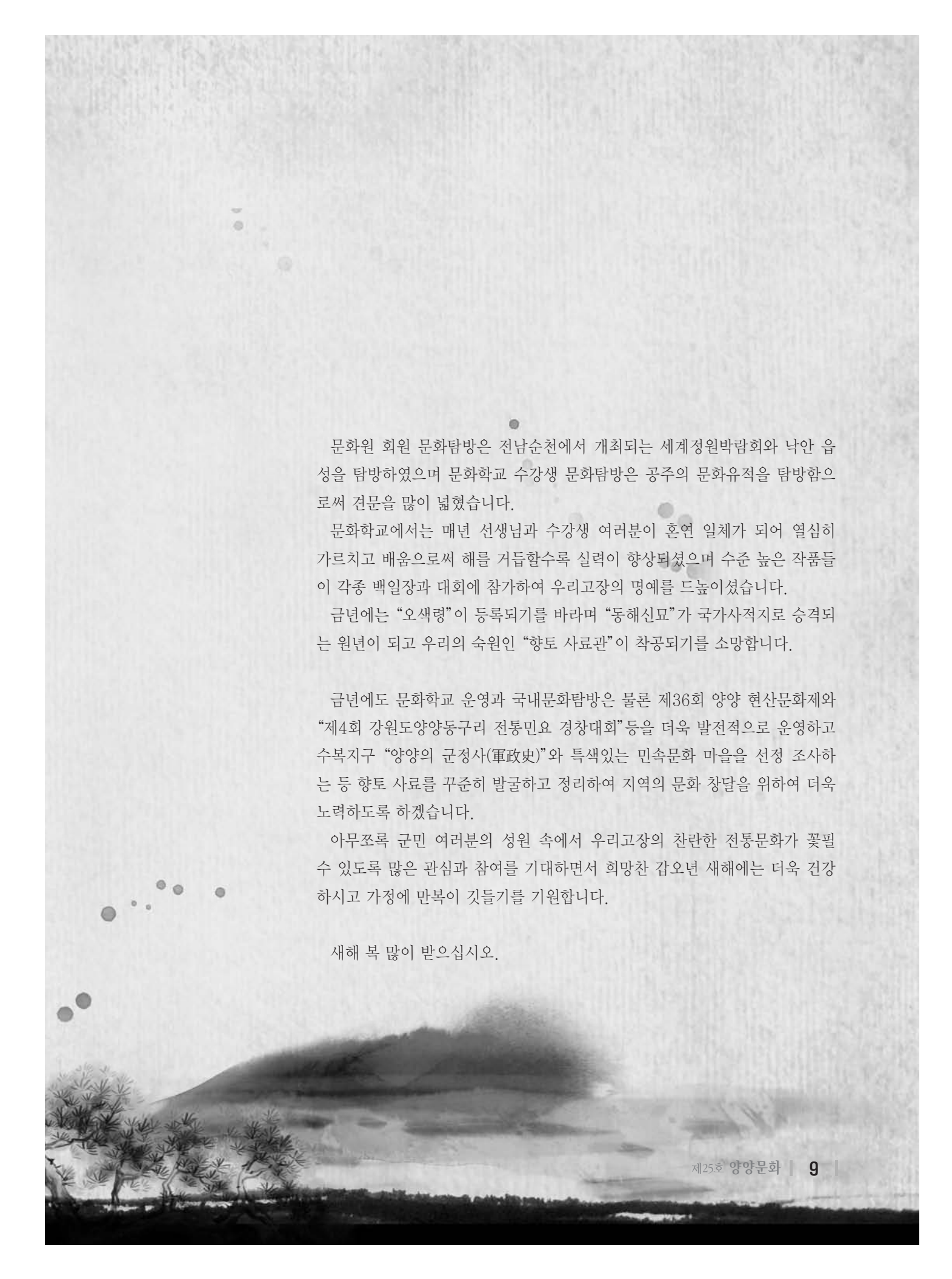
작년 계사년은 그 어느 해보다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는 향토사를 바로잡고 잊혀져가고 소멸해가는 향토사를 발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국문화원 연합회 “대한민국 문화원상”을 받은 참으로 보람된 한 해였습니다.

“양양지방의 누·정·대”를 조사하여 발간하고 “일제강점기 창지 개명 사례 연구”로 마을 명을 조사하였으며, 금표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조사 중이며 소중한 교계(校界)라고 새겨진 금표를 찾았으며, 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고증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주도 5년차인 제35회 양양현산문화제가 온 군민의 참여 속에 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승화하였으며,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결과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3회째로 개최한 “제3회 강원도양양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가 각 시군에서 많은 참여로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문화원 회원 문화탐방은 전남순천에서 개최되는 세계정원박람회와 낙안 읍성을 탐방하였으며 문화학교 수강생 문화탐방은 공주의 문화유적을 탐방함으로써 견문을 많이 넓혔습니다.

문화학교에서는 매년 선생님과 수강생 여러분이 혼연 일체가 되어 열심히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해를 거듭할수록 실력이 향상되었으며 수준 높은 작품들이 각종 백일장과 대회에 참가하여 우리고장의 명예를 드높이셨습니다.

금년에는 “오색령”이 등록되기를 바라며 “동해신묘”가 국가사적지로 승격되는 원년이 되고 우리의 숙원인 “향토 사료관”이 착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금년에도 문화학교 운영과 국내문화탐방은 물론 제36회 양양 현산문화제와 “제4회 강원도양양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등을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수복지구 “양양의 군정사(軍政史)”와 특색있는 민속문화 마을을 선정 조사하는 등 향토 사료를 꾸준히 발굴하고 정리하여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우리고장의 찬란한 전통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면서 희망찬 갑오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신년사

### 존경하는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



양 양 군 수  
정 상 철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만복(萬福)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갑오년은 청마(靑馬), 즉 '푸른 말'의 해로서 역사적으로는 새로운 변화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근·현대사에서는 1894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개혁인 갑오개혁과 1954년 6.25전쟁의 상흔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던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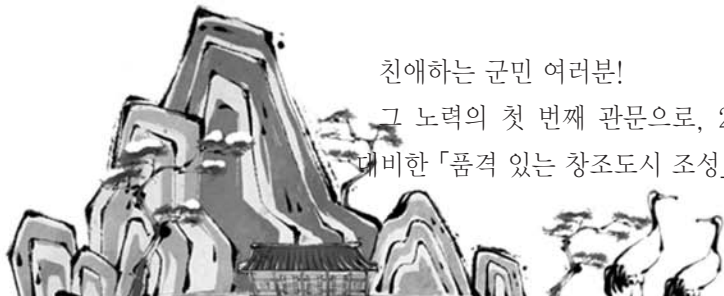
올해는 민선 6기의 새로운 출발이 있기에 많은 변화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 기초와 함께 중단 없는 군정의 추진이 요구되는 중요한 한해가 되리라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2014년 새해 군정운영 사자성어를 '마부정제(馬不停蹄)'로 정했습니다.

힘차게 내달리는 말의 말굽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올 한해 군정의 운영에 있어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저와 우리 500여 공직자는 더욱 노력하며 정진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 노력의 첫 번째 관문으로, 2014년은 동서·동해고속도로시대에 대비한 「품격 있는 창조도시 조성」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2015년 동서·동해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우리 양양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을 것입니다.

이에 발 맞춰, 양양읍내에 인구 3만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소방서 및 경찰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유치를 통해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공공기관 없는 불편과 소외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현남면에 이어 현북면과 강현면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 교육, 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군민이 근심 없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 역시 참 중요한 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사업을 중점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또한 다변화되는 사회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다문화가족의 실질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보육 및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아동급식 등을 지원하여 행복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여 인구증가를 꾀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무한한 관광자원입니다.

우선,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오색, 낙산, 하조대는 매력적인 관광시설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명품 관광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관광지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지경리 관광단지 및 잔교리 수목원 조성,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이 올해 상반기에 모두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문화예술축제를 개발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현대적 관광 흐름에 발 맞춰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맞춤형 관광전략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과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문화체험관, 짚라인 등을 조속히 조성하여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사이클경기장, 요트마리나와 병행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대회를 유치하는 한편, 이들 시설을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최대화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는 중국 상해 정기노선과 복주, 장사, 닝보 및 김포 국내선 등 현재 운항 중인 노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2014년 4월 운항계획에 있는 중국 20개 노선, 제주 국내선 1개 노선 등 모두 25개 노선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명실상부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거점공항으로 비상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13년 한해 가장 큰 아쉬움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무산이었습니다.

온 군민이 10여년의 오랜 세월 동안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했던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환경부는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채, 납득할 수 없는 환경의 문제를 들어 부결하였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설악산의 보호를 누구보다 원하는 우리 군민의 진정성에 한 번도 모자라 두 번의 큰 상처를 안겨준 환경부의 이 같은 처사에 군정 책임자로서 통탄을 금치 못하면서 그 책임 역시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오년 새해, 오늘 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부득삼(初不得三)!

그렇습니다. 첫 번에 실패한 것이 세 번째는 성공한다는 뜻으로, 꾸준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인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환경부조차도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설악산 환경보호와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재추진 되어야 합니다.

두 번의 실패 과정에서 얻은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기필코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군민의 한결같은 의지와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지역의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지역인재를 키우지 못하면 모두 허사입니다. 특히 우리군 같이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향토인재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2013년 설립된 양양군인재육성장학재단이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35억원이 넘게 장학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인재육성의 필요성과 군민의 소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후원회 구성, 군민 1구좌 갖기 등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100억원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모두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인재육성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과 후 수업 및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과 무상급식 확대 등 내실 있는 공교육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하여 면 소재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소질을 적극 키워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선 5기 양양군정을 맡아 오며 늘 강조해온 것이, 바로 ‘위민행정’입니다.

고맙게도 많은 분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처리에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명예 이장제,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 군정 모니터 등을 적극 운영하여 우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신뢰행정을 더 높이 펼쳐 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친절성을 더욱 고취시키는 한편,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배가 되도록 산하 공직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이토록 많은 사업들이 분야별로 또 현안별로 군민께서 요구하시는 곳에 적정한 예산이 선제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모아 나아갑시다.

2014년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양양은 개방과 공존 그리고 양양군만이 지닌 모든 가치와 이상의 공유가 필수입니다.

군민 모두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창의와 도전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올해 우리군은 ‘마부정제(馬不停蹄)’ 군정으로 투자를 늘리고 인구를 유입시키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교류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밝은 미래를 위해 인재육성을 게을리 말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틀을 깨고 우리 모두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 중앙부서를 비롯한 외국까지도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효율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자원은 자연과 사람에 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갑오년, 새해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모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과 모험을 헤쳐 나가는데 있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근면과 정직, 책임과 의무, 관용과 포용 등 같은 기본적인 가치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본적 가치와 철학이 찬란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좀 더 기본에 충실하면서, 우리 모두 금년 한 해를 맞이해야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다독이며, 갑오년 한 해를 힘차게 열어 갑시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신년사

### 존경하는 3만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해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고,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벅찬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한 갑오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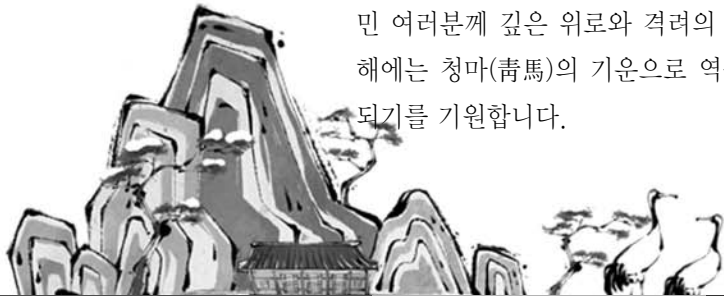
특히, 새해에는 향후 4년 간 군정을 이끌고, 민의를 대변해 나갈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이 군민 모두의 행복으로 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군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무에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함께 반성을 해 봅니다. 지난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려 봅니다.

지난해는 군민 모두가 그토록 염원해오던 오색삭도 시범사업이 또 다시 부결되었기에 그 어느 때 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깊은 시름과 실망감 속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이겨 내오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청마(靑馬)의 기운으로 역동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양양군의회 의장  
김 일 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 발전의 주춧돌이 될 크고 작은 사업들이 희망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기에 우리 양양의 미래도 분명 기대가 됩니다.

2015년 동서·동해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어 우리 양양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3수에 도전하는 오색삭도 시범사업을 비롯해 지경관광지와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현안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것입니다.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은 앞으로 준공될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목재문화체험장 과 더불어 복합산림휴양단지로 그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제2그린농공단지도 내년 초 입주자 선정을 통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운동장 조성사업도 본격적인 공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희망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모든 과실이 거센 비바람을 이겨내고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함께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의회는 3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언행이 일치되는 진솔한 마음과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는 겸허한 자세로 군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린 의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민선 5기의 마지막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또 검토하여 군민의 여론을 누수 없이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6대 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보다 성숙한 7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발전기틀을 다져 나갈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군민의 단합된 의지를 모으고, 축적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정 운영의 최대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6대 의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신년사

**갑오년(甲午年) 새해를 맞이하여  
『양양문화』 제25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 회 의 원  
정 문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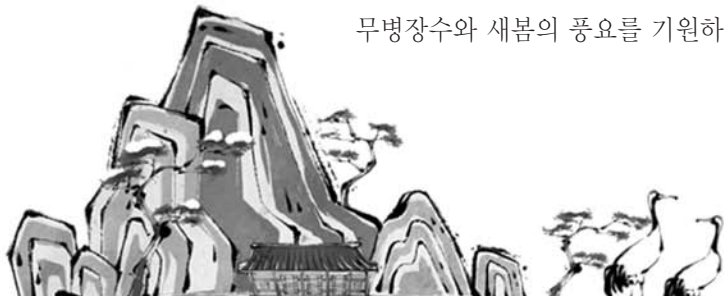
갑자(甲子)로 시작하는 60 간지(干支)가 절반의 반환점을 돌아 새롭게 시작하는 첫 간지가 갑오인 만큼, 이번 갑오년은 『양양문화』 애독자 여러분 모두 청마(靑馬)처럼 새롭게 힘찬 발돋움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부터 새해가 되면 우리 조상들은 이웃, 친지들과 함께 세시풍속을 즐겼습니다.

동국세시기 등 옛 문헌에 따르면, 농경사회의 전통과 깊은 관련이 있는 ‘웃놀이’는 본래 한 해 풍년과 마을의 번영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또 ‘연날리기’는 액운을 멀리 날려 보내는 동시에 복을 비는 놀이였고, ‘널뛰기’에는 귀신을 쫓고 부정을 없앤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가족, 친지, 이웃들과 나누어 먹던 떡국에는 가족들의 무병장수와 새봄의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묵은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담아 새해를 맞았습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담아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함께 정겹고 희망찬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오년 새해, 『양양문화』 또한 우리와 우리 이웃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향토문화지로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양양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알리는 일에 더 큰 성과와 보람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양양문화』 제25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갑오년 새해 독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금강산과 한시(漢詩) 이야기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금강산은 세계의 명산인 동시에 우리 한민족(韓民族)의 영산(靈山)의 하나이다.

고래(古來)로부터 일만이천봉이라 불리는 많은 기봉준령(奇峰峻嶺)과 이들이 서로 연결(連結)하여 구성되는 대계곡(大溪谷) 그리고 그 계곡에 널려있는 수많은 폭포(瀑布) 심담(深潭) 등이 엮어 놓은 장엄함과 청정의 정취가 서려있다.

예전에는 108암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표적인 사찰로 최초로 건립된 유점사(楡岾寺)를 비롯하여 장안사(長安寺) 신계사(神溪寺) 표훈사(表訓寺) 같은 대가람(大伽藍)과 크고 작은 말사(末寺)와 암자(庵子)가 민족예술의 진수를 다한 건축미와 속인의 마음을 씻게 하는 사적(史蹟)과 전설(傳說)이 가미되어 어우러졌으나 지금은 찾아 볼 수 없다.

금강산의 소재지는 북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 통천군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외금강 내금강 해금강으로 나뉜다. 높이가 1,638m 동서로 40km 남북으로 60km 넓이 530km<sup>2</sup>에 이른다.

태백산맥 북쪽에 솟아있으며 봄에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화려해 “金剛山”이라 불리며 여름에는 온산에 녹음이 신비함으로 “蓬萊山”, 가을에는 단풍이 곱고 찬란해 “楓嶽山”, 겨울에는 기암괴석의 산체가 뼈처럼 드러나므로 “皆骨山”(눈이 왔을 때는 “雪峰山”)이라 불리는 천하 명산이다.

주봉인 비로봉 을 비롯해 옥녀봉, 월출봉 등이 남북으로 이어졌고 비로봉에서 바라보면 동해가 한눈에 보이고 일만이천봉의 기암괴석의 신비스러운 광경이 한눈에 펼쳐 보인다. 그리고 청랭(淸冷)한 계곡수는 특이한 산악미(山



巖美)와 계곡미(溪谷美)를 이루고 경쾌하게 흐른다.

구룡연의 구룡폭포 비룡폭포 만폭동 만물상이 있으며 신금강 십이폭포는 금강산에서 규모가 가장 큰 폭포다.

그리고 절경지로 관동팔경 중 북쪽지역에 있는 통천의 총석정(叢石亭)과 고성(高城)의 삼일포(三日浦)가 있으나 총석정은 금강산 관광이 실시될 때도 개방되지 않았었다.

다시 금강산 육로관광이 재개되기를 소망하면서 역사속의 인물들이 금강산을 읊은 한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통일신라시대 최치원(崔致遠)의 가장 오래된 금강산 시가 구룡연 너럭바위에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千丈白練	(천장백련)	천길 흰 비단이 내리 드리운 듯하고
萬斛眞珠	(만곡진주)	만 섬 진주알이 쏟아지는 듯하구나.

먼저 조선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내셨던 독곡 성석린(獨谷 成石璘:1338~1423년)의 시로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다음을 잘 표현한 오언절구(五言絕句)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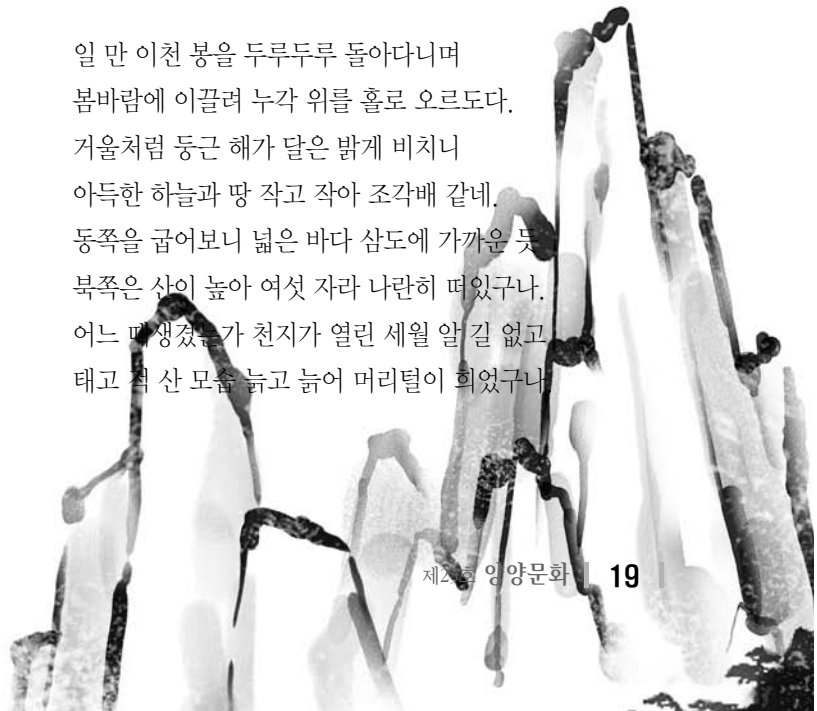
**送僧之楓嶽(송승지풍악)**

一萬二千峰	(일만이천봉)	일만이천 개의 봉우리가
高低自不同	(고저자부동)	높낮이가 저마다 다르네.
君看初日出	(군간초일출)	그대는 보았는가 해가 솟을 때
何處最先紅	(하처최선흥)	어느 곳이 맨 먼저 붉어지는지.

다음은 난고 김립(蘭臯 金笠 :1807~1863년) 시를 소개합니다. 여러 수가 전하여 지고 있으나 그 중 두수를 소개합니다.

**金剛山(금강산)**

萬二千峰歷歷遊	(만이천봉력력유)	일 만 이천 봉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春風獨上衆樓隅	(춘풍독상중루우)	봄바람에 이끌려 누각 위를 홀로 오르도다.
照海日月圓如鏡	(조해일월원여경)	거울처럼 둥근 해가 달은 밝게 비치니
復載乾坤小似舟	(복재건곤소사주)	아득한 하늘과 땅 작고 작아 조각배 같네.
東壓天洋三島近	(동압천양삼도근)	동쪽을 굽어보니 넓은 바다 삼도에 가까운 듯
北撐高沃六鰲浮	(북撐고옥육오부)	북쪽은 산이 높아 여섯 자라 나란히 떠있구나.
不知無極何年關	(부지무극하년벽)	어느 때 생겼는가 천지가 열린 세월 알 길 없고
太古山形白老頭	(태고산형백로두)	태고 적 산 모습 늙고 늙어 머리털이 희었구나





**金剛山(금강산)**

靜處門扉着我身 (정처문비착아신)  
 賞心喜事任清真 (상심희사임청진)  
 孤峰罷霧擎初月 (고봉파무경초월)  
 老樹開花作晚春 (노수개화작만춘)  
 酒逢好友惟無量 (주봉호우유무량)  
 詩到名山輒有神 (시도명산첨유신)  
 靈境不須求外物 (영경부수구외물)  
 世人自是小閑人 (세인자시소한인)

고요한 암자에 이내몸 의탁하여  
 기쁜 마음 즐거운 일 모두 남게 맡겼더니  
 외로운 봉우리에 안개 개고 초승달 떠올라  
 늙은 나무 꽃이 필 때 늦봄이 오네.  
 친구만나 술을 드니 흥취가 무량했고  
 명산에서 시를 읊어 마냥 신기로웠소.  
 선경이 따로 있나 다른데서 찾지 마소  
 한가롭게 사는 분네 그가 바로 신선이오.

가을날 금강산 마하연의 암자에서 남루한 행색의 김삿갓과 空虛스님과의 확인되지 않은 問答 詩를 소개합니다.

僧 朝登立石雲生足 (조등립석운생족)  
 金 暮雲黃泉月掛脣 (모운황천월괘순)  
 僧 影浸綠水衣無濕 (영침녹수의무습)  
 金 夢踏青山脚不苦 (몽답청산각불고)  
 僧 石轉千年方到地 (석전천년방도지)  
 金 峰高一尺敢摩天 (봉고일척감마천)  
 僧 青山買得雲空得 (청산매득운공득)  
 金 白水臨來魚自來 (백수임래어자래)  
 僧 絕壁雖危花笑立 (절벽수위화소립)  
 金 陽春最好鳥啼歸 (양춘최호조제귀)  
 僧 月白雪白天地白 (월백설백천지백)  
 金 山深夜深客愁深 (산심야심객수심)

아침에 바위에 오르니 구름이 발밑에 생기네.  
 저녁에 샘물을 마시니 달이 입술에 걸리네요.  
 그림자가 녹수에 잠겼건만 옷은 젖지 않았소.  
 꿈에 청산을 다녔지만 다리는 아프지 않네요.  
 돌이 천년을 굴러야 평지에 닿겠나.  
 봉우리가 한자만 더 높으면 하늘에 닿겠소.  
 청산을 사고 보니 구름은 공것으로 얻었네.  
 맑은 물가에 오니 물고기가 절로 따라오네요.  
 깎아지른 절벽에도 오히려 꽃은 웃고 있네.  
 화창한 봄이 더 없이 좋아도 새는 울며 돌아가네.  
 달도 희고 눈도 희고 천지도 다 희구나.  
 산도 깊고 밤도 깊고 나그네 시름도 깊소.

금강산 관광이 중단 된지 6년이 되었다.

금강산 관광은 온 국민의 기대와 설렘 속에서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인 현대 금강호의 첫 취항으로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2003년 9월 고성에서 금강산, 삼일포의 육로관광으로 바뀌고 잘 추진되어 왔으며 남북통일도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고 있던 중 뜻하지 않게도 2008년 7월 11일 북한군 초병에게 금강산 관광객인 박왕자 씨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온 국민은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실정입니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은 있지만 율곡 이이(栗谷 李珣)선생님의 금강산 답사기 중( 5언 140구) 8구를 소개합니다.

一覽便知足	(일람편지족)	한번보고 금강산을 아는 척한다고
造物不我尤	(조물불아우)	조물주가 나에게 꾸짖지 않겠지.
引杖陟崔峰	(인장척최봉)	지팡이 끌면서 정상에 오르니
長風四面來	(장풍사면래)	긴 바람 사방에서 불어 닥치네.
青天頭上帽	(창천두상모)	푸른 하늘 머리 위 모자와 같고
碧海掌中杯	(벽해장중배)	넓은 바다 손바닥의 술잔이어라..
僧言此山景	(승언차산경)	스님이 말하기를 이 산 경치는
四時皆淸勝	(사시개청승)	사철 내내 모두 맑아 좋다네.

이이(李珣:1536~1584) 선생은 조선 선조 때의 문신 학자로 호는 율곡 시호는 문성(文成) 본관은 덕수(德水)입니다. 450여 년 전 율곡선생님이 돌아보신 소감이나 6년 전 우리가 돌아본 금강산은 변함이 없으나 분단 된지 60여년이 지난 지금 체제를 선전하기위하여 바위에 새긴 붉은 글씨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 필자가 다음과 같이 읊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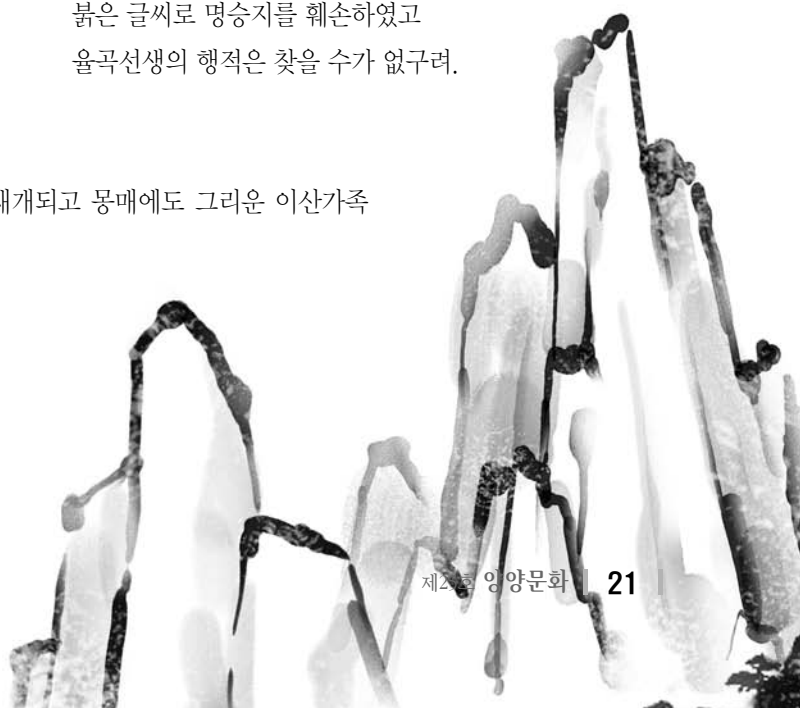
**登金剛山毘盧峰(등금강산비로봉)**

楓嶽登山晚色秋	(풍악등산만색추)	풍악산에 오르니 가을 색이 만연한데
雁陳落照下南遊	(안진낙조하남유)	기러기는 낙조 속에 남으로 떠나가네.
上潭大關如湯桶	(상담대관여탕통)	상 팔담은 대궐의 목욕탕 같고
瀑布仙鄉似玉樓	(폭포선향사옥루)	구룡폭포는 신선이 사는 옥루 같도다.
叢石滄波包庇護	(총석창파포비호)	총석정은 창파를 비호하여 포용하고
毘盧宇宙拉過抽	(비로우주랍과추)	비로봉은 우주를 끌어당기도다.
紅書毀損名勝破	(홍서훼손명승파)	붉은 글씨로 명승지를 훼손하였고
栗谷行方不迹收	(율곡행방불역수)	율곡선생의 행적은 찾을 수가 없구려.

아름다운 금강산이 다시 보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남북대화가 이루어져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몽매에도 그리운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에서 만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자료**

- 시선 김삿갓의 한시(투영미디어)
- 네이버 블로그 우리나라 漢詩



# 日帝強占期 創地改名 事例研究 (襄陽을 中心으로)

襄陽文化院 附設 郷土史研究所  
〈발표 : 이기용 연구원〉

## 1. 들어가는 말

사람에게 인명(이름)이 있듯 땅에는 지명이 있다. 사람은 이름이 있어 이를 통해 그 사람의 행적을 알 수 있듯이 지명은 그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온 이들의 문화가 고스란히 배어 있어 지역의 역사, 형상, 풍속, 의식, 도덕, 종교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물은 땅에서 근원한다. 땅은 인간의 삶을 감싸고 있는 환경으로 땅이 있어 사람이 살 수 있고, 사람들의 삶을 이어준다. 이러한 땅은 인간과의 만남 속에서 그 땅에 걸 맞는 이름이 지어진다. 마치 좋은 경치는 그곳에 걸 맞는 이름이 있듯이 그 땅에 어떤 상징적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지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명은 이 땅에 사람이 살면서부터 생겨났고 지명의 유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정신과 생활의 뿌리를 이루어 왔으며, 오랜 역사의 시간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흐르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명은 인류가 살았던 생활문화의 자취요, 역사의 사회적 소산이기 때문에 향토사나 향토문화를 연구, 개발, 보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국어학, 역사학 연구에서도 주요 연구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의 지명에는 ○○골, ○○거리, ○○말 등 이름만 들어도 그 지역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정겨운 지명들이 많았다.

그런데 일제는 우리의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땅의 맥에는 쇠말뚝을 박고, 성과 이름을 강제로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다. 소위 창씨개명(創氏改名)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유의 지명까지도 강제로 바꿔 우리의 정체성, 혼을 빼앗아가 버렸다. 이른바 창지개명(創地改名)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연구조사기록을 보면 2006년 국토지리정보원의 『강원권 일본식지명의 조사 및 정비 방안 연구』등 수차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 졌을 뿐으로, 그나마도 과거의 지명을 찾아 이를 비교하는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 지지 못함으로써 지명 중 왕(王)자가 황(皇)자나 왕(旺)자로 바뀐 것을 밝혀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양양을 중심으로 역사기록을 추적하고 자연지명을 찾아봄으로써 지명의 변천과 일제의 지명 개명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정리해 다시 고쳐 바로잡고자 한다.

## 2. 양양의 역사와 변천

우리지역 역사문화의 사회적 소산인 옛 지명을 찾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고 주변 상황은 어떠한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연혁(沿革)을 보면, 고구려의 영역으로 익현현(翼峴縣) 또는 이문현(伊文縣)이라 하였고, 신라 삼국 통일 후 경덕왕 16년(757년)에 익령현(翼嶺縣) 고려 성종 때 10도제가 실시되면서 익령현은 삭방도(朔方道)에 속하게 되었고, 현종 9년(1018년)에 지방을 5도 양계로 고치면서 동계(東界)에 속했으며 현령이 파견되면서 동산현(洞山縣)이 내속되었다. 고종 8년(1221년)에 거란군을 격퇴시킨 공으로 양주(襄州)로 승격되고 방어사(防禦使)가 임명되었으나, 원종 원년(1260년)에 다시 양주(襄州)로 회복되었고, 조선에 이르러 태조의 외향이었던 까닭으로 태조 6년(1397년)에 부(府)로 승격되었고 태종 13년 도호부(都護府)로 태종 16년 양양(襄陽)으로 개칭되었다. 1896년 13도제가 실시되면서 강원도 양양군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구역은 1914년에 12개 면 중, 군내면(부내면), 부남면, 위산면이 양양면으로, 동면, 남면이 손양면으로, 강선면, 사현면이 강현면으로, 도문면, 소천면이 도천면으로 통합됨으로써, 서면, 현북면, 현남면과 더불어 7개면으로 재편되었다.

1919년 간성군이 고성군에 통합되면서 그 관할 하에 있던 토성면과 죽왕면이 양양군으로 편입되었고,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었다. 1945년에 광복이 되면서 38도선 이북 지역인 죽왕면, 토성면,



속초읍, 강현면, 양양면, 손양면과 현북면, 서면의 일부가 북한에 예속되었고, 현남면과 현북면, 서면의 일부가 강릉군에 편입되었다. 1954년 10월 21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현남면은 명주군에 편입되고, 현북면과 서면은 양양군에 복귀되었으며, 1963년 속초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죽왕면과 토성면이 고성군에 편입되었고, 명주군 현남면이 양양군으로 환원되었다.

1973년 서면의 명개리가 홍천군 내면에, 손양면 상왕도리의 일부가 양양면 월리에 각각 편입되었으며, 1979년에 양양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3년 강현면 상북리 일부(설악동 C지구, 권금성, 장재터 등)가 속초시로 편입되어, 1읍 5면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1)</sup>

### 3. 일제의 창지개명 과정

지명은 인간과의 만남 속에서 그 땅에 어떤 상징적 의미가 부여됨으로서 지명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지어진 지명은 지역 공동체에서 공유되어 장소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지명은 유기체와 같은 생명력을 지닌다. 따라서 환경이 변화하거나 다른 문화가 유입되면 과거 지명은 변화 혹은 소멸되고, 새로운 형태의 지명이 형성된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구전 지명은 지도나 문서에 기록됨으로써 시간적인 지속성을 갖는다.

일제 강점기 초 일본은 우리의 민족혼과 정체성을 말살하고 자원 수탈을 위해 우리의 행정구역을 재편하고 토지조사 사업과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글 지명이 일본식 한자 지명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일본식 지명이 생겨나기도 하였으며, 이전의 한자 지명도 정체성을 잃앨 수 있는 일본식 한자로 바뀌기까지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1910년 우사미(宇差美) 내무장관이 각도 장관에 지시하여 정리한 「조선지리지자료」 일 것이다. 그 내용은 각 군의 동리명칭은 물론 산천, 제언, 역, 계곡, 주막, 명승, 고적 등을 상세하게 조사한 것이었는데 28책 10,378매에 이른다.<sup>2)</sup> 이 과정에서 많은 지명들이 새로이 생겨났고, 일본식 한자로 바뀌는 등 민족혼이 살아있는 수많은 지명들이 사라졌다.

1) 양양문화원 『양양군지』 상권 13쪽

2) 네이버 지식백과 『일제강점기 지명유래 연구자료』 조선지리지자료

〈표 1〉 조선지리지자료에 기록된 양양군의 지명 수

읍면별	마을명	산곡명	영치현	평야명	강천계간명	주막명	제언보	기 타
계	117	86	61	43	42	20	49	17
강선면	10	4	4	3	4	2	2	2
사현면	13	2	3	4	2	1	5	2
위산면	6	1		2	1		1	1
군내면	8	1	2	3	2	2	4	2
군남면	5	4	5	5	2		4	1
서면	20	14	18	4	2	4	21	
동면	10	14	9	3	2	1	1	2
남면	12		2	1	2	2		1
현북면	13	13	12	12	25	3	3	2
현남면	20	33	6	6		5	8	4

다음은 토지조사이다. 일제는 1912년 8월 13일 토지조사령을 공포했다.<sup>3)</sup>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동리(洞里)를 구획함에 있어 단순히 사람이 사는 곳의 자연지명을 붙여 ○○동, ○○리 등으로 골짜기 마다 자연지명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일제는 토지조사와 함께 지적을 측량하고, 지번을 부여하고, 이를 공부에 기입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마을을 일정규모로 구획하고 이전의 마을들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마을의 경계를 새롭게 정하면서 마을명도 자연스럽게 정체성이 없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다.



〈지도 1〉 1915년 일제의 군사지도

〈예전에는 많은 동리가 있었으나 일제에 의해 하나의 마을로 통합됨〉

3) 『총독부관보』 1912.8.13 일제침략하 36년사-1 p.758

다음은 1912~1919년 사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작된 지형도와 이를 바탕으로 만든 일본 육군의 군사지도이다. 지명이 기록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은 지도이다. 지명은 지도위에 기재됨으로써 장소의 명명에 대해 강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초 일본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재편하고 자원 토지조사 사업과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글 지명이 일본식 한자 지명으로 바뀌었으며, 새로운 일본식 지명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 지도에는 일본에 의해 정리된 지명이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지도 2〉 1915년 일제의 군사지도

(박달령이 단목령으로, 소동라령이 북암령으로 지도에 표기됨으로서 지명이 바뀜)

다음은 행정구역의 개편이다. 1914년 3월에는 부·군의 폐합을, 4월에는 면의 폐합을 통하여 역사성 있는 지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지명들이 자리를 잡았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1914년 군은 97개, 30.6%가 폐합되었고, 면은 1,834개 42.2%, 리·동은 34,233개, 54.7%가 폐합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36,134개, 53.8%의 행정구역 명칭이 사라지게 되었다.<sup>4)</sup>

이와 같이 지명에 남아있는 민족혼과 민족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이 이른바 창지개명(創地改名)이다.

4) 『한국지명유래집 총정편』 2010.2,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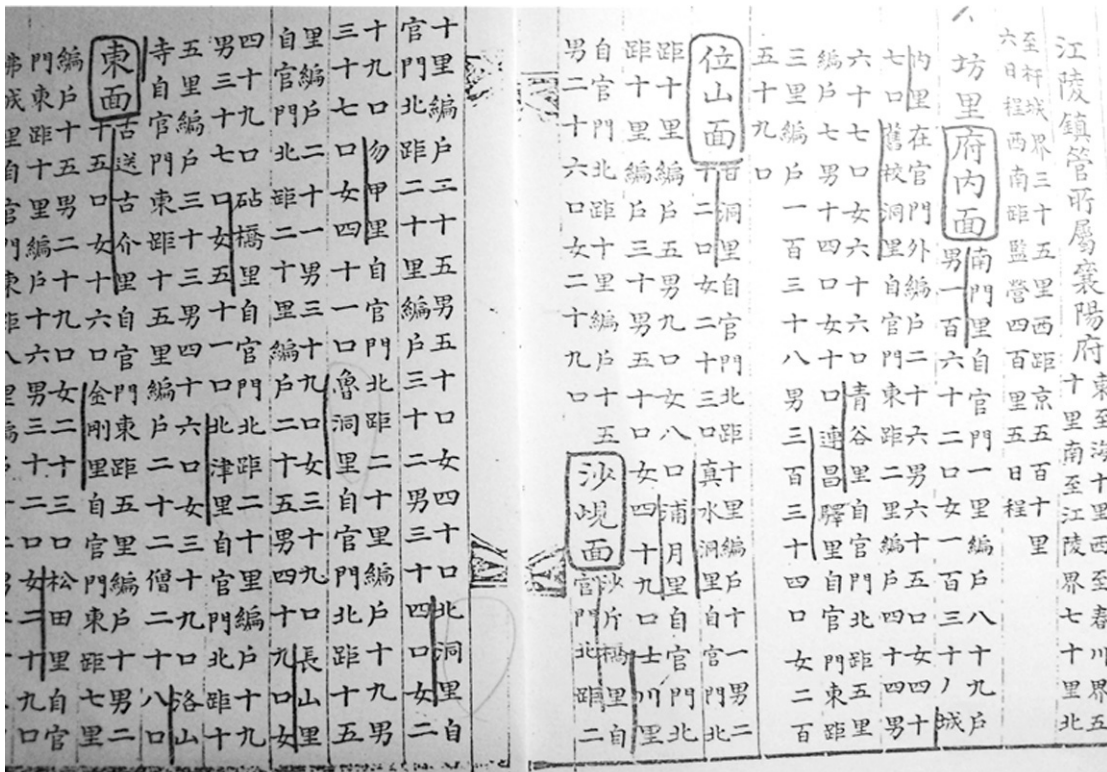


#### 4. 양양지역의 창지개명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제가 우리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자행한 일이 창지개명이었다.

창지개명은 일제강점과 함께 자행되었는데 이를 대표하는 기록이 1911년경에 조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지리지자료」와 1912년 토지조사령에 의거 토지를 측량하면서 붙여놓은 현재 지적도상의 마을명(일명 법정리명), 그리고 일제가 제작한 지도에 기록된 지명들일 것이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창지개명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지명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조선 시대의 지명에 대한 기록으로는 「여지도서」, 「관동읍지」 등에 실린 마을명, 고지도에 표기된 고개(嶺)명과 산(山) 이름, 족보에 표기된 묘지 위치 등이 있을 것이다.



〈사진 1〉 마을명을 기록한 관동읍지 방리편

그런데 1757년의 「여지도서」와 1871년의 「관동읍지」를 비교해 볼 때 1백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마을명 등 지명의 변화는 거의 없다. 그러나 1911년경 일제에 의해 발간된 「조선지리지자료」를 보면 「관동읍지」에 10개면 61개리이던 마을 수가 120개리로 조정되었고, 마을명칭도 「관동읍지」에 기록된 61개 마을 중 21개 마을의 명칭이나 한자가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종전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없는 새로 분리된 마을 56개 마을 중 상당수도 본래의 고을명과 다른 마을명으로 이와 같이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5)</sup>

〈표 2〉 조선지리지자료의 고유 한글지명과 일제가 붙인 한자 마을명 비교

한글(고유) 지명	한문(일제) 지명
군내면 문안	군행리(軍餉里)
군남면 멋질	내곡리(奈谷里)
서면 아에곰밭	북평리(北坪里)
서면 곰밭	용천리(龍泉里)
동면 갈벌	가평리(柯坪里)
동면 돌애골	도동(桃洞)
동면 굴개	동호리(銅湖里)
현북면 기사문리	초진리(草津里)
현남면 수리말	주촌(酒村)
강선면 민보터	관산(冠山)
서면 사당골	사당곡(四當谷)
서면 복지개령	복주령(福注峯)
동면 애미드루	아양평(峨洋坪)
사현면 할미소	노고천(老古川)

면의 수는 줄이고 마을 수는 늘인 이유는 주민 통제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마을을 나누거나 지적측량을 하면서 마을명을 새로이 기재하고, 지도에 표기하면서 창지개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창지개명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 졌으며 같은 유형이 전국적으로 나타남에 비추어 볼 때, 일제의 체계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음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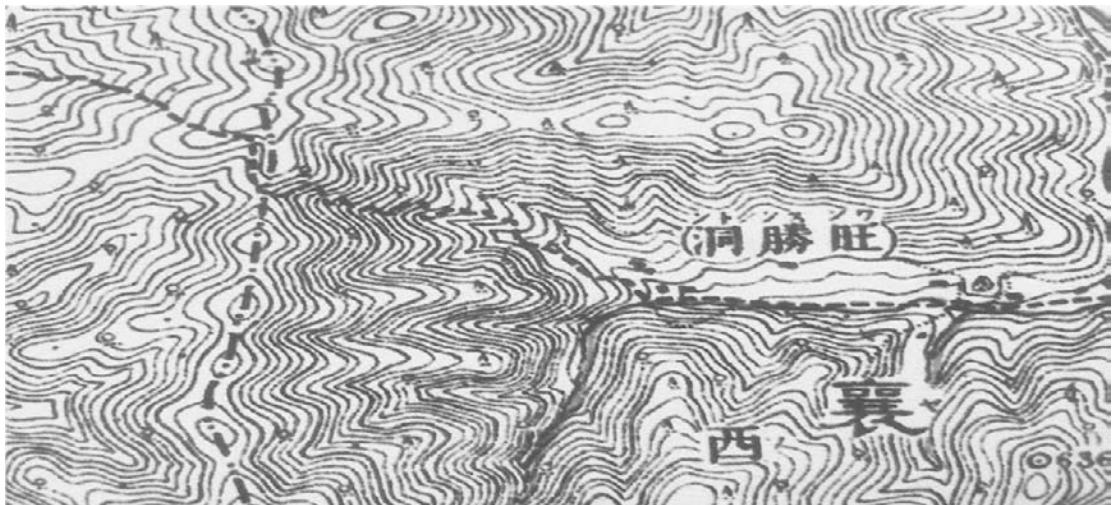
그러면 지금부터 양양지역의 창지개명(創地改名)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먼저 조선 왕을 나타내는 왕(王)을 일본과 왕을 합친 의미의 왕(旺)자로 고친 사례이다. 이는 녹색연합이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다.

5) 경인문화사 『강원도 땅이름 참모습』 2007. 3. 15

조선 세조가 낙산사에 거둥할 당시 잠시 쉬어간 마을이라는 손양면 왕도(王道)리가 왕도(旺道)리로 바뀌었고, 신라의 마지막 태자인 마의태자가 금강산으로 가던 중 신라복원운동 하였다는 왕승동(王勝洞)을 왕승동(旺勝洞)으로 고쳐놓았다. 이러한 현상은 설악산 토왕성(土旺城)폭포, 강릉 왕산면(旺山面), 문경 왕릉리(旺陵里), 논산 왕전리(旺田里), 서울 인왕산(仁旺山) 등 전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손양면 상왕도리, 하왕도리(王道里) ⇒ 旺道里
- 서면 갈천리 왕승동(王勝洞) ⇒ 旺勝洞
- 서면 갈천리 왕승령(王勝峯) ⇒ 旺勝峯



〈지도 3〉 대정 4년(1915년) 일제의 군사지도

## 2) 우리말을 소리나는 대로 한자로 기록해 뜻이 달라진 사례

강현면의 작은 마을이라는 小(작을 소)洞은 순수한 우리말인 적은 골에서 積(쌓을 적)銀(은 은)리로 바뀌었고<sup>6)</sup>, 해안의 굴곡이 심한 마을인 屈(굽을 굴)浦(개 포)리는 순수한 우리말인 굽은 개가 굴개로 다시 구리개로 그리고 銅(구리동)湖(호수 호)리로 바뀌었으며, 예로부터 양양경계로 손님을 배웅하던 고개 마루 마을인 손양면 古(옛 고)途(보낼 송)古介里<sup>7)</sup>는 고송(古送)을 늙은 소나무로 잘못 해석되어 松(소나무 송)峴(고개 현)리로 바뀌었고, 앞산에 수리모양의 바위가 있다고 하여 수리말이라고 하였으나 수리가 술로 바뀌고 수리로 바뀌었다.

6) 양양문화원, 1995, 『양양의 땅이름』 p. 348

7) 『관동읍지』 방리, 동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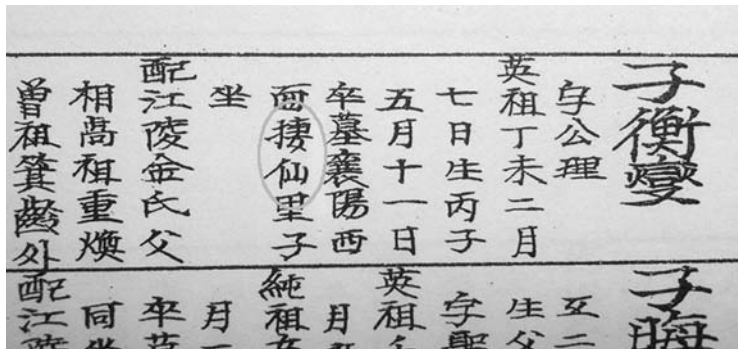


- 강현면 소동(小洞) ⇒ 적은 골 ⇒ 積銀里(적은리)
- 손양면 굴포리(屈浦里) ⇒ 굽은개, 굴개, 구리개 ⇒ 銅(구리동)湖里(동호리)
- 손양면 古送古介里 ⇒ 고송고개 ⇒ 松(소나무송)峴(고개현)里(송현리)
- 현남면 수리 말<sup>8)</sup> ⇒ 술(酒) ⇒ 酒里(주리)

### 3) 마을명을 한자로 바꿔 역사적 정체성을 왜곡시킨 사례

남대천(개울) 건너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越(넘을 월)里가 月(달 월)里로 바뀌었고, 신선이 산다(신다)는 의미의 棲(깃들일 서)仙里는 西(서녘 서)仙里로 바뀌었으며, 호랑이가 나오는 언덕이라는 虎(범 호)阜里는 凡(무릇 범)阜里로, 갈대가 많은 버덩으로 갈골, 葭(갈대 가)坪里가 柯(자루 가)坪里로 바뀌었다. 또한, 물이 남아 넘쳐 무너미라고 불리던 水餘(남을 여)里는 水余(나 여)里로 바뀌었고 하조대해수욕장 넓은 해변이 있는 廣(넓을 광)汀(물가 정)里가 光(빛 광)汀(고무래 정)里로 바뀌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래 인구역이 있었던 獐(강건할 린)丘里는 仁(어질 인)邱里로 바뀌놓았다.

- 양양읍 越里(건너마을, 월동) ⇒ 月里(월리)
- 서면 棲仙里 ⇒ 西仙里(서선리)
- 서면 虎阜里 ⇒ 凡阜里(범부리)
- 손양면 葭坪(갈골, 갈평) ⇒ 柯坪里(가평리)
- 손양면 水餘里 ⇒ 水余里(수여리)
- 현북면 廣汀里(넓은 물가) ⇒ 光汀里(광정리)
- 현남면 獐丘里 ⇒ 仁邱里(인구리)



〈사진 2〉 함평이씨 족보

8) 양양문화원, 1995, 『양양의 땅 이름』



### 5) 마을을 통합함으로써 지명의 정체성을 없애버린 사례

신선이 내린 곳이라는 강선면(降仙面)과 모래언덕이 있다는 사현면(沙峴面)을 합하여 강현면(降峴面)으로 개편함으로써 본 의미가 사라졌으며, 낙산사 앞 포구는 앞나루(前津), 뒷 포구는 뒷나루(後津)로 불리었으나 후진을 전진리와 통합하여 전진리만 남음으로서 전·후의 의미가 사라져버렸다.

- 降仙面 + 沙峴面 = 降峴面(강현면)
- 강현면 前津 + 後津 = 前津里(전진리)

### 6) 마을명을 바꿔버린 사례

기사문리는 본디 안 포구는 초진(草津) 바깥 포구는 기사진(寄沙津)이라 하였으나 기사문리(其士門里)로 바뀌었고, 거말리(居末里)는 거마리(車馬里)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을 형국이 곰이 누워있는 형국이라하여 곰밭으로 불리던 웅전리(熊田里)는 둘로 나뉘어 윗 곰밭은 용천리(龍川里)로 아랫 곰밭은 북평리(北坪里)로 바뀌었으며, 두리는 동산현 뒤에 있으므로 후동(後洞)이라 하였으나 두리(斗里)로 바뀌었고, 낙산사 뒤편, 뒷나루의 위의 뒷골은 용호(龍湖)리로 바뀌었다.

- 양양읍 居末里 ⇒ 車馬里(거마리)
- 서면 熊田里 ⇒ 龍泉里, 北坪里(용천리, 북평리)
- 현북면 草津 + 寄沙津 = 其士門里(기사문리)
- 현남면 後洞 ⇒ 斗里(두리)
- 강현면 後洞 ⇒ 龍湖里(용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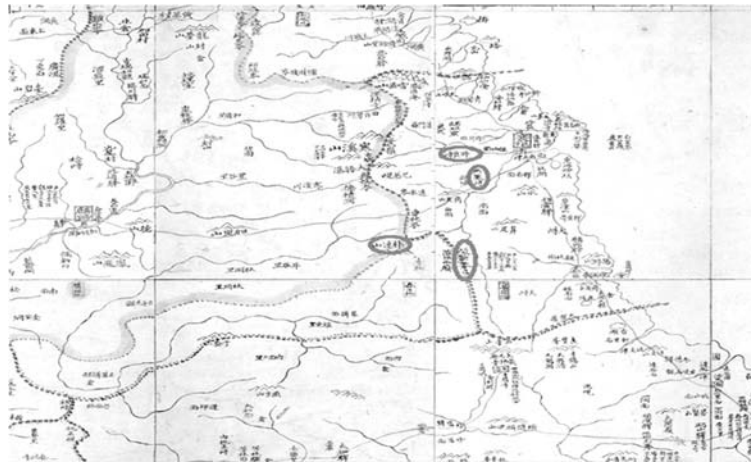
### 7) 일본식 지명으로 바꿔 놓은 사례

조선시대 양양 오색에서 인제 진동리로 넘어 고개명은 박달산을 넘으므로 박달령(朴達嶺)이라고 하였으나 박달나무 단(檀)자를 써서 단목령(檀木嶺)으로 바꿔놓았고, 조선시대 대로였던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영서쪽 마을명을 따서 북암령(北巖嶺)으로 바꿔놓았다. 양야산봉수대가 있었던 양지바른 포구라는 뜻의 양야진리(陽也津里)도 남쪽 물가라는 비슷한 이미지의 남애리(南涯里)로 바꿔 놓았으며, 높고 추운 두 개의 고개를 넘어야 한다는 兩(둘)량寒(찰 한)峙(산 우뚝할 치)는 兩巖(산 이름 아)峙로, 소량치(所良峙)가 선을 치(仙乙峙)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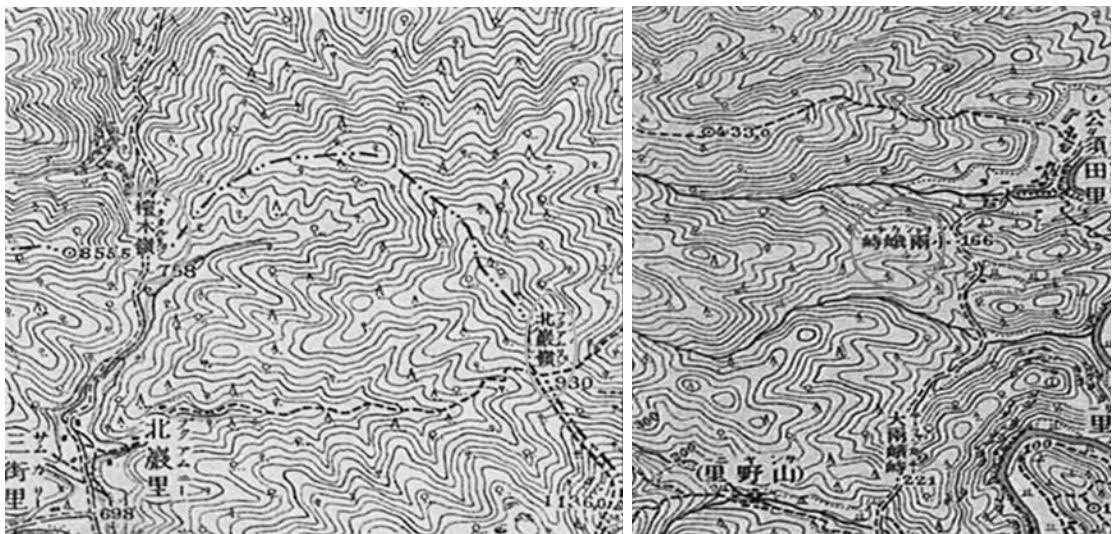
- 서면 백두대간 朴達嶺 ⇒ 檀木嶺(단목령)
- 서면 백두대간 所冬羅嶺 ⇒ 北巖嶺(북암령)
- 현남면 陽也津里 ⇒ 南涯里(남애리)



- 서면 兩寒(찰 한)峙(양한치) ⇒ 兩岷(높을 아)峙(양아치)
- 서면 가라피리 所良峙(소량치) ⇒ 仙乙峙(선을치)



〈지도 4〉 1835년 청구요람



〈지도 5〉 1915년 일제-조선지형도 : 축적1/50,000

### 8) 자연지명을 음에 맞추어 한자만 변경된 사례

소래(所川)와 소어(所魚)가 송천리(松川里)와 송어리(松魚里)와 같은 형태로 바뀐 경우도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의 기록을 보면, 이외에도 송천리의 사당골을 祠堂谷이 아닌 四當谷로 기록하거나 영덕리의 복지개영을 福注峯(북주령)으로, 연창리의 대밋재를 죽담치(竹潭峙)로, 감곡리의 북동재를 고산(鼓山)으로 표기하는 등, 순수 우리지명을 일제가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왜곡 표기한 곳도 많이 있었으나 정확한 자료가 사라진 현실에서 이를 공식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오랜 시간이 흘러 새로 명명된 지명의 옛 지명을 확인할 수가 없다.

## 5. 지명기록의 변천 비교

(양양읍)

여지도서 (1757년)	관동읍지 (1871년)	지방도 (1872년)	족보 기타	조선지리지자료 (1912년)	지적공부 (1917년)	비고	
部内面	南門里	南門里	南門里	襄陽邑 (郡内面)	南門里	南門里	
	越洞				越洞	月里	
	城内里	城内里			城内里	城内里	
	軍餉里				軍餉里	軍餉里	
	舊鄉校洞里	舊校里			舊校里	舊校里	
靑谷里	靑谷里		靑谷里		靑谷里		
連倉驛里	連倉驛里		瓦峴		松岩里	松岩里	
部南面	西門里	西門里			連昌里	連昌里	
	文宣王里	文宣王里			西門里	西門里	
	禾日里	禾日里	禾日里		黍谷里	黍谷里	멋질
	巨末里	居末里	巨末里	禾日里	禾日里		
	林泉里	林泉里	林泉	車馬里	車馬里		
	靈穴寺	靈穴寺		林泉里	林泉里		
位山面	甘洞里	甘洞里	甘洞		甘谷里	甘谷里	감동골
	眞水洞里	眞水洞里	基洞	眞水洞	基里	基里	턱골
	浦月里	浦月里	浦月		丁巽里	丁巽里	
	士川里	士川里	沙川	圖籍洞	浦月里	浦月里	씨다리
				造山里	造山里	아랫사래	
				仕巽里	仕巽里	윗사래	

(서 면)

여 지 도 서 (1757년)	관동읍지 (1871년)	지방도 (1872년)	족 보 기 타	조선지리지자료 (1912년)	지적공부 (1917년)	비 고
西 面	公須田里	公須田里	公須田	松魚里 北庵(庵)里 松川里 公須田里 龍沼洞	松魚里 北庵里 松川里 公須田里 龍沼里	송애 북엄니 소래 공수왓치
	盈德里	盈德里		盈德里	盈德里	버덩말
	西林里	西林里		西林里 米川洞	西林里 米川洞	살애골
	靑臺里	靑臺里		葛川里	葛川里	칠애, 칩내
	五色里	五色里		加羅皮里 五色里	加羅皮里 五色里	갈애피리
	上坪里	上坪里	上坪	上坪里 論化洞	上坪里 論化里	웃드루 론애골
	長牲里	長牲里	長牲里	長承里 西仙里	長承里 西仙里	괘목기
	水洞里	水洞里		水洞 內峴里	水里 內峴里	물골 안고개
	熊田里	熊田里		北坪里 龍泉里 凡夫里	北坪里 龍泉里 凡阜里	아래곰밭 곰밭

(서 면)

여 지 도 서 (1757년)	관동읍지 (1871년)	지방도 (1872년)	족 보 기 타	조선지리지자료 (1912년)	지적공부 (1917년)	비 고	
東 面	古送介里	古送古介里		異 陽 面	松峴里 水餘里	松峴里 水余里	고송고개 무너미
	金剛里	金剛里	金剛里		金崗里	金崗里	
	松田里	松田里			松田里	松田里	슬밭말
	佛城里	佛城里			柯坪里 學浦里 桃洞	柯坪里 鶴浦里 桃花里	갈(葭)골 적성 돌애골

여 지 도 서 (1757년)		관동읍지 (1871년)	지방도 (1872년)	족 보 기 타	조선지리지자료 (1912년)	지적공부 (1917년)	비 고	
東 面	水山津里	水山津里	水山津		巽 陽 面	烏山里 水山里	鰲山里 水山里	오무 수무
	屈浦津里	屈浦里				銅湖里	銅湖里	굴개
南 面	挿存里	挿存里				扶蘇峙里	扶蘇峙里 挿存里 石界里	부소산 섬좋은이
	瓦洞里	瓦洞里	舟村 牛岩里	牛巖		瓦洞 舟村 牛岩里	瓦里 舟里 牛岩里	젓골 배말 소바웃골
	陽穴里	陽穴里				密陽里 上陽穴里 下陽穴里	密陽里 上陽穴里 下陽穴里	행남
	板橋里	板橋里	板橋里			上旺道里 下旺道里 間洞	上旺道里 下旺道里 間里	웃왕도 아랫왕도 셋골
	如雲浦里	如雲浦里				如雲浦	如雲浦里	연개
	祥雲驛里	祥雲驛	祥雲驛		祥雲里	祥雲里	역말	

(현북면)

여 지 도 서 (1757년)		관동읍지 (1871년)	지방도 (1872년)	족 보 기 타	조선지리지자료 (1912년)	지적공부 (1917년)	비 고	
縣北面	陶洞里	陶洞里			縣 北 面	獐里 陶里	獐里 陶里	노루골 질골
	末谷里	末谷里	末谷里	馬谷		末谷里	末谷里	머일
	廣汀里	廣汀里	廣釘 明之洞	明珠洞		上光丁里 中光丁里 下光丁里 明池里	上光丁里 中光丁里 下光丁里 明池里	명지골
	大峙里	大峙里				大峙里	大峙里	한재
	魚城里	魚城里	漁城田			元日田里	元日田里	
	元日田里	元日田里				元日田里	元日田里	원일랑
	綿飛峙里	綿飛峙里				綿玉峙里	綿玉峙里	
	法水峙里	法水峙里				法水峙里	法水峙里	벌소



여 지 도 서 (1757년)		관동읍지 (1871년)	지방도 (1872년)	족 보 기 타	조선지리지자료 (1912년)	지적공부 (1917년)	비 고	
縣北面	草津里	草津里	草津		縣 北 面	草津里 棧橋里	基士門里 棧橋里	草津+奇沙津 잔다릿골
	明珠寺	明珠寺						

(현남면)

여 지 도 서 (1757년)		관동읍지 (1871년)	지방도 (1872년)	족 보 기 타	조선지리지자료 (1912년)	지적공부 (1917년)	비 고	
縣南面	月乃里	月乃里	月川		縣 南 面	上月川里 下月川里 酒村	上月川里 下月川里 酒里	달내 수리마루
	見佛里	見佛里				後浦梅里 見佛里 前浦梅里	後浦梅里 見佛里 前浦梅里	뒤개매 존불,웃개매 앞개매
	元當里	元堂里	笠岩 臨湖里			笠岩里 臨湖亭里	笠岩里 臨湖亭里	갓바우
	北盆里	北盆里	洞山津	洞山		北盆里 洞山里 後洞 昌里	北盆里 銅山里 斗里 昌里 市邊里	뒷밭 뒷골, 뒷머루 창말 장거리 대골
			竹洞			竹洞 亭子洞	竹里 亭子里	
	陽也津里	陽也津里	南涯津			南涯里 遠浦里 池村 地境里	南涯里 遠浦里 池里 地境里	양야진 머주개 방축말 지경말
獐丘驛里	獐丘驛	獐邱驛		仁邱里 廣津里	仁邱里 廣津里	역말 광나루		

(강현면)

여 지 도 서 (1757년)	관동읍지 (1871년)	지방도 (1872년)	족 보 기 타	조선지리지자료 (1912년)	지적공부 (1917년)	비 고		
沙峴面	小斤橋里	沙斤橋里	沙斤橋	沙根橋	降 峴 面	沙橋里	沙橋里	사근다리
	北洞里	北洞里		金鳳洞		金風里	金風里	쇠풍골
	勿甘里	勿甲里	勿甲			勿甲里	勿甲里	
				防築谷		防築洞	防築里	방축골
	北津里	北津里	北津			廣石里	廣石里	나분돌
	長山里	長山里	長山			畚洞	畚里	논골
	砧橋里	砧橋里	砧橋			酒廳里	酒廳里	술청거리
						前津里	前津里	앞나루
	魯洞里	魯洞里	後洞 釘岩			長山里	長山里	진미
	洛山寺	洛山寺				砧橋里	砧橋里	방아다리
降仙面	屯田洞里	屯田洞里	屯田洞		積銀里	積銀里	적은골	
	上福洞里	上福洞里	上福 下福		龍湖洞	龍湖里	뒷골, 옹뭇 증바우	
	石橋里	石橋里	石橋		釘岩里	釘岩里		
	勿淄津里	勿淄津里	沕淄	宅村	屯田洞 間村	屯田里 間谷里	둔전동 새잇말	
					上福洞 中福洞 下福洞	上福里 中福里 下福里	복골	
				回龍洞 石橋里	回龍里 石橋里	도롱골 대문터		
				沕淄里 宅村 降仙里	沕淄里 宅村 降仙里	댁말		

## (기타지명)

청구요람,여지도 (1757년)	관동읍지 (1871년)	지방도 (1872년)	조선지리지 (1912년)	일제지도 (1912년~)
朴達嶺	-		朴達嶺	檀木嶺
所冬羅嶺	所冬羅嶺		北崦峯	北巖嶺
阻枕嶺	阻枕嶺	阻沉嶺	鳥沉峯	鳥砧嶺
所良峙	所良峙		仙乙峙	-
兩寒峙	兩寒峙		兩峨峙	兩峨峙
五色嶺	五色嶺	五色嶺	寒溪嶺	寒溪嶺

## 6. 지명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

일제의 창씨개명은 일제가 떠난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다 보니 광복과 동시에 스스로 옛날의 한국식 이름으로 모두들 바꾸었고, 쇠말뚝도 여러 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대부분 제거된 상태이다.

그러나 창씨개명의 경우 지적공부나 지도 등에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고, 이러한 기록들은 등기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부 등 다양한 공부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노력도 없다보니 다시 되돌리지 못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국보 제1호는 남대문이 아니라 서울 숭례문이다. 보물 제1호도 동대문이 아닌 서울 흥인지문이다. 문화재위원회는 1996년 11월 일제가 지정한 문화재 재평가작업의 하나로 남대문·동대문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었다. 까닭은 남대문·동대문이 고유 명칭이 아니라 단순히 방향을 나타내는 데 불과하며 일제가 처음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조선시대에 원래 사용하던 이름을 되찾아 준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두 이름을 바꾸려면 행정 기록 200여 가지를 변경해야 하므로 전면 교체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지형에서 꼬리 부분으로 꼽히는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일대는 일제강점기에는 장기갑(長鬚岬)으로, 1995년부터는 장기곶으로 불리다가 2002년 들어 호미곶(虎尾串)으로 이름을 확정했다. 이 곳은 16세기 이래 남사고·김정호·최남선 등의 학자가 한반도는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 상으로, 백두산이 코라면 꼬리에 해당하는 곳이라 지목한 땅이다. 일제는 한반도를 호랑이 상이 아닌 토끼 모양으로 왜곡하면서 땅 이름도 장기갑으로 고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제의 잔재이고 우리 땅의 역사를 왜곡시킨 지명은 하루라도 빨리 되돌려야 마땅할 것이다.

현재 행정단위인 시, 군, 읍, 면, 동, 마을의 이름인 행정지명은 안전행정부의 소관이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지역에 붙여진 이름인 강, 포구, 고개, 골, 곳, 나루, 산 등의 지명인 자연지명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소관이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 해협, 만, 포구, 수로 등의 이름과 해저지형의 지명은 수로업무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소관이다.

안전행 정부는 2006년 일제 강점기에 왜곡된 명칭, 왜곡 가능성은 적으나 일제 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으로 명칭이 붙여져 고유 명칭으로의 복원이 필요한 명칭, 어감과 의미가 나빠 주민들이 변경을 희망하는 명칭, 단순히 방위를 나타내는 등 지역 특수성 표현이 부족해 정비가 필요한 명칭 등을 대상으로 조사 정비를 시도한 바 있다.

녹색연합에서도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왜곡된 22개 땅이름을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모두 체계적이지 못한 1회성으로, 조사라기보다는 왕(旺), 황(皇) 등 특정 단어가 들어간 지명을 조사하거나 주민들의 신고에 의존하는 등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 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명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법률로, 읍면동과 리의 명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하게 되어 있고, 기타 지명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관련기관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자치단체장의 의지 부족과 공부를 정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보니 아직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일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고, 새로운 이름으로 인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명을 호감이 가는 한자를 사용하였으며, 조선시대의 체계적인 지명기록을 찾기 어렵고, 일제에 의해 지명이 바뀐 후 이미 고착된 상태여서 창지개명된 지명을 되돌리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 7. 맺음 말

오피니언의 기사에 의하면 1913~1914년에 걸쳐 군 이름 97개, 면 이름 1천834개, 이·동 이름 3만 4천 233개가 없어졌고, 새로 생겨난 지명만도 전체의 35%인 1만 1천여 개에 이른다고 하니, 창지개명은 우리의 정신에 대한 침략이요, 핍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조선시대 고을 명, 산, 하천, 계곡 등 자연 지명들이 기록으로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순수한 우리말 지명조차 남아있지 않아 일제가 새로 만든 지명에 대한 검증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광복 이후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일본식 지명을 정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쉽게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는 일본식 지명이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우리 국토에 깊이 스며들어 고착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



만 광복과 함께 남북이 분단되면서 국민의 먹고 사는 일부터 걱정해야하는 어려운 국가경제 현실에서 각종 공부를 고치기 위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친일 잔재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 행해진 일본식 지명의 정비 사업은 과거 청산 차원에서 일회성 기념행사로 행해진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그동안 이들 자료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일제 강점기 때 새로 만들어진 지명의 파악이 어려웠던 이유도 있다.

그러므로 잘못된 지명이 더 이상 굳어지기 전에 국가의 정체성 회복 차원에서 일제강점기 전후 지명의 자료를 구축하고, 지역단위로 지명변천과정을 조사하고 지명의 기록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조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식 지명을 성급하게 청산 대상화해서는 그 실상을 정확하게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지명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언어 형태적 특성은 물론, 지명이 생성된 지역의 지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오색령, 박달령, 소동라령, 조침령, 양한치 등 산이나 고개와 같은 자연지명의 경우에는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명을 고친 후 국토교통부(국토정보지리원)에 지명의 변경을 신청해 이를 지도에 고쳐 표기하고 표지석을 세우는 등 노력을 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 일제에 의해 바뀐 것으로 밝혀진 지명 중 대부분은 행정구역인 마을 명으로, 이러한 마을명은 주민등록, 등기부 등 모든 공부에 등재되어 있고, 이미 백년이 넘도록 사용해 온,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고 고착화된 지명들로 이를 고칠 경우 많은 비용과 함께 실익보다는 혼란이 더 클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명에 대한 근원, 정체성을 찾아 주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朝鮮地誌資料』	국토지리정보원, 『강원권 일본식 지명의 조사 및 정비 방안 연구』200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朝鮮五万分一地形圖』	함평이씨 세보(족보)
경인문화사,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2007	전주이씨 원풍대군파보
한글학회, 『한국지명총감(강원도편)』1967	전주이씨 효령대군파보
양양문화원, 『양양의 땅이름』1995	연안김씨 대종보
『여지도서』1757	양양군 『개소경궁기』1905~1906
『관동읍지』1871	(주)복스힐, 2006 『강원총람』
『청구요람』1834	『한국지명유래집 충청편』2010.2, 국토지리정보원
『지방도』1872	
『토지조사령』- 지적도 원본상 마을명	
인제군 북면, 『지명조사첩』1959	

# 청소년지역 문화창조 프로그램 해설



- 기 간 : 2013년 5월 ~ 11월
- 장 소 : 양양군관내 문화재 및 축제장
- 대 상 : 양양중학교 학생 20명
- 해 설 : 이규환, 김재환, 김양식, 이철수, 이기용, 김선래, 한창순
- 특 강 : 양언석 교수(강원도립대)
- 내 용 :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우리지역의 문화재를 향토사연구원들과 함께 우리 조상의 얼과 그들의 빛나는 슬기에 대해 배우며 잊혀지고 지워져가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오늘에 이어 조상의 숨결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재를 더욱 잘 알고 사랑하며 보호하는 것을 배운다.



## 현산공원

해설 김양식

현산공원은 양주성의 일부로 양주성은 현산공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성내리 쪽으로 완만하게 돌아 성황사(城隍祠)를 에워싸면서 구교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동쪽과 서, 북쪽을 둘러싼 반달 모양의 현산을 따라 축성한 성곽으로 낮은 구릉지대였는데 남쪽면은 남대천이 서쪽에서 동쪽의 동해로 흐르고 있어 마치 광대한 해자(垓字)를 이루고 있는 듯한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쌓았으므로 천혜의 요새라 하겠다.

양주성은 양양읍성이라고도 하는데 역사는 약 천 년 전으로 우리나라 중동부 변방의 수어기지로 북호남왜(北胡南倭)의 술한 외침을 막는 방과제 역할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 제7대 목종10년(1007년)에 양주성을 처음으로 축성하였으며, 조선 제3대 태종 13년(1413년)에 도호부를 두면서 동헌을 중심으로 서, 남, 북문을 설치하고 석성을 길이 430척, 높이 50척의 규모로 쌓고 토성을 길이 2,825척으로 쌓았으며 성 안에는 2개의 우물을 시설하였다고 전한다.

또한 공원에는 충훈탑, 필승탑, 3.1운동 기념비, 행정수복탑, 금석문비(선정비, 홍학비, 기념비 등) 공병탑이 있다

### 가) 충훈탑

- 1) 일제에 항거한 독립열사 22위
- 2) 공산치하를 항거한 반공 애국지사 106위
- 3) 6.25 한국전쟁 중 순국하고 월남전에서 전사한 영령 187위
- 4) 1966년 6월 6일 현충일 건립 - 총 315위의 충정을 기리는 탑, 1981년 보수, 정명시 군수의 친필



### 나) 행정수복기념탑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양양은 38도선 이북인 관계로 공산치하에 귀속 6.25 한국전쟁 후 행정 수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1954년에 건립한 기념탑



## 현산공원

### 다) 독립문

6.25 한국전쟁 종식 후 군단산하 1101야전공병단이 양양지역의 도로, 관공서 및 학교 건축물 등 재건한 공을 기리는 수복기념 공병탑.  
당시에는 군청 사거리에 건립 - 양양교 입구 제방 - 현산공원으로 이전.



### 라) 필승탑

1953년 6.25 한국전쟁 당시 제1군단 부군단장이며 제29사단장을 역임했고 “태권도” 정식 명칭을 만들었던 최홍희 장군이 북진통일을 기약하며 직접 자필로 쓴 기념탑(가로 2.4m 두께 0.5m 높이 5m)



### 마) 3.1운동 기념비

- 1) 1905년 을사조약 체결 -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 2) 1907년 7월 고종황제 호위와 이완영 내각, 사법권 강탈, 국군 해산
- 3) 1908년 6월 양민 학살 - 함흥기, 김덕기 외 12명
- 4) 1919년 1월 고종황제 승하 - 독살설, 국장에 참여했던 이석범 (도문동) 주도
- 5) 1919년 4월3일 임천리에서 22명 체포. 각 면에서 태극기 1,100여개 제작
- 6) 4월 4일 장날을 기해 각 면별로 양양장으로 집결하여 만세운동 참여
- 7) 4월 5일 물치 장날을 기해 강현면, 도천면 주민들의 조직적인 만세운동 참여
- 8) 양양보통학교 학생, 감리교회 청년회, 6개면 82리 마을에서 약 6,000여명 동참
- 9) 동아일보 창간 45주년 기념사업으로 1974년 동아일보사와 양양군 협찬회 공동으로 건립 - 전국 지방에서는 양양에서 가장 극렬하게 만세운동 전개(순국의사 12명, 수행자 73명, 부상자 21명)
- 10) 독립선언문 전문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 하노라. 차로서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 바) 현산정

1700년 숙종 26년 부사 남치훈이 창건하였다.  
남쪽 성문루(현 의회 앞)에 위치 영조 24년 부사 박필정이 중건하고 현판은 채팽윤이 썼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善政碑 (현산공원 선정비)**

- 1) 도호부사 임후목 청덕선정비 - 1433 세종 15년, 흥년에 굶주리는 부민에게 선정, 문중에서 최근 제작.〈앞줄 우측에서 2번째〉
- 2) 부사 권 진 선정비 - 1610~1611 광해군 때 문신, 재직 중 혹정하여 부민이 먼저 선정비 세움으로 각성하여 청렴관후가 된 사례. 〈앞줄 우측에서 7번째〉
- 3) 부사 이경용 인정비 - 1630~1632 인조 8년.〈뒷줄 우측 9번째〉
- 4) 부사 유 향 선정비 - 1633~1635 인조 때, 연화문의 비갓
- 5) 부사 이상일 선정비 - 1644~1649 인조 22년, 백성들의 억울함을 달래던 타루비, 당시 구교리와 연창리 사이 길에서 이전.
- 6) 부사 강호 청덕불망비 - 1660~1664 효종 때 문신, 1669년 강원도 각 지역이 강등될 무렵 원양도 관찰사 제수
- 7) 현감 한명상 불망비 - 1691~1692 숙종 때, 구름무늬 비갓
- 8) 부사 김연 청덕선진불망비 - 1697~1698 숙종 23년, 장학에 힘쓴 공.〈앞줄 우측에서 5번째〉
- 9) 부사 양중하 선정비 - 1702~1705 숙종 때, 비갓없이 둥근 모양.〈앞줄 우측에서 8번째〉
- 10) 부사 정필동 선정비 - 1706~1707 숙종 32년 부임, 풍속교화 〈앞줄 우측에서 3번째〉
- 11) 부사 채팽윤 선정비 - 1722~1724 경종 때, 정사에 탁월하고 현산정 현판글씨, 동해묘 중수, 당시 읍사 무소 정원에서 발굴 이전. 〈좌측 별단에 안치〉
- 12) 부사 류경시 선정비 - 1727 영조 3년 부임, 교학 진작시킨 공, 부민이 거문고(양양금) 증정, 현재 경북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소장, “경북도유형문화재 제314호 지정”되어 악보와 함께 전시. 문중에서 최근 제작.〈앞줄 우측에서 1번째〉
- 13) 감사 유득일 영세불망비 - 1757~1757 영조 33년, 강원도 관찰사
- 14) 관찰사 강선 영세불망비 - 1765~1767 영조41, 부역 감소의 공 〈앞줄 우측에서 10번째〉
- 15) 부사 이광식 영세불망비 - 1808~1783 순조 8년, 이후 이조참판 벼슬, 유일하게 양각된 철비이다.〈뒷줄 우측에서 6번째〉
- 16) 부사 권중민 선정비 - 1823~1825 순조 23년 부임, 법 질서 확립 〈뒤줄 우측에서 6번째〉
- 17) 부사 정기풍 선정비 - 1848~1850 현종14년 부임, 구름 비갓
- 18) 군수 조관현 불망비 - 1896~1900 건양 1년 일제 때 토비중대장을 꺾임 부민 의병을 진압, 비의 절반이 땅에 묻혀있다.〈뒷줄 우측 8번째〉
- 19) 마모 (찰) 확인불가 - 둥근 머리 비갓
- 20) 김정순선생 교학송덕 기념비 - 개화초기에 현산학원에서 부국강병 역설 한국최초 여교장 부임, 광복 후 양양지방인민위원장 역임, 한국전쟁 이후 작고.〈뒷줄 우측에서 1번째〉
- 21) 대풍수재조난자 위도비 - 1936년 7월 11일 병자년 포락 시 조난 및 사망자(약 600~1,000명) 위로비, 비문과 휘호는 원창희의 소작이다. 당초 서문리의 노변에서 이전



# 소동라령

해설 이기용

## ■ 소동라령(所冬羅嶺) - 파워포인트로 설명 후 현장 실사

『세종실록지리지』양양도호부편에 “要害, 自本府西去麟蹄境所等羅嶺三十六里”라는 기록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제45권 강원도(江原道) 간성군편에 보면 “미시파령(彌時坡嶺)은 고을 서남쪽 80리 쯤에 있다. 길이 있으나 예전에는 폐지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성종(成宗) 24년에, 양양부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다 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고 적고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양양부 산천조에도 “소동라령(所冬羅嶺)은 부 서쪽 60리에 있으며 겹쳐지고 포개진 산맥에 지세가 험하고 궁벽지다. 예전에는 서울로 통하는 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으로 볼 때, 소동라령이라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영로가 있었으나 길이 험하여 성종 24년 국가가 관리하던 영로를 폐지하고 지금의 미시령으로 옮겼다.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한계령의 옛 이름이 오색령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소동라령이 지금의 한계령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소동라령의 위치가 한계령이 아니라 북암령이며, 일제의 창지개명으로 바뀌었음을 입증시킴으로써 2012년 강원도문화원연합회에서 실시한 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 ■ 소동라령의 위치

- 옛 지도에서 본 소동라령의 위치

제 작 년 도	지 도 명	고지도에 표기된 고개 명칭					
		한계령	오색령	필노령	박달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758	팔도지도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789	여 지도		오색령		연수령	소동라령	구룡령
1800	광 여 도		오색령			소동라령	
1800	해동지도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830	좌해지도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834	청 구 도		오색령	필여령	연수령	소동라령	
1857	동 여 도	한계령	오색령	필노령			구룡령

이 영들은 영동에서 영서로 통하는 백두대간을 넘는 영들이기 때문에 지도상에도 북에서부터 남으로 순차적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도는 한눈에 볼 수 있어 글로 기록된 문헌에 비해 영의 좌우관계를 그려 칠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모든 고지도에서 소동라령은 오색령 남쪽 위치에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수파(박달령)와 구룡령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 문헌기록에서 본 소동라령의 위치**

『여지도서(輿地圖書, 1765년)』와 『관동읍지(1871)』의 양양 관애(關阿)편에 오색령·필여령·소동라령·조침령·구룡령·형제현·양한치 등의 일곱 항목이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 “오색령은 설악 남쪽가지에 접하고 인제와 경계를 이룬다. 필여령은 오색령 남쪽가지에 접하고 있으며 춘천 기린과 경계를 이룬다. 소동라령은 필여령 남쪽가지에 접해 있고 기린과 경계하며, 구 유로로 서울로 통하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조침령은 소동라령 남쪽가지에 접하고 기린과 경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江原道 襄陽郡邑誌 二)』에도 “소동라령은 부 서쪽 60리에 있다. 즉 필여령 남쪽 가지로 기린과 경계를 이루며, 옛날 서울로 통하던 길이었으나 지금은 폐쇄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를 종합하면 소동라령은 필여령과 조침령 사이에 있었던 영임을 확인할 수 있어 필여령 북쪽에 위치한 현재의 한계령은 소동라령과 같은 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기록뿐만 아니라 『대동지지(大東地志)』1866년 양양 영로조(襄陽嶺路條), 『만기요람(萬機要覽)』군정편4(軍政編四) 관방(關防) 강원도편, 『관동지』13권에 모두 오색령은 인제와 경계한다고 하고 있으나 소동라령은 기린과 경계한다고 하고 있어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를 경계로 하는 영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소동라령은 양양에서 남대천을 따라 올라오다 망령고개(望靈峙)나 한령을 넘고 소천이나 소어리를 거쳐 지금의 북암령을 넘어 기린현내 진동리와 곰배령을 거쳐 귀둔, 추동, 고사촌, 합강정을 경유해 인제로 연결되는 영로였던 것이다.

**■ 오색령(五色嶺)**

**- 한계령의 옛 지명은 소솔령**

1589년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한 팔곡 구사맹(八谷 具思孟)의 『팔곡집(八谷集)』에 한계산(寒溪山) 시(詩)의 주석(註釋)을 살펴보면 “양양에서 소솔령(所率嶺)을 넘어 인제로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한계사(寒溪寺 : 장수대 인근의 절)에서 투숙함으로 이들을 접대하기 힘들고 감내할 수 없어 스님들이 절을 버려두고 떠나 절은 허물어져 빈터만 남아있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 1454~1492년)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 “오색역(五色驛)을 출발하여 소솔령(所率嶺)을 올라 여기를 소금강산이라 부르는 것이 빈말이 아니구나, 하고서 영(嶺)위에서 동해를 하직하고 원통을 지나 인제현(麟蹄縣)에서 묵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오색에서 장수대(한계사)를 지나 인제를 통하는 지금 한계령의 옛 이름은 소솔령이었음을 알 수 있다.

## 소동라령

### - 소슬령이 오색령이 된 근거

문헌에 오색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찾을 수 있다. 선조실록 권72(宣祖實錄卷七十二) 1596년 2월 1일(戊戌)에 비변사(備邊司)가 아뢰기를 “적병이 경상도의 영해(寧海) 연해를 따라 북상하게 되면, 평해와 울진이 가장 먼저 적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곳을 만약 지키지 못하여 적병이 깊숙이 영동(嶺東)으로 침입하면, 추지령(楸池嶺)·미수파(彌水坡)·오색령(五色嶺)·백봉령(白鳳嶺) 등의 곳은 모두 영(嶺)을 넘는 길이 될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토록 이용이 많았던 소슬령(所率嶺)이라는 고개명은 이때부터 모든 기록과 지도에서 사라지고 오색령(五色嶺)이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이는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복잡한 고개명칭(소파령, 소슬령, 소어령, 소동라령 등)의 혼돈으로부터 오색역을 지나는 영로라는 지명을 통해 고개의 위치를 쉽게 기억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김수증(金壽增)의 『한계산기(寒溪山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91년(辛未) 5월 9일(甲午)의 기문(記文) 중에 “한계사(寒溪寺) 옛터를 지나니 북쪽편의 모든 산봉우리들은 곧게 솟아 있고, 나무들이 무성하여(생략) 개울가 돌 위에서 점심을 먹고서, 지나가는 스님을 만나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곧 대답하기를 오색령(五色嶺)을 경유하여 양양(襄陽)으로 가는데 거리는 약 80리가 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에서 우리는 양양에서 오색을 거쳐 한계사 터를 지나 인제로 가는 영이 소슬령임을 기록을 통해 확인했었다. 그런데 한계사 옛터를 지나면서 지나는 스님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물으니 오색령을 거쳐 양양으로 간다고 하고 있다. 이로서 소슬령이 오색령으로 이름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계사에 투숙객이 많아 이를 감내할 수 없어 절을 버리고 떠날 정도로 이용객이 많았던 소슬령 지명이 모든 지도에서 사라졌다면, 문헌상에 필여령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모든 지도에서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오색령이 과거의 소슬령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며 오색령은 당시에 양양과 인제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영로로 지금의 한계령임을 알 수 있다.



〈지도〉





## ◆ 오색령 지명 복원의 당위성 ◆

### 1. 개요

지금의 한계령은 양양군 오색령이다. 오색령이라는 지명의 효시는 조선 선조실록에 의하면 1596년에 처음 명칭이 등장하여 이때부터 계속 오색령으로 불리어 왔다.

이곳은 행정구역상으로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30번지이다. 따라서 우리 땅에 걸 맞는 이름을 갖는 것은 우리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행정 난맥상(亂脈相)으로 빼앗긴 오색령 명칭을 아직도 되찾지 못하고 지도상에 버젓이 한계령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 2. 역사적 자료들

#### 1) 오색령 명칭이 기록된 고문헌(古文獻)

- 추강 남효원의 유금강산기
- 팔곡 구사맹의 팔곡집
- 조선왕조실록
- 양서 이광운 선생년보
- 김수증의 한계산기
- 만기요람
- 양와 이세구 양와집
- 저촌 십육 풍악록
- 이궁익 연려실기술
- 명암 이해조 현산삼십경
- 이중환 택리지
- 다산 정약용 다산시문집
- 해좌 정범조 해좌선생문집
- 성해응 기관동산수
- 식산 이만부 금강산총기
- 여암 신경준 산경표
- 관동창의록
- 증보문헌비고 권28

#### 2) 오색령 명칭이 표기된 고지지 및 고지도

〈고지지(古地誌)〉

- 여지도서
- 대동지지
- 관동읍지
- 양주읍지
- 현산지
- 강원도지

## 오색령

### 〈지도자료(地圖自料)〉

- 해동지도 ● 광여도 ● 여지도 ● 관동지도 ● 청구도 ● 대동여지도
- 양양읍지도 ● 동역도 ● 팔도지도 ● 좌해분도 ● 동여도 ● 조선여지도
- 동방여전도 ● 1872년 지방지도 외 29개 지도에 오색령이 표기됨.

### 3) 일제강점기 통상적(通常的)으로 오색령 명칭을 사용

#### 〈동아일보기사〉

1932년 3월 15일 동아일보 기사에 “인양선도로문제로 동민당국(洞民當局)에 진정 오색령으로 고쳐달라고 800명 동민연서로”란 제목으로 대서 보도되었다. 기사내용은 인제군 주민 800명이 연서하여 인제군 북면 원통리를 중심으로 오색령을 관통해 달라고 인제군과 강원도당국에 진정서를 제기하였다.

#### 〈매일신보기사〉

1938년 12월 6일 4개면 연합으로 오색령 도로수선 탐승객에 편의불소(便宜不少)

####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부관보에 1913년 1월 15일자로 강원도의 3등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하다.

울진~죽변 간, 강릉~견소진 간, 양양~인제 간(藥水里 五色嶺 魚頭里 經由)…라 하였다.

#### 〈개벽(開闢)〉

- 개벽 제42호 1923년 12월 1일 기사제목 조선의 처녀지인 관동지역 란에… 중략 “즉 영동의 울진, 삼척, 강릉은 대개 경상도와 갖고, 양양, 고성(杆城合郡)은 영서와 갖고 고대로(古代路) 오색령을 통하여 영서의 교통이 빈번(頻頻)한 소이(所以)…생략
- 개벽 제42호 1923년 12월 1일 기사제목 관동의 흑산국 양양군(關東의 黑山國 襄陽郡)란에 시사문제는 오색령도로문제(五色嶺道路問題)와 송계문제(松契問題) 최종요하나 오색령문제는 대개 민간요구와…생략

### 4) 일제강점기 지지(地誌)와 지도(地圖)는 한계령 명칭 사용

#### 〈조선지지자료〉

1914년 이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전국의 지명과 지지자료 내용 중에 양양군 서면 오색령을 인제군 북면 지역에 표기하고, 한계령은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변경 표기함으로써 오색령과 한계령이 뒤바뀐 것을 발견하였다.

## 〈지도발행〉

1915년 조선총독부지도(1/50,000)와 1930년 한국근대지리지자료의 인제군세 일반지도(1/200,000)에 오색령 명칭이 삭제되고 한계령으로 표기되어있다.

## 5) 정부수립 이후 왜곡(歪曲)된 한계령명칭 계속사용

## 〈국무원 전국지명조사〉

- 1959년 3월 전국 일제지명조사 실시

당시 지명조사 보고서식을 보면 지도상기재, 경위도, 좌표, 유래를 보고토록 되었는데 양양군의 지도에는 오색령 지명이 기재되지 않아 보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1959년 3월 인제군에서 보고한 한계령 유래를 보면

“영동과 통하는 오색령의 낮은 영으로 한계지역에 있다하여 한계령이라고 하나 오색령 이라고도 함”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의역을 하면 인제군에서는 한계령은 인제군 한계리 지역에 있는 낮은 령이고, 오색령은 양양군 지역에 있는 높은 령으로 존재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 국무원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구역이외의 표준지명을 정하여 이를 사용한다 라고 국무원고시 제 16호(1961년 4월 22일)로 전국의 지명을 고시할 때 인제군 한계령도 함께 고시되었다.

## 〈1950년대 이후 한계령이 표기된 지도〉

- 1950년 미군사지도(일본육군참모본부 간행지도 인용)
- 1958년 민간회사 제작지도
- 1966년 국토지리정보원 지도
- 1967년 국방부측지부대 지도

## 3. 오색령 명칭복원을 위한 추진상황

- 2010년 양양군 주관 - 오색령 관련 학술심포지엄 개최
- 지명복원 제안 → 양양문화원 2011년 상반기 → 양양군지명위원회(접수보류)
  - 1차 심의-양양군지명위원회(미개최)
  - 2차 심의-강원도지명위원회(미개최)
  - 최종심의-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 고시 후 지도에 표기 또는 수정(미개최)

## 오색령

- 2011년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 2012년 강원향토문화연구논문 최우수상 수상 -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
- 2013년 강원향토문화연구논문 장려상 수상 - 일제강점기 창지개명 사례연구(양양중심으로)

### 4. 맺는 말

역사적으로 고증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현재의 한계령 위치와 명칭은 잘못된 기록이며 오색령이 맞다고 본다. 특히 인제군에서 1959년도 국무원에 지명조사보고 당시 한계령명칭과 유래를 “영동과 통하는 오색령의 낮은 령으로 한계지역에 있다하여 한계령이라고 하나 오색령 이라고도 함.”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말은 현재의 한계령(오색령)은 옛 한계령이 아니며, 옛 한계령은 인제군 한계지역에 따로 존재하고 있는 오색령 보다 낮은 영으로서 넓게는 오색령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제가 만든 지도에 오색령을 한계령이라고 적고 있음에도 인제지역에서는 해방 후인 1959년 당시에도 현재의 한계령은 오색령으로 불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일제강점기에 지도에 왜곡 표기된 한계령 명칭을 계속 답습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갈등을 더 이상 수수방관 하지 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현 한계령 위치에는 오색령으로 표기하고 기존의 한계령 명칭은 인제군이 국무원에 보고하였던 옛 한계령 위치에 각각 수정 표기해야 한다. 이것만이 왜곡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는 길이라 사료된다.





# 낙산사

해설 이규환

## ◆ 낙산사 전설 ◆

고려 중 익장(益莊)의 기문에, 옛적 신라 의상법사(義相法師)가 친히 불성(佛聖:부처를 거룩하게 이르는 말)의 모습을 보고자 하여 돌 위에서 전좌 배례(展坐拜禮)하였다. 7일간씩 2회에 걸쳐 정성스럽게 하였으나 그래도 볼 수 없었으므로, 바다에 몸을 던졌더니, 동해 용왕이 돌 위로 붙들고 나왔다.

대성(大聖)이 곧바로 굴속에서 팔을 내밀어, 수정염주(水精念珠)를 주면서, ‘내 몸은 직접 볼 수 없다. 다만 굴 위에서 두그루 대나무가 솟아난 곳에 가면, 그곳이 나의 머리꼭지 위다. 거기에다 불전(佛殿)을 짓고 상설(像設)을 안배하라.’ 하였으며 용(龍) 또한 여의주와 옥을 바치는 것이었다. 대사는 구슬을 받고 그 말대로 가니 대나무 두 그루가 솟아 있었다. 그곳에다 불전을 창건하고 용이 바친 옥으로써 불상을 만들어서 봉안하였는바, 이절이 곧 낙산사이다.

조선 태조(李成桂)의 증조부(曾祖父)인 익조(翼祖)께서 정숙왕후(貞淑王后)와 함께 여기에 와서 후사(後嗣:대(代)를 잇는 아들)를 점지(자식을 잉태(孕胎)하게 하여 줌)하도록 기원하였다. 어느 날 밤 꿈에, 가사(袈裟:승려가 입는 법의)를 걸친 중이 와서 알리기를,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름은 선래(善來)다.” 하였다. 얼마를 지나서 도조(度祖)를 낳으므로 드디어 선래라 이름 하였다.

조선 태조가 나라를 세우시고, 봄가을에 사자(使者:윗사람의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를 보내 사흘 동안 제(祭)를 실시하여 치성하였고, 그 후에는 갑령(甲令:항상 하는 일)에 적어서 항규(恒規:보통 있는 흔한 예(禮))로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4권 양양도호부 불우 편)

### 낙산사 일원 (1)

- ◆ 사적 : 국가지정문화재 제495호 (2008년 12월 18일 지정)
- ◆ 위치 : 강현면 전진리 55
- ◆ 면적 : 92,637㎡(28,022평)

낙산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新興寺)의 말사로서 해변에 위치하며 관동팔경의 하나이다.

낙산은 산스크리트(고대 인도 아리안 말, 불경이나 고대인도 문학은 이것으로 기록 됨)어의 보타락가(補陀洛伽)에서 유래한 말이며 관세음보살이 항상 머무는

낙산사 일원  
(1)

곳을 뜻한다.

낙산사는 신라 화엄종(華嚴宗)의 종조(宗祖)인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창건 했다는 사찰로 수차례 전화로 파괴와 복원이 되풀이되면서 현재에 이른 동해안을 대표하는 관음도량 이다.

1971년 12월 16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되었던 낙산사 일원은 2005년 4월 5일 산불로 인해 원통보전을 비롯한 많은 전각들이 소진되었다. 옛 모습을 되찾으면서 문화재로서의 중요도가 재인식되어 2008년 12월 18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되었다.

홍예문  
[2]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3호 (1971년 12월 16일 지정)

세조 13년(1467년) 왕이 직접 낙산사에 행차한 것을 기념키 위해 세조의 명으로 당시 도내 소속 26개 고을에서 석재를 하나씩 추렴[出斂]해서 사찰의 입구에 만든 무지개 모양의 석조문(石造門)이다. 또 인근 마을의 이름이 정암리가 된 것도 이들 석재를 다듬던 동네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홍예문 위 누각은 1963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김유성(金有聲.1763~1764)이 통신사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다가 '세이켄사(淸見寺)' 주지의 요청에 의하여 그곳에 그려 놓고 온 낙산사도(洛山寺圖)에 홍예문 누각이 그려진 것으로 보아 18세기 이전에 누각이 있었다고 본다. 지금의 누각은 2005년 산불로 전소되었던 것을 다시 복원한 것이다.

낙산사 담장  
[3]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4호 (1971년 12월 16일 지정)

낙산사 원통보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은 세조 때 낙산사를 중수할 때 처음 쌓았다고 하는데 기와와 흙을 차례로 다져 쌓으면서 중간에 원형 돌을 박아 넣어 조형미가 뛰어나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원형으로 남아 있던 담은 원통보전 배면에 쌓은 5.8m와 좌측 21m, 우측 8m에 불과하였다. 2002년 태풍 루사 때 피해를 입어 보수하였다. 그러나 2005년 산불로 또 훼손되어 보수하였는데 담의 평균 높이는 약 3.8m이며, 총길이는 220m이다.

**칠층석탑  
[4]**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499호 (1968년 12월 19일 지정)

석탑은 신라 문무왕 16년(676년) 3층으로 건립하였는데 조선 세조 때에 현재와 같이 7층으로 다시 건조한 조선 초기 다층 석탑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양식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대표적인 문화재이다.

기단부의 지대석은 2단으로 자연석 위에 정방형을 올린 형태이며 윗면에는 한 번에 6개씩 총24개의 겹 연꽃무늬를 조각(彫刻)하였다.

이러한 문양은 고려시대 이후 양식으로 강릉 신복사지 삼층석탑(보물 제87호)과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에서 볼 수 있다. 세조는 승유억불정책을 표방했던 조선왕조에서 세종, 명종과 더불어 불교를 지원한 왕이었다.

**건칠관음  
보살좌상  
[5]**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362호 (2003년 2월 3일 지정)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은 조선시대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불상으로 나무, 종이, 천으로 만든 불상 위에 건칠을 한 뒤에 도금한 것으로 강원도에 서는 거의 유례를 볼 수 없는 건칠기법의 불상이다.

높이 1.44m로 적당한 크기의 이 불상은 후대에 만든 금속제 8각 대좌 위에 걸가부좌(結跏趺坐)한 상태로 허리를 곧추세우고 약간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는 형상으로 앉아 있다.

세조 연간 인 15세기 후반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조성 년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상태이다.

전언에 의하면 한국전쟁 이후 인근 양양읍 화일리 영혈사에서 옮겨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로 인해 두 사찰 사이에 논란이 있고, 2005년 산불 때 낙산사 스님들이 재빨리 옮기는 덕에 피해를 입지 않고 현존하고 있다.

**공중사리탑  
[6]**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5호 (1982년 11월 3일 지정)

숙종 18년(1692년)에 세워진 사리탑으로 부도형 사리탑은 현존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가치가 높다.

공중사리탑  
[6]

2006년 4월 28일 옥개석을 해체 보수하던 중 탑신 상부에서 사리장엄구(금제함, 은제함, 청동제 외함, 관련기록물 등)가 발견되어 새로이 주목받게 되었으며 홍련암 근처에 있는 해수관음 공중사리비에 기록된 공중사리탑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문에 따르면 숙종 9년(1683년) 홍련암 개금불사 도중 공중에서 사리가 떨어져 이를 봉안키 위해 사리탑을 세웠고 이로 인해 공중사리탑으로 불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리가 발견되어 비문의 기록이 확인되었으며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격상되었다.

홍련암 인근에 있는 높이 2.12m의 해수관음 공중사리비도 이현석(李玄錫, 1647~1703년)이 춘천부사로 있던 1693~1694년에 썼다고 하는 비문의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8호 (1974년 9월 9일 지정)

의상대  
[7]

의상스님이 중국 당나라에서 돌아와 낙산사를 지을 때 이곳에 이르러 산세를 살핀 곳이며, 의상스님의 좌선(坐禪) 수행처라하여 이 일대를 의상대라고 불렀다고 한다.

의상대의 정확한 창건연대와 존치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근대 이전에 폐허가 되었던 듯하다. 1925년에 낙산사 주지 김만옹(金晩翁)스님이 이곳에 정자를 중건하였다. 정자를 지을 당시가 6월인데 들보로 쓸 굵은 나무를 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참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 대 위에 있던 소나무 한 그루가 넘어졌고, 스님은 그 소나무로 들보를 만들어 육각형의 정자를 완성하였으나 1936년 폭풍으로 무너져 1937년에 복원하였다고 한다.

해안 절벽위에 위치한 전국 굴지의 아름다운 곳이지만 해풍에 약하여 부식이 잘 되는 취약점도 있다. 따라서 1975년, 1995년, 2005년 각각 세차례 중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곳은 관동팔경의 하나인 낙산사와 함께 일출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어 예나 지금이나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새해 해맞이 행사 때에는 엄청난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이다.



홍련암  
[8]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6호 (1984년 6월 2일 지정)

의상대사가 문무왕 16년(676년)에 창건하였다. 의상대사가 동굴 속으로 들어간 파랑새를 쫓아가서 석굴 앞 바위에서 기도하다 붉은 연꽃 위의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세운 암자로 낙산사의 모태가 되는 곳이다.

이후 수차례 중건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중요 중건기록은 조선시대 4회(광해군 11년(1619년), 영조 28년(1752년), 정조 21년(1797년), 고종 6년(1869년))와 일제강점기인 1911년과 광복이후 1975년 2002년 각각 중건 되었다.

홍련암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이다. 불전 내부 바닥의 구멍을 통해 해안절벽 아래 관음굴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산불로 주변이 대부분 불탔으나 필사적인 소화작업으로 불전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아 영험함을 더해주고 있다.

해수관음상  
[9]

◆ 1972년 처음 착공되어 5년 만인 1977년 11월 6일 점안했다.

이 해수관음상은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화강암 산지로 손꼽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약 700여 톤을 운반해와 높이 16m, 둘레 3.3m, 최대너비 6m로 조각(彫刻)한 것이다.

대좌의 앞부분은 쌍룡상(雙龍像), 양옆에는 사천왕상(四天王像)을 조각했다. 관음상은 대좌 위에 활짝 핀 연꽃 위에 서 있는데, 왼손으로 감로수병(甘露水瓶)을 받쳐 들고 오른손은 가슴께에서 들어 수인(手印)을 짓고 있으며, 해수관음상 앞에는 기도처인 관음전이 있다.

보 타 전  
[10]

◆ 보타전은 해수관음상과 더불어 낙산사가 관음신앙의 성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음도량임을 상징하는 전각으로서, 1991년 7월 짓기 시작해서 1993년 4월 10일에 완공했다.

규모는 앞면 5칸, 옆면 3칸이며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안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천수관음(千手觀音)·성관음(聖觀音)·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여

보타전  
[10]

의륜관음(如意輪觀音)·마두관음(馬頭觀音)·준제관음(准提觀音)·불공견색관음 등 7관음상과 32응신 상 천오백관음상이 봉안되어 있다.

앞면 중앙에 천수관음을 비롯해서 좌우로 6관음, 그리고 뒤쪽으로 천오백관음상이 있다. 천수관음은 입상이며, 나머지 6관음은 좌상이다. 낙산사 천수관음은 32관음신상으로도 불리는데, 그 뒤쪽으로는 목각 후불탱이 조성되었다. 보타전 안에는 그밖에 동종과 금고(金鼓)가 있다. 전각 외부벽화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 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것이다.

◆ 범일국사(梵日國師)

신라 헌덕왕 2년(810년)에 태어나 진성여왕 3년(889년)사망하였다. 속성은 김(金)씨이고 흥덕왕 때 당나라에 유학하다 847년에 귀국하고 851년에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 굴산사(掘山寺)를 세우고 수도하였는데 지금은 빈터만 남아있다.

굴산조사로 추앙받은 범일 스님은 젊은 시절에 당나라에 들어가 명주(明州)에 있는 개국사(開國寺)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왼쪽 귀가 잘린 한 스님이 말석에 앉아 있다가 스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저도 신라 사람입니다. 집은 명주 부근 익령현 덕기방에 있지요.

스님께서 훗날 본국으로 돌아가시거든 제 집을 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님은 의아스럽기도 했지만 이역만리에서 고향사람을 만난 반가움이 컸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단 승낙하였다. 유학을 마친 스님은 신승으로 유명해지면서 강릉 굴산사를 세웠다.

10여 년이 지난 858년의 일이었다. 2월 보름날이었는데 꿈에 전에 당나라 명주(明州) 땅 개국사(開國寺)에서 만났던 귀가 잘린 스님이 나타났다. 그 스님은 범일 스님의 처소 창문 밑에 와서 말했다. 전에 명주 개국사에서 스님과 언약을 하여 이미 승낙을 하셨는데 어찌 이렇게 실천이 늦습니까? 스님은 놀라 깨어났다.

그제야 10년 전 자신이 약속했던 일이 떠올라 기억을 더듬어보니 익령(翼嶺) 부근 덕기방(德耆坊)이 집이라는 것도 생각났다. 날이 밝자마자 사람들을 데리고 익령에 가서 덕기방이라는 곳을 찾았으나 그런 지명은 없고, 단 여인이 낙산 아랫마을에 사는데 그 이름이 덕기라고 했다. 스님은 그곳을 찾아가 보았다. 여인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으나 여인은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했다.

불교설화  
[11]

**불교설화**  
**[11]**

그렇지만 여인이 말하기를 자신의 여덟 살 난 아들이 늘 마을 남쪽에 있는 돌다리 근처에 나가 놀곤 했는데 며칠 전에는 같이 노는 아이 가운데 금빛 나는 아이가 있다고 말하더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스님은 놀랍고 기쁘기도 하여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가 놀던 다리 밑에 가보니, 물속에 돌로 만든 보살상 하나가 있는 것이 보였다. 꺼내어 보니 왼쪽 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영락없이 예전 중국에서 만났던 그 스님이었다.

스님은 단박에 이 보살이 정취보살인 것을 깨달았다. 이에 범일 스님이 절 지을 곳을 점쳐보니 낙산 위가 좋다고 하므로, 현안왕 2년(858년) 낙산사의 상방(上方)에 불전(佛殿) 3간을 짓고 돌부처를 봉안(奉安)하였다고 한다.



# 동해신묘

해설 이기용



## ● 동해신묘에 대한 문화재청의 기록

- 종 목 : 강원도기념물 73호
- 명 칭 : 양양동해신묘지(襄陽東海神廟址)
- 분 류 :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제사유적 / 제사터
- 소재지 :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39외 (면적 1,316㎡)
- 지정일 : 2000. 01. 22.
- 시 대 : 조선시대

조선시대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동해신묘는 나라에서 동해신에게 풍농풍어(豐農豐魚)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산천과 바다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였다.

세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사』를 통해 고려시대에 이미 나타나 조선 초기에 국가 제사 장소로 정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서쪽으로 대나무와 솔밭이 있고, 서쪽은 민가와 접해있다. 남쪽과 동쪽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높은 대지 위에 새로 지은 정전이 1동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철폐되었다가 1993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정전의 서북쪽에 정조 24년(1800년)에 강원관찰사 남공철이 글을 지은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가 있다.



● 제사의 기원

삼국시대 : 조상신과 하늘에 제사를 지냄

(삼국사기 기록들)

- 고구려 : 시조묘에 제사지냈다. 이후 왕들도 이와 같이 행하였다. 고구려는 귀신, 사직, 영성에 제사지내길 좋아한다, 10월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크게 모이니 명칭을 동맹이라 일컬었다.
- 백 제 : 온조왕 20년 2월에 단을 세우고 하늘과 땅에 제사지냈다. 이후 왕들도 이와 같이 행하였다.
- 신 라 : 2대 남해왕 3년에 비로소 시조의 사당을 세워 춘추동 제사하였으며 22대 지증왕때에는 혁거세 탄강의 땅인 내을에 신궁을 설치해 제향하였다. 제36대 해공왕때 이르러 처음으로 5묘의 제사를 정하였으며 제37대 선덕왕에 이르러 사직단을 세웠다.

● 동해신묘 제사의 기원

당의 힘을 빌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당의 제도를 받아 들었다. 통일신라의 동해묘는 경주의 동쪽인 흥해에, 북해묘는 삼척에 있었다.

(삼국사기, 증보문헌비고 기록)

「제지(祭志)」 명산 대천(名山大川)을 나누어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하였는데, (중략) 사해(四海)는 동은 아등변(海東阿等邊)이고, [퇴화군(退火郡) 지금의 흥해(興海)이다.] 남은 형변(兄邊)이며, [칠산군(漆山郡)에 있다. 지금의 동래(東萊)이다.] 서는 미릉변(未陵邊)이고, [히산군(屍山郡) 지금의 임피(臨陂)이다.] 북은 비례산(非禮山)이다. [실직군(悉直郡) 지금의 삼척(三陟)이다.](이하생략)

(고려사 기록)

생각건대 정치를 옳게 하는 데는 반드시 예(禮)에 기본을 두는 것이다. 여러 사전(祀典)을 상고한 후에야 오악(五嶽), 오진(五鎭), 사해(四海), 사독(四瀆)을 봉하는 일은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이것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칭호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 양양의 동해신묘

고려때 개성의 정동인 양양에 동해신묘가 있었다.

## 동해신묘

### (고려사 기록)

翼嶺縣

本高句麗翼嶺縣[一云 伊文縣] 新羅景德王改今名爲守城郡領縣

顯宗九年 置縣令 高宗八年 以能禦丹兵陞襄州防禦使

四十一年 降爲縣令四十四年 以降賊又降爲德寧監務

元宗元年 陞知襄州事別號襄山 有東海神祠

屬縣一。”

건립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사에 보면 사해(四海) 가운데 첫 번째로 동해신(東海神)의 신흡(神號)를 내렸다고 하고 있고, 현종 9년(1028년) 남해신을 사전에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어 사직단을 세운 성종 10년(991년)부터 남해신을 사전에 올린 1028년 사이에 건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고려사 기록)

숙종 원년(1096년) 5월에 날이 가물었다. 무신일에 건덕전에서 《금강경》을 외우는 도량을 열고 비를 빌었다. 3년 4월에 날이 가물었다. 기해일에 5해신(海神)에게 비를 빌었다. 4년 5월 을사일에 여러 신사에서 비를 빌었다.(이하 생략)

숙종 3년(1098년) 기해일에 5해신(海神)에 비를 빌었다.(이하 생략)『(高麗史)』의 기록에 의하면 동해신묘(東海神廟)는 강원도 양양 땅에 있으며, 사해(四海) 가운데 첫 번째로 동해신(東海神)의 신흡(神號)를 내렸다.

### (여지도서의 기록)

동해묘(東海廟)는 강원도 양양 땅에 모시고, 서해를 지키고 다스리는 서해단(西海壇)을 황해도 풍천에 모셨으며, 남해를 다스리고 지키는 남해신사(南海神祠)를 전라도 나주에 모셨다.

그리고 북쪽은 바다가 없어 해신을 모시는 대신 강의 신을 모셨으니 강신을 봉사한 사당으로는 북동편은 함경북도 경원에 두만강신사(豆滿江神祠)를, 북서편에는 편안북도 의주에 압록강사(鴨綠江祠)를 모셨다.

### (증보문헌비고)

(생략)현종 19년(1028년)에 남해신(南海神)을 사전(祀典)에 올렸는데, 그것은 정안현(定安縣)에서 다시 산호수(珊瑚樹)를 바쳤기 때문이었다.(생략)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따랐다.

**(대동지지의 기록)**

그 전고로 조선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8권, 14년(1414년)

삼가 《당서(唐書)》《예악지(禮樂志)》를 보니, 악(嶽)·진(鎭)·해(海)·독(瀆)은 중사(中祀)로 하였고, 산(山)·임(林)·천(川)·택(澤)은 소사(小祀)로 하였고,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송(宋)나라 제도에서도 또한 악(嶽)·진(鎭)·해(海)·독(瀆)은 중사(中祀)로 하였습니다. 본조(本朝)에서는 전조(前朝)의 제도를 이어받아 산천(山川)의 제사는 등제(等第)를 나누지 않았는데, 경내(境內)의 명산 대천(名山大川)과 여러 산천(山川)을 빌건대, 고제(古制)에 의하여 등제(等第)를 나누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악(嶽)·해(海)·독(瀆)은 중사(中祀)로 삼고, 여러 산천(山川)은 소사(小祀)로 삼았다.

고려사에 동해신묘는 양양 땅에 있다고 기록된 이래 세종, 중종, 중종, 인조 숙종, 영조, 정조 시에도 양양 땅에 있었음이 확임됨

**(세종실록 오례(五禮)편 기록)-1454년**

“大祀：社稷，宗廟

中祀：風雲雷雨【山川，城隍附。】嶽，海，瀆【智異山，全羅道南原南；三角山，漢城府中；松嶽山，開城府西；鼻白山，永吉道定平北。東海，江原道襄州東；南海，全羅道羅州南；西海，豐海道豐川西；熊津，忠清道燕岐；伽倻津，慶尙道梁山。已上南。漢江，漢城府中；德津，京畿臨津；平壤江，平安道平壤府；鴨綠江，平安道義州。已上西。豆滿江，咸吉道慶源。】，先農，先蠶，雩祀【句芒木正，祝融火正，后土土正，蓐收金正，玄冥水正，后稷。】，文宣王，朝鮮檀君，後朝鮮始祖箕子，高麗始祖”

(세종실록 지리지 양양 도호부편 기록) - 1454년

“襄陽：(중략) 東海神祠堂。在府東，春秋降香祝致祭，中祀。”

(세조실록 권38 기록) - 1466년

“命祭東海神”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편 기록) - 1530년

“海 在府東十三里 祀典祭東海神于此 載中祀” “東海神祀 在府東 春秋降香祝致祭”

(여지도서 양양부편 기록) - 1757년

“海 在府東十三里 祀典祭東海神于此 載中祀”；江陵鎭管所屬襄陽府，壇廟 “海 在府東十里海上 正殿六間 神門三間，奠祀廳二間，東西齋各二間，百川門一間，每歲首別祭 仲春仲秋常祭 香祝皆自京下來。”

(기언 권35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글) -1667년

“旌善稱孝弟鄉 溟州獺國 壽春貂國 襄陽海上有東海神祠”

(정조실록 권54 기록) - 1800년

## 동해신묘

“襄陽洛山津, 有東海神廟, 享禮在於國典,(이하 생략)

### ● 잘못된 강릉 이전 논란

인터넷에서 동해신묘 검색 ⇒ (지식백과)디지털강릉문화대전(강릉시)

### 동해신묘

#### [정의]

우리나라 동해안 · 강릉 정동의 동해신을 모신 곳.

#### [개설]

동해신묘의 창설연대는 자세하지 않으나 명나라 태조가 고려 공민왕(恭愍王) 19년(1370)에 고려에 사절을 보내서 국내산천에 제사를 행하고 임금이 목욕재계하여 친히 축문을 고하였다 한다. 조선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 명나라 법전에 따라 동해묘를 중건하였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사해(四海) 가운데 첫 번째로 동해신(東海神)의 신호(神號)를 내렸다는 기록이 들어 있다. 이러한 방증으로도 동해신묘의 창건시기를 이 시기로 상정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동해신묘의 건립 연대를 고려 공민왕 19년 즉 1370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 초기 사전(祀典)이 정비되면서 동해묘는 중사(中祀)로 제정되었다. 태종 14년(1414) 8월 예조에서는 동해는 양양, 남해는 나주, 서해는 풍천으로 정하고 치제를 관에서 주관하였다. 동해신묘의 본래 위치는 『양주지』에 의하면 강릉 안인포에 있었으며 성종 21년(1490)에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이 양양읍 조산리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매년 2월과 8월에 제사를 지내는데 관우의 신위를 봉안하고 분향을 했으며, 일체의 예법을 중국 · 명나라 광덕왕의 예법에 따랐다고 한다. 애초에 정동촌에 있었던 당시 관우신위를 봉안한 것인지, 옮겨지면서 그와 같이 된 것인지 또는 본래 정동촌에서는 용왕신위였는데 관우신위로 바뀐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 [건립경위]

동해신묘의 건립 연대를 고려 공민왕 19년 즉 1370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허균이 쓴 「중수 동해용왕비문」에 의하면 경위가 밝혀져 있는데 즉 “강릉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여 비석을 세워 후대 사람들에게 보이 고자 내게 글을 청하므로 나는, 우리나라 사해 용왕을 위해 사당을 세우되 지리의 중앙이 되는 곳을 가려 설치하였는데 강릉은 동해의 한 가운데이고, 정동(正東)이며 더욱이 고을 한 가운데가 상개(爽塏)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정동이라 이름 붙였으며, 신라 때부터 이곳에서 용왕께 제사지냈다.”고 한 내용으로 미루어 동해 정동에서 제사를 올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치]

동해신묘는 본래 정동진에 있었으나 현재는 양양 조산리에 이전되어 있다.

[형태]

고려 공민왕 19년(1370) 강릉부 정동촌에 세워진 동해신묘는 조선조 성종 21년(1490)에서 중종 31년(1536) 무렵에는 이미 양양으로 옮겨졌다. 또한 동해신묘의 신위도 허균 당시에는 동해 용왕으로 봉안되었다. 그것은 정동진에서 신라시대부터 동해 용왕을 신으로 모신 제의가 행해졌으므로 이곳에 동해신묘를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조 영조[1724~1776] 연간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양양부」의 “동해묘는 정전(正殿) 6칸, 신문(神門) 3칸, 전사청(奠祀廳) 2칸, 동서재(東西齋) 각 2칸, 백천문(百川門) 1칸으로 그 규모를 기록하고 매년 정초 세수(歲首)에 별제(別祭)를 거행하고, 중춘과 중추에는 상제(常祭)를 올린다. 제사에 쓰일 향축은 나라에서 보내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동진의 동해신묘도 이러한 규모로 유추되나 전하는 자료가 없다.

[금석문]

허균이 1605년에 쓴 「중수동해용왕비문」은 글만 남고 비석은 없어졌고 남공철(南公轍)에 의한 「동해신묘 중수기사금명(東海神廟重修記事及銘)」(1800년)만이 양양 동해신묘에 있다.

[현황]

『양주지』에 의하면 동해신묘가 본래는 강릉에 있었는데 성종 21년 경술에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을 강릉으로부터 대포성(大浦城)에 이전할 때에 양양 조산리로 같이 이관하였다는 설이 전한다. 현재 강릉 정동진·동해신묘가 있던 곳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양양 조산리 동해신묘에서는 매년 정초에 제사를 올리고 있다.

[의의와 평가]

동해신묘는 동해를 지키는 신에게 국가에서 중사의 격으로 제사를 올린 것으로 우리나라의 정동진 강릉 정동진에서 그 제사를 지냈다. 정동진이 국가적인 치제의 중심이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장정룡, 『강원도민속연구(江原道民俗研究)』(국학자료원, 2002)

이는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문집 성소부부고에 있는 소설같은 얘기가 잘못 해석된 것임



## 동해신묘

### ● 동해신묘 이전관련기록

세조 2년 집현전 직제학인 양성지가 왕에게 동해신묘를 개성의 정동인 양양에서 한양의 정동인 강릉으로 옮겨야 한다고 상소하였으나 옮겼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음.

만약 옮겼다면 서해와 남해도 함께 옮겼어야 함에도 옮겨지지 않았으며 방위가 맞지 않은 양양으로 다시 옮겼다는 말도 맞지 않음.

(세조실록 3권의 기록) - 1456년

集賢殿直提學梁誠之上疏曰: (중략)

一, 岳, 鎮, 海, 瀆. 蓋一代之興, 必有一代之制, 本朝岳鎮海瀆名山大川之祀, 皆倣三國及前朝之舊而爲之, 多有可議者焉. (중략) 且東, 南, 西海神祠, 皆自開城而定之, 亦乖方位, 乞命禮官詳加考定, (중략) 又移祭東海神於江陵, 西海於仁川, 南海於順天, 北海甲山, (중략) 以新一代祀典. 是則山川之載祀典者, 古今皆三十四, 而仍舊者十七, 移祭者四, 新陞者十三, 可永革者亦十三矣. (이하 생략) 上嘉納.”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양성지(梁誠之)가 상소(上疏)하기를,

(중략) 악진해독입니다. (중략) 또 동해·남해·서해의 신사는 모두 개성을 기준하여 정하였기 때문에 또한 방위(方位)가 어긋납니다. 빌건대 예관에게 명하여 고정을 상세히 더하게 하고, (중략) 또 동해신을 강릉에, 서해는 인천에, 남해는 순천에, 북해는 갑산에 이제하고, (중략) 일대의 사전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사전에 실린 산천은 고금으로 모두 34인데, 옛 것을 따른 것이 17, 이제(移祭)한 것이 4, 새로 오른 것이 13, 영구히 고칠 만한 것도 또한 13입니다. (생략) 하니 임금의 기꺼이 들었다.



### ● 허균의 정소부부고 내용

만력 갑진년(1604, 선조37) 7월 양양부(襄陽府) 동산(洞山)에 사는 어부 지익복(池益福)이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중, 바람이 그 배를 몰고 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였다. 이렇게 일주야(一晝夜)를 달려 동쪽으로 한 섬에 닿았는데 푸른 옷 입은 사람이 인도하여 왕궁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왕궁에 나아가니 궁 뜰에는 창을 든 병사의 경계가 매우 삼엄하였다. 왕이라는 자가 보라색 옷을 입고 궁전에 앉아서 말하기를,

“내가 강릉(江陵)에서 제사를 받아먹은 지 수천 년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강릉부 사람에게 쫓겨 이곳에 옮겨와 보니 좋은 곳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상제께 호소한 끝에 이제 비로소 허락을 받았으므로 너의 힘을 빌어 관원에게 뜻을 전하고 옛 땅 내 집에 돌아가고자 하니, 너는 목민관(牧民官)에게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군사를 몰아치게 할 것이니, 백성들이 나의 해를 입게 될 것이다.” 하고는, 바람을 몰아 돌려보내 주었는데 하루가 못되어 동해 가에 돌아왔다. 어부는 매우 이상히 여겼으나, 감히 관가에 나아가 스스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향임(鄕任) 이석림(李碩霖)에게 말하여 관에 보고하게 하였다.

부사(府使) 홍여성(洪汝成)은 이 말을 듣고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여 전고(典故)를 들어 상고해보니, 가정(嘉靖 명 세종 연호) 병신년(1536, 중종31)에 사당이 강릉부 정동촌(正東村)에서 이곳으로 옮겨졌음을 알았다. 그러나 감히 귀신의 말을 인용하지 못하고 폐해가 많다는 이유로 옛 문서를 돌려주기를 방백(方伯)에게 청하였으나 따라주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해 을사년(1605, 선조38) 7월 관동(關東) 지방에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안변(安邊)·통천(通川)에서부터 남쪽으로 안동(安東)까지 수십 군이 혹독한 수해를 입어 백성과 가축의 죽은 수효는 수만에 이르렀는데, 강릉이 특히나 심하였다. 부사 홍공(洪公)은 더욱 이상히 생각하여 지방 관리와 백성을 불러 의논하기를,

“귀신이, 사당을 옮기지 않으면 해를 내린다고 우리에게 경고한 지 1년 만에 수해가 이 지경이니, 이는 과연 그 징험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으나, 그 사당을 보니 퇴락하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지 않고 있다. 어찌 우리가 서로 이를 새롭게 단장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의 할 일을 수행하고, 정성으로 받든다면, 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하니, 모두 ‘그렇다’ 하고 드디어 녹봉을 떼내어 공장이와 인부를 모아 향임에게 이를 감독케 하여 기와를 갈고, 벽을 바르고, 담장을 둘러 쌓고, 신문(神門)을 만들고, 마당을 고르는 일을 두어 달 만에 완성하였다. 그리고 나서 공이 몸소 제사를 지내니 이때부터 양양이 바람이 없고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 강릉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여 비석을 세워 후대 사람들에게 보이고저 내게 글을 청하기에 나는,

“우리나라는 사해 용왕을 위해 사당을 세우되 지리의 중앙되는 곳을 가려 설치하였는데 강릉은 동해의 한 가운데이고, 정동이며, 더욱이 고을 한 가운데가 상개(爽塏 앞이 탁 트여 밝은 땅)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정동이라 이름하고 신라 때부터 이곳에서 용왕께 제사지냈다. 그런데 공희왕(恭僖王 중종) 때에 강릉부 사람으로 장원 급제한 심언경(沈彦慶)·심언광(沈彦光) 형제가 용왕의 사당에 비용이 든다 하여 방백에게 말하여 상계 글을 올리고, 까닭없이 옮겨버렸다. 요즘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동해 용왕의 사당은 양양에 있는데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사당 자리는 낮고 더러워 귀신의 영을 평안히 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고 하니, 귀신의 노여움도 당연하다 하겠다. 언광 형제의 몰락도 이것 때문일 것이며, 을사년 바람과 비의 변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다. 신이 사람에게 밝게 고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미혹하기 때문이다. 부사의 사당 개수(改修)는 예에 들어맞는 처사니, 어찌 그를 덮어 둘 것인가.” 하고, 갖추어 기록하고 이에 송(頌)을 드린다.

바다는 천지 간에 가장 큰 것이운데 그 누가 왕이 되어 바람 불고 비 오게 하는가. 강하고 강한 용왕신이라 하늘의 용은 이것 같음이 없네 북 내리고 화 내리매 신령스런 응보 매우 진실코야 그 누가 그곳 낮은 데에 내 집 옮기게 하였는가 적은 비용 아끼니 신의 노여움 마땅하네 귀신의 계신 곳은 조개집 구슬 궁궐인데 세상의 오두막집 뭐라 연연하여 섭섭해 하겠는가 아니로다. 정성은 신의 흠향하시는 것이니 불경한 자 방자하고 불성하면 게으른 법 땅을 쓸고 물 떠 놓아도 정성껏 공경하면 강림하지만 좋은 자리 좋은 음식 차려 놓아도 방자하면 흠향하지 않는다네.

## 동해신묘

옮겨 놓고 더럽힘은 게으르고 방자한 일 어찌 제수의 많고 적음에 기뻐하고 탄식할까 알려줘도 안 따르니  
 홍수 피해 마땅하네 온화한 원님이 공경으로 신 받들어 새로 사당 단장하고 제수 차려 제 올리니 신이 돌아보  
 고 기뻐하여 바람같이 와 흠향하네 공경을 다하여 정성껏 받든다면 어찌하여 강릉(江陵)·양양(襄陽) 가리겠  
 는가 원컨대 이곳에 길이 진정하시어 해마다 풍년들게 도와주시고 백성들 상하지 않으며 전란이 미치지 못하  
 게 하여 길이길이 만년토록 우리 고을 도와주소서.

### ● 동해신묘 훼손과 복원

#### 훼손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해

통감부 훈령으로 순종 2년(1908년) 12월 26일

군수 최종낙(崔鍾洛)이 동해신묘를 훼손(毀撤)

구전에 의하면 최종낙 군수는 동해신묘 훼손(毀撤) 후 3일 만에 급사하였다고 함

#### 복원

1993년 정전 1동(6칸) 건립.

정전의 북·서쪽에 두 토막이 있던 동해신묘중수기사비(東海神廟重修記事碑)를 다시 세워 놓음.

2000. 1. 22. 동해신묘지(東海神廟址)와 남공철의 중수기사비는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73호로 지정

#### 복원의 문제점(위치 및 방향)

세종실록이나 증보문헌비고의 기록에 보면 악해독의 신은 북쪽에서 남향으로 앉아야한다(嶽海瀆神座在北南向)고 기록되어 있어 남쪽을 향하여 복원됨

그러나 옛지도, 발굴도면, 구 지적도, 문헌기록 등을 볼때 세밀한 발굴 조사가 필요함

#### 〈옛 지도〉



〈1872년 지방도-양양읍지도〉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 1745-1765)〉



〈발굴도면〉



〈지적도〉



〈항공사진〉

〈관련 기록들〉

삼국유사

문무대왕을 동해 대왕암에 상사한 후, 해룡(海龍)이 된 문무대왕을 위해 동해변에 감은사(感恩寺)를 지었는데 아들 신문왕이 용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금당계하(金堂階下)에 동향한 한 구멍을 냈다

## 동해신묘

『연재선생문집』에 보면  
“동해신묘는 좌우 송림속에 있다.”

『관동읍지』와 『여지도서』에 보면  
“동해묘는 양양부 동쪽 10리 해상에 있다.”

『기연』35권 미수 허목의 글  
“양양에는 해상에 동해신사가 있다

### 결 론

- 동해신묘는 중사로서 고려 6대 성종 10년(991년)에서 고려 8대 현종 19년(1028년) 사이에 양양에 건립되었다.
- 왕이 내린 향과 축으로 매년 새해 별제와 2월, 8월 상제를 행했던 곳으로 정전 6칸, 신문 3칸, 정사청 2칸, 동·서재 각 2칸이 있었다.
- 고려때 양양에 건립된 이래 강릉으로 이전하거나 강릉에서 이전된 적이 없었다.
- 방위문제는 일부 이견이 있으므로 정전을 분해한 후 추가 발굴조사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굴조사와 역사성을 정립하여 국가사적으로 승격시킨 후 복원하여 역사과 관광자원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 동명서원

해설 이기용

양렬공(襄烈公) 조인벽(趙仁璧 : 1328~1393년)을 주향으로 삼고 있는 서원으로 후일 넷째아들인 조사가 함께 배향되었다.

후손인 조위한과 노경복, 최정립, 이현일 등 향인이 힘을 합쳐 인조 6년(1628년) 만들어진 서원이다.

조인벽이 사망한 후 200여년이 지난 인조 6년(1628년) 양양도호부사로 부임한 조위한(趙緯韓)이 쓴 동명서원 창건기를 보면 “열읍(列邑)에서도 모두 서원을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지어 많은 선비들이 수업하는 장소로 삼고 있는데 유독 이 고을만 서원이 없으므로 비분탄식하여 재물과 목공을 모아 백록동서원의 옛 제도를 본받기를 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 서원에서 공부한 선비들이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가게 되면 영(嶺) 밖의 궁핍한 이 시골이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아끼는 고장이 될 것이라 기원”하고 있다.

대포영에 있던 만호의 관사를 활용하여 동명서원이라는 현판을 걸었는데 재방(齋房)과 강당(講堂)을 갖추고 있다고 적혀있다.

## 대포영

부 동북방 10여리 조산리에 있다. 조선조 성종 21년 경술 강릉 안인포로부터 이영하여 수군 만호를 두었다. 중종 14년 경진에 축성 주위가 1,469척, 높이가 12척이었다. 인조 4년 병인에 방어위치가 못된다하여 폐하였다.

서원 운영의 재원은 양양부사 조위한이 소금가마 한자리와 어선 한 척, 그리고 둔전 7석지기를 마련해 주어 춘추향사의 제수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쓸 양식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1680년 병란으로 동명서원이 소실되자 정조 10년(1786년) 제자와 후손들이 경상북도 와란(臥蘭)에 이 건하였으나 고종 5년(1686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폐철되었다.

고종 36년(1899년) 강원도관찰사 조종필이 동명서원을 창건했던 자리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워 조인벽의 절개를 기리고 후일을 기약하였다.

1982년 양양유림과 한양조씨의 후손들에 의해 충현사(忠賢祠)와 강당을 복원하고 1982년 5월 2일 조인벽 선생과 조사선생의 봉안식을 거행하였으며 2005년 산불로 소실되었으나 2010년 다시 복원되었다.

서원의 입구에 홍살문이 세워져있고, 그 왼쪽엔 양렬공 우계조선생신도비가 서있으며 오른쪽엔 강원도관찰사 조종필이 쓴 동명서원유허비와 1982년 건립한 동명서원증건기념비가 서있다.

숫을대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 강당이 있고, 그 위에 충현사가 있다.

## 동명서원

### ● 조인벽(趙仁璧)

관향은 한양이며 고려 검교밀직부사 용성군(檢校密直副使 龍城君) 돈(墩)의 아들로서 공민왕조(恭愍王朝)에 부친을 따라 동북면(東北面) 병마사(兵馬使) 유인우군(柳仁雨軍)에 속하여 쌍성(雙城)회복의 공이 있었고 조선 태조대왕의 매부이다.

공민왕조 삼중대광용원군(三重大匡龍源君)에 이르렀고, 아들 온(溫)과 연(涓)은 조선조(朝鮮朝)창업의 공을 세웠다. 용원부원군(龍源府院君)은 여조훈신(麗朝勳臣)이라 고려의 운수가 다하였으니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 하여 양주(襄州) 동쪽 10여리에 와서 은퇴하던 중 삼징칠벽(三徵七辟) : 벼슬을 주려고 자주 조정에서나 지방관아에서 부름을 하나 가지를 았았다. 그 동리의 이름은 시상(柴桑) : 지금의 조산]이고 그 동쪽 대포성(大浦城)의 동쪽 기슭에 해월정(海月亭)을 짓고 소일했다. 사후에 시호를 양렬(襄烈)이라 하였다. 그 군은 의지와 절개는 일조일석에 모든 고을에 전해지고 양양유림에서는 예를 후히 갖추었다. 왕은 이 사실을 듣고 동명서원(東溟書院)을 건립하여 충절을 표창하고 군민은 절의를 추모하여 춘추에 제향을 올린다.

대대로 용진(龍津 : 지금의 함경남도 문천군 덕원)에 살았다.

1356년(공민왕 5) 쌍성 회복시 아버지와 함께 동북면병마사 유인우(柳仁雨)를 도와, 그 공으로 호군이 되었다. 1363년에는 김용(金鏞)의 토벌에 공을 세우고, 수복경성(收復京城) 2등공신으로 책봉되었다.

1372년에는 가주(家州)에서 난동자들이 지방 관리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자 판사(判事)로서 이들을 토벌하였다. 그 해에 만호가 되어 함주·북청에서 북병으로 왜구를 대파해 봉익대부(奉翊大夫)에 올랐다.

1375년(우왕 1) 밀직부사로서 충혜왕의 아들을 자칭한 중 석기(釋器)를 잡는 데 공을 세우고, 다시 동북면 원수로 출정해 왜구를 토벌하였다.

1377년에는 신주·용진·문화 지방에 침입한 왜구를 공격했으나 적세가 완강해 전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이듬해에 판밀직(判密直)으로서 화포를 사용해 수군을 훈련시켰으며, 1379년에는 강릉도원수(江陵道元帥), 이듬해에는 강릉도상원수(江陵道元帥)가 되어 왜구를 격퇴하는 데 공훈을 세웠다.

1383년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로서 동북면도체찰사가 되고, 1385년에는 사도도지휘사(四道都指揮使), 그리고 곧이어 교주도원수(交州道元帥)가 되었다. 1388년 위화도회군에 가담해 삼사좌사(三司左使)가 된 뒤 수차 유폐된 우왕을 찾아 의대(衣帶)와 향연을 베푸는 직임을 맡기도 하였다.

1389년(공양왕 1) 판의덕부사(判懿德府事)가 되었으며, 이듬해 회군의 공으로 2등공신에 책록되었다. 그는 환조(桓祖)의 딸인 정화공주(貞和公主)와 혼인했던 까닭에 조선왕조 개국 후 용원부원군(龍源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양렬(襄烈)이다.

조인벽 선생의 시 한수가 낙산사 의상대에 있던 것을 동명서원으로 옮기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 내용 또한 선생의 마음과 생활을 잘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海月亭遺詩

공훈과 명예는 나비 날개와 같이 얇기만 하고 용뇌 같이 여기는 부귀는 가볍기만 하더라

모든 일은 싸늘한 가을 밤 꿈에 놀다 깨는 것이니 다 잊고 동창에 비칠 바다의 달이나 쳐다보세  
 서산에 걸친 달은 히끄무레하고 공중에 구름이 길게 뻗었네  
 산사람이 범도 두려울 것 없어 밤새도록 문도 닫지 않네

蝶翅勳名簿      龍惱富貴輕  
 萬事驚秋夢      東窓海月明  
 淡淡西山月      靄靄空中雲  
 山人不畏虎      永野不庵門

이렇게 탈속하고 대자연과 함께하는 시에는 한폭의 그림과 같고 음악과 같다고 하였다.

선생의 집터 앞을 흐르는 물을 魯連灘(노연탄)이라 하였으니 물이 흘러 바다로 가면 중국의 산둥 옛날 공자가 학문을 일으킨 노나라에 통한다는 뜻을 붙인 것이며 흥학(興學)의 결심을 표시한 것이며 바닷가의 바위를 도취석(陶醉石)이라 하였으니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귀거래사를 읊으며 술 마시던 심정이 상통한다는 뜻을 붙인 것이다. 현재의 조산리를 자상촌(紫桑村)이라 한 것은 도연명이 살던 중국의 산서성 자상산을 뜻한 것으로 모든 물욕과 명예를 버리고 후생교육에 힘쓰고 절개와 지조를 지키면서 낙천으로 생을 마쳤다. 조인벽은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켜 고려말 정몽주, 이색, 길재 등 3은과 함께 숭앙되고 있는 선비의 귀감이다.

이태조가 고려말 충신에게도 충절을 표창할 때 선생은 사망 후였는데 추성양절익위보이우공신보국승록대부문하좌정승판도평의사사영경연사한산백(推誠亮節翊衛輔理佑功臣輔國崇祿大夫門下左政丞判都評議司事領經筵事漢山伯)이라 하고 시호를 양열(陽烈)이라 하였다. 선생은 충의, 도덕의 모범이 됨으로 서원에 모시고 관리와 유림으로 하여금 춘추로 제사를 모시도록 하였는데 아마 선생의 뜻이라면 아마도 사양하고 받지 않았을 것이다.

● 조사(趙師)

호는 가천제(嘉川齋), 조인벽의 넷째 아들, 태조의 친생질의 관례에 따라 통정대부 중추원사에 제수되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양양으로 내려와 양친과 수학에 전념하였다. 일찍이 정몽주에게 수학하였고 운곡 원천석과 교분이 두터웠다.

임종할 때 자손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정몽주선생 무덤근처에 묻어서 지하에서라도 따라 노닐게 해 달라”고 하여 자손들이 그대로 따랐다 한다.

● 교육적으로 본받을 점

젊어서부터 나라에 충성을 다하여 김용의 난을 평정하고 군사를 훈련하여 왜적과 홍건적을 물리치는데 힘

## 동명서원

씨 유비무환의 가르침을 주었으며, 또한 바쁜 국토방위의 임무중에도 지역 백성을 배려하고 풍속과 문물을 일깨워 수 백년 후에도 덕만이 전해졌으며 고려가 망하자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정으로 모든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우리 고장의 후생들을 가르치고 풍속을 순화시키면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처남이자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부름에도 나가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면서 여생을 마쳤다. 이는 후세 사람들이 나라에 충성을 다하며 옳지 않은 일이면 따르지 않고 물욕을 버리고 자연을 벗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귀감이 되고 있다.

### ● 관련 행사

유적지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동명서원

행 사 : 매년 춘계(음력 3월중 丁日)과 가을 두 차례 양양의 유림들과 한양조씨들이 모여 제향을 올리고 조인벽 선생의 뜻을 기리며 얼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으며 매월 삭망일(1일, 15일)분향하고 있다.

### ● 조선시대의 교육기관

#### >>> 성균관

한국 최고의 학부기관으로서 '성균'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고려 충렬왕 때인 1289년이다. 그때까지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國子監)의 명칭을 '성균'이라는 말로 바꾸면서부터이다. 1308년(충선왕 1년)에 성균관으로 개칭되었다.

조선 건국 이후 성균관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존속되어, 1395년부터 새로운 도읍인 한양의 숭교방(崇教坊) 지역에 대성전(大成殿)과 동무(東務廡)·서무(西廡)·명륜당(明倫堂)·동재(東齋)·서재(西齋)·양현고(養賢庫) 및 도서관인 존경각(尊敬閣) 등의 건물이 완성되면서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과거제도와 긴밀히 연결되어서, 초시인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유생(儒生)에게 우선적으로 성균관에의 입학 기회를 주었다. 성균관 유생의 정원은 개국 초에는 150명이었으나, 1429년(세종 11)부터 200명으로 정착되었다.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유생을 상재생(上齋生)이라 하였으며, 소정의 선발 시험인 승보(升補)나 음서(蔭敍)에 의해 입학한 유생들을 하재생(下齋生)이라 하였다. 성균관 유생은 기숙사격인 동재와 서재에서 생활하였으며, 출석 점수 원점(圓點)을 300점 이상 취득해야만이 대과 초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유생의 생활은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자치적인 활동기구로 재회(齋會)가 있었다.

유생은 기숙사생활을 하는 동안 국가로부터 학전(學田)과 외거노비(外居奴婢) 등을 제공받았으며, 교육 경비로 쓰이는 전곡(錢穀)의 출납은 양현고에서 담당하였다. 유생은 또한 당대의 학문·정치현실에도 매우 민감하여 문묘종사(文廟從祀)나 정부의 불교숭상 움직임에 대해 집단 상소를 올렸으며,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권당(捲堂:수업거부) 또는 공관(空館)이라는 실력행사를 하기도 하였다. 조선 전기 학문의 전당으로서 관리의 모집단으로 주요한 기능을 한 성균관은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교육재정이 궁핍화하고 과거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면서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 >>> 향교

성균관(成均館)의 하급 관학(官學)으로서 문묘(文廟)·명륜당(明倫堂) 및 중국·조선의 선철(先哲)·선현(先賢)을 제사하는 동무(東廡)·서무와 동재(東齋)·서재가 있어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서민들이 기숙하였다. 향교는 각 지방관청의 관할하에 두어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에는 각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郡)에는 50명, 현(縣)에는 30명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하고, 종6품의 교수와 정9품의 훈도(訓導)를 두도록 《경국대전》에 규정하였다.

향교에는 정부에서 5~7결(結)의 학전(學田)을 지급하여 그 수세(收稅)로써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고, 향교의 흥함과 쇠함에 따라 수령(守令)의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수령은 매월 교육현황을 관찰사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향교는 임진·병자의 양란과 서원(書院)의 발흥으로 부진하여 효종 때에는 지방 유생으로서 향교의 향교안(鄕校案)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자는 과거의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 등의 부흥책을 쓰기도 하였다. 1894년(고종 31) 이후 과거제도가 폐지되면서 향교는 이름만 남아 문묘를 향사(享祀)할 따름이어서 1900년에는 향교재산관리규정을 정하여 그 재산을 부윤·군수 등이 관장토록 하였다. 1918년 조사된 바로는 당시 향교의 총수는 335, 소관토지는 48만 평이었으며, 그 재산은 문묘의 유지와 사회교화사업의 시설에 충당하였다.

### >>> 서원

서원의 명칭은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 궁중에 있던 서적(書籍)의 편수처(編修處)이던 여정전서원(麗正殿書院)·집현전서원(集賢殿書院)에서 유래한 것인데, 송나라 때 지방의 사숙(私塾)에 조정(朝廷)에서 서원이라는 이름을 준 데서 학교의 명칭이 되어 수양(雋陽)·석고(石鼓)·악록(嶽麓)·백록동(白鹿洞) 등의 4대서원이 생겼으며, 특히 주자(朱子)가 강론(講論)을 하던 백록동서원은 유명하였다.

이후 서원은 선현(先賢)과 향현(鄕賢)을 제향(祭享)하는 사우(祠宇)와 청소년을 교육하는 서재(書齋)를 아울러 갖추게 되었는데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초기까지 서재(書齋)·서당(書堂)·정사(精舍)·선현사(先賢祠)·향현사(鄕賢祠) 등과 문익점(文益漸)을 제사하는 도천서원(道川書院)이 1401년(태종 1) 단성(丹城)에, 김굉필(金宏弼)을 제사하는 천곡서원(川谷書院)이 1528년(중종 23) 성주(星州)에, 김구(金丘)를 제사하는 도동서원(道洞書院)이 1534년(중종 29) 부안(扶安)에 각각 세워졌으나 모두 사(祠)와 재(齋)의 기능을 겸비한 서원은 없었는데, 1542년(중종 37) 경상도 풍기군수(豊基郡守) 주세붕(周世鵬)이 관내 순흥(順興) 백운동(白雲洞)에 고려 유교(儒敎)의 중흥자(中興者) 안향(安珦)의 구가(舊家)가 있음을 알고 거기에 사우(祠宇)를 세워 제사를 지내고 경적(經籍)을 구입하여 유생들을 모아 가르치니 이것이 사와 재를 겸비한 최초의 서원으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다.

그 뒤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풍기군수로 와서 이를 보고 중국 백록동 고사(古事)처럼 조정에서 사액(賜



## 동명서원

額)과 전토(田土)를 주도록 건의함에 따라 명종은 1550년(명종 5) 이를 권장하는 뜻에서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고 친필로 쓴 액(額:간판)과 서적을 하사하고 학전(學田)·노비(奴婢)를 급부(給付)하면서 이들 토지와 노비에 대한 면세(免稅)·면역(免役)의 특권을 내려 이것이 사액서원(賜額書院)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서원의 설치는 전국에 미쳐 명종 이전에 설립된 것이 29개, 선조 때는 124개에 이르렀고, 당쟁이 극심했던 숙종 때 설치한 것만 300여 개소에 이르러 1도에 80~90개의 서원이 세워졌으며, 국가 공인(公認)의 절차인 사액(賜額)의 청원에 따라 사액을 내린 서원도 늘어나 숙종 때만 해도 130여 개소에 이르렀다.

초기의 서원은 인재를 키우고 선현·향현을 제사지내며 유교적 향촌 질서를 유지, 시정(時政)을 비판하는 사림(士林)의 공론(公論)을 형성하는 구실을 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였으나 증설되어감에 따라 혈연(血緣)·지연(地緣)관계나 학벌(學閥)·사제(師弟)·당파(黨派) 관계 등과 연결되어 지방 양반층의 이익집단화(利益集團化)하는 경향을 띠게 되고 사액서원의 경우 부속된 토지는 면세되고, 노비는 면역되기 때문에 양민의 투탁(投託)을 유인하여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 때문에 서원은 양민이 원노(院奴)가 되어 군역(軍役)을 기피하는 곳이 되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군정(軍丁)의 부족을 초래하였고 불량유생의 협잡소굴이 되는가 하면 서원세력을 배경으로 수령(守令)을 좌우하는 등 작폐도 많았다. 또한 면세의 특권을 남용한 서원전(書院田)의 증가로 국고 수입을 감퇴시켰으며, 유생은 관학(官學)인 향교(鄕校)를 외면, 서원에 들어가 봉당(朋黨)에 가담하여 당쟁에 빠져 향교의 쇠퇴를 가속시켰다.

서원의 폐단에 대한 논란은 인조(仁祖) 이후 꾸준히 있었으나 특권 계급의 복잡한 이해 관계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1657년(효종 8) 서필원(徐必遠)은 서원의 폐단을 논하다가 파직되기도 하였다. 효종·숙종 때는 사액(賜額)에 대한 통제를 가하고 누설자(累設者)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었으나 잦은 정권 교체로 오히려 증설되었다. 1738년(영조 14) 안동 김상헌(金尙憲)의 원향(院享)을 철폐한 것을 시발로 대대적인 서원 정비에 들어가 200여 개소를 철폐하였으나 그래도 700여 개소나 남아 있었으며 이 중 송시열(宋時烈)의 원향이 36개소나 되어 가장 많았고, 유명한 것으로는 도산서원(陶山書院)·송악서원(松嶽書院)·화양서원(華陽書院)·만동묘(萬東廟) 등이 있었다. 1864년(고종 1)에 집권한 대원군(大院君)은 서원에 대한 일체의 특권을 철폐하여, 서원의 설치를 엄금하고 그 이듬해 5월에는 대표적인 서원인 만동묘와 화양서원을 폐쇄한 이후 적극적으로 서원의 정비를 단행하여, 사표(師表)가 될 만한 47개소의 서원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였다

### >>> 서당

학당(學堂)·사숙(私塾)·학방(學房) 등이라고도 한다. 서당에 관한 기록은 한국 사기(史記)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삼국시대 고구려에 경당(肩堂)이라는 부락단위의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것이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 초기부터 각처에서 성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 서당의 기록은 1124년(인종 2)에 왔던 송나라 사신의 서장관(書狀官) 서경(徐兢)이 저술한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마을 거리에는 경관(經館)과 서두(書杜)가 두 개, 세 개씩 서로 바라보고 있으며 민간의 미혼자제(未婚子弟)가 무리를 이루어 선생에게 경서를 배우

고, 좀 성장하면 유(類)대로 벼를 택하여 사관(寺觀)으로 가서 강습(講習)하고 아래로 졸오(卒伍)·동치(童稚)도 역시 향선생(鄕先生)에게 배운다”는 기록이 있어 당시에 서당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려의 서당은 그대로 조선시대에 계승되어 더욱 발전된 민중교육기관으로 신교육이 실시될 때까지 존속해온 가장 보편화된 교육기관이었다.

이 서당은 완전히 사적(私的)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자산이나 인가(認可)를 요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흥폐가 자유자재였으며 뜻있는 인사(人士)는 누구나 설치할 수 있었다.

서당이라 불리는 사숙이 성립되는 데는 사족(士族) 자제들을 자기 집에서 가르치는 경우, 가세가 풍족한 집 안에서 독선생(獨先生)을 앉혀놓고 약간명의 이웃 자제들을 무료로 동석시켜 수업하는 경우, 훈장(訓長) 자신이 교육취미나 소일(消日)을 위하여, 또는 이웃이나 친구의 요청으로 학동을 받아 수업하는 경우, 향중(鄕中)의 몇몇 유지 또는 한 마을 전체가 조합하여 훈장을 초빙하여 자제를 교육시키는 경우, 그리고 훈장 자신이 생계를 위하여 자기가 직접 설립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입학하는 날 훈장에게 나아갈 때는 흔히 술·닭 등의 예물을 갖추는 것이 하나의 예의였다. 학동이 맨 처음 대하는 책은 《천자문》이나 《유합(類合)》이다. 이 책을 통하여 단자(單字)에 대한 음훈의 의식을 깨우치고, 이 단자를 붙여 음독(音讀)하는 법을 배운 다음 《계몽편(啓蒙編)》이나 《동몽선습(童蒙先習)》 또는 《격몽요결(擊蒙要訣)》 《명심보감(明心寶鑑)》 등을 통하여 초보적인 구두와 문장의 뜻을 해독하는 훈련을 쌓는 한편 책 속의 교훈적인 내용을 터득하게 된다. 다음은 《십팔사략(十八史略)》 《통감(通鑑)》 《소학(小學)》 등을 배워 문리(文理)가 트이고 견식(見識)이 열리면 사서오경(四書五經)을 배우게 된다. 옛날 선비들은 이 단계를 거쳐 향교(鄕校) 또는 사학(四學), 이어서 성균관으로 진학하였다. 서당은 근대식 학제가 시행된 후에도 보통교육의 보조기관으로 유지되다가 쇠퇴하였으나 지금도 산간 벽지에서 서당을 볼 수 있다.



# 진전사(삼층석탑, 부도)

해설 이철수

## 양양문화의 이해

- 주 제 : 진전사. 삼층석탑. 부도.
- 목 표 : 통일 신라시대의 선종의 전래와 석탑 양식과 부도 알기
- 장 소 :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100-5번지.
- 문화재 : 강원도 기념물 52호, 국보 제 122호, 보물 제 39호.

### 1. 陣田寺

우리나라 선종(조계종)의 종조인 도의선사가 신라 헌덕왕 13년(821년)에 창건한 사찰이다.

신라 구산선문(아래 설명 참조)의 하나인 가지산의 개산조인 도의선사가 821년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은거했던 곳으로 그 뒤를 이어 염거화상, 보조국사와 같은 고승들이 이어갔고 선종을 받아들인 최초의 사찰이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연선사가 구족계를 받은 사찰이다.(고려 21대 희종 2년(1206년) 6월생으로 9세때 무량사에 입문, 공부하였고 14세때 진전사로 옮)

도의선사의 선법과 사상은 중국 당나라에서 西堂(서당)에서 37년간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경주일원에는 敎學(교학)사상이 크게 융성하였으므로 경주를 떠나 설악산 아래 진전사로 오신 것이라 한다. 도의선사의 법통은 선종의 2대조인 역성사의 염거화상에게 전하고 염거화상은, 3대조는 전남 장흥군 가지산 보림사의 보조선사에게 전수되어 선종의 법통을 이어갔다. 도의 선사가 당나라로부터 귀국하였던 8세기는 진전사는 널리 알려진 사찰이었으며 고려 때는 선종의 대 도장 가지산문의 근본도장으로 유서 깊은 곳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 세조 12년(1467년)까지 존속하였으나 이후 폐사되어 일제 강점기에 屯田寺(둔전)로 불리다가 진전(陳田)이란 글자가 새겨진 기와편이 출토되면서 陳田寺(진전사)라는 것이 밝혀졌다.

1965년 3월 단국대학교 정영호 박사팀이 일대를 답사하고 석탑, 부도 등을 발굴 조사하여 학계에 보고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기우러져 가는 석탑을 해체 하여 바로세우고 흩어져 있던 부도 파편들을 모아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1982년 11월 3일 국가 문화재로, 3층석탑은 국보 122호로 석조부도는 439호로 지정하게 되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부도탑이 있는 상부 영역을 전면 발굴하여 원형대로 남향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법당을 복원하였다.

진전사의 위치는 동쪽을 바라보며 멀리 동해가 굽어보이는眺望(조망)이 절터 앞을 흐르는 계류와 잘 어울려 마치 경주 동해안의 감은사터를 연상케 한다.

한국에 전해진 선법은 6조 혜능의 법손들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 첫 전법자가 도의(道義)이다. 그는 선덕왕(宣德王) 5년(784년)에 당으로 가서 마조(馬祖) 도일(道一)의 고제자 서당(西堂) 지장(智藏)에게서 법을 얻고 현덕왕 23년(831년)에 귀국, 선법을 일으키고자 했으나 신라에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설(魔說)이라고 거부했다. 그래서 도의는 설악산에 은거, 그 법을 제자 염거(廉居)에게 전하니 염거는 다시 체징(體澄, 804~880)에게 법을 전했다. 이렇게 해서 9산선문(九山禪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 2. 三層石塔 (국보 122호)

3층석탑은 신라식 일반형식으로 2층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상륜부는 노반석까지 있고 그 이상은 결실되었다. 2층 기단위에 3층의 탑신을 쌓아 올린 9세기 통일 신라시대의 석탑으로 1966년 2월 28일 국보 제 122호로 지정되었다.

높이 5m의 화강암 3층석탑은 8장의 장대석으로 구성된 후 2층 기단을 올렸는데 하층기단은 낮게 구성하였으며 양쪽에 우주와 중앙에 탱주를 1개로 입면을 구성하고 그 사이 면석에 연꽃 무늬 받침 위에 앉아있는 비천상 2구씩 새겼다.

면석에는 구름위에 앉아있는 팔부신중상 2구씩을 새겼는데 면석의 조각 수법과 하층에 비해 높은 입면을 구성한 전체적인 비례는 9세기 통일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들 천인상은 공히 7엽의 연화자 상에 안좌하고 2층의 원형 단신은 구비하였으며 면천의를 날고 있었는데 수인은 합장을 하거나 천의를 잡고 있는 등 각이한 형태이다.

상륜부는 노반만 남아있고 사우는 유실되었는데 노반에는 직경 10cm, 깊이 10cm의 찰주공이 있어 정확한 높이는 알수 없는 상태다. 낙수홈을 음각하여 세밀한 의장을 보이고 있다.

## 3. 진전사지 부도(보물 제 439호)

전형적인 부도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진전사지 부도는 사각형 2층기단 위에 팔각형 탑신부를 올린 특이한 형태인데 현존하는 부도 중에서 전기에 속하는 것으로 1966년 2월 28일 보물 제 439호로 지정되었다.

사각형의 낮은 지대석 위에 2층으로 구성된 4각형 기단을 올렸는데 하층기단 면석 중앙에 탱주가 없고 상하기단의 각 면에 조각이 없는 것이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조형은 유사하여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단위의 탑신은 8각형으로 연꽃문양을 조각한 8각의 탑신킴돌 위에 놓여있고 정면에 문짝 모양을 조각하였을뿐 아무런 장식이 없다. 옥개석 처마는 수평이고 추녀는 안으로 휘어있고 상륜부의 구형 보주를 받치는 옥개석의 상부는 두 겹의 연꽃을 새겼으며 보주 아래 부분에도 연꽃무늬를 새겼다. 탑신을 받치고 있는 8각형 연꽃문양의 탑신킴돌 위쪽 중앙에 크기 26.5cm×29cm, 깊이 9.5cm의 사리공이 확인되었다. 석조 부도

## 진전사(삼층석탑,부도)

에 연꽃모양의 꺾음을 별개의 돌로 만들어 사리구멍을 만든 예는 드물다. 전체 높이는 2.17m로 부도 앞에 원을 중심으로 8장의 연꽃이 새겨진 배례석이 놓여있다. 부도탑의 조성연대와 관련하여 진전사의 창건연대와 관련된 도의 선사의 부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도의선사의 부도로 확인될 경우 우리나라 부도의 시초가 되는 것으로 문화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사진 설명〉 석탑의 상층기단 신중상(동편)

중앙 당주로 양분하여 한편에 각 2 座式(좌식)의 天人座上(천인좌상)을 양각하였다. 이들 천인상은 공히 7엽의 蓮花座(연화좌) 위에 安座(안좌)하고 2중의 원형 短身光(단신광)을 구비하였으며 天衣(천의)를 날리고 있는데 手印(수인)은 합장하거나 혹은 천의를 잡고 있는 등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조각은 각 천인의 相好(상호)가 원만하고 美麗(미려)하며 천의자락이 잘 어울려 당대의 秀作(수작)이라 하겠다.

선종 구산(禪宗九山)은 남북국 시대의 신라 때부터 시작되어 고려 태조 때 완성된 불교 선종(禪宗)의 구산문(九山門)을 가리킨다.

중국에서 성행한 달마(達摩)의 선법(禪法)을 이어받아 한국 선종의 종풍(宗風)을 일으킨 아홉 산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지산문·동리산문·봉림산문·사굴산문·사자산문·성주산문·수미산문·실상산문·희양산문이다.

이후 이들 9산문은 선적종(禪寂宗)에 속하게 되며 의천(義天)이 만든 선종 천태종(天台宗)에 대립하였다가 조계종(曹溪宗)으로 개칭되어 선종 2종과 중의 하나가 되었다.

선종의 9산은 다음과 같다.

### 1. 가지산문(迦智山門)

설악산에서 도의(道義: d. 825)의 법을 배운 제자 체징(體澄: 804-890)이 837년에 당에 건너갔으나 실망하고 840년에 신라로 돌아와서 장흥의 가지산(迦智山)에서 보림사(寶林寺)를 창건하고 도의의 종풍을 떨쳤다. 이로써 선종 9산의 일파로 가지산문이 최초로 성립되었다.

### 2. 실상산문(實相山門)

홍척(洪陟: fl. 830)이 당의 지장(智藏: 735-814)에게서 배워와(826) 남원의 지리산 실상사(實相寺)에서 실상산문을 열었다.

### 3. 희양산문(曦陽山門)

도헌(道憲: 824-882)은 준범(遵範)·혜은(慧隱)의 법맥을 받아와 문경의 봉암사(鳳岩寺)에서 희양산문을 열었다.

### 4. 봉림산문(鳳林山門)

현욱(玄昱: 787-868)·심희(審希: fl. 9세기) 등에 의해 창원의 봉림사(鳳林寺)에서 봉림산문이 형성되었다.

### 5. 동리산문(桐裡山門)

혜철(惠哲: 785-861)에 의해 곡성의 태안사(泰安寺)에서 동리산문이 형성되었다.



## 6. 성주산문(聖住山門)

무염(無染: 800-888)에 의해 보령의 성주사(聖住寺)에서 성주산문이 형성되었다.

## 7. 사자산문(獅子山門)

도윤(道允: 798-868)·절중(折中)에 의해 영일의 흥령사(興寧寺)에서 사자산문이 형성되었다.

## 8. 사굴산문(闍崛山門)

범일(梵日: 810-889)에 의해 강릉의 굴산사(崛山寺)에서 사굴산문이 형성되었다. 사굴산문은 도굴산문이라고도 한다. 이로써 신라말에 8산이 형성되었다.

## 9. 수미산문(須彌山門)

이엄(利嚴: 869-936)에 의해 고려초에 해주의 광조사(廣照寺)에서 수미산문이 열려서 9산 선문이 정립되었다.

## 신라 말기의 선종의 전래 [편집]

35대 경덕왕(재위 742~765) 때에까지 활발했던 신라 불교는 그 후 점점 침체되어 갔다. 이 무렵에 직절간명한 선(禪)불교가 중국에서 들어오게 되었다. 이 새로운 선풍(禪風)은 중국에서 달마 이래 종풍이 확립되어 독특한 선종(禪宗)으로 성립·발전된 것이다. 중국의 선종이 6조(六祖) 혜능(慧能)에 이르러 남북으로 나뉘면서 그 기세가 극성할 무렵 신라 학승들이 선법을 배워왔다. 북선(北禪)은 흔적만 남은 정도로 미미했지만, 6조 혜능의 남선(南禪)은 크게 일어나 신라의 선종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한국에 전해진 선법은 6조 혜능의 법손들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 첫 전법자가 도의(道義)이다. 그는 선덕왕(宣德王) 5년(784년)에 당으로 가서 마조(馬祖) 도일(道一)의 고제자 서당(西堂) 지장(智藏)에게서 법을 얻고 현덕왕 23년(831년)에 귀국, 선법을 일으키고자 했으나 신라에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려 마설(魔說)이라고 거부했다. 그래서 도의는 설악산에 은거, 그 법을 제자 염거(廉居)에게 전하니 염거는 다시 체징(體澄, 804~880)에게 법을 전했다. 이렇게 해서 9산선문(九山禪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 고려 전기의 선종 구산의 완성 [편집]

고려 태조는 불교를 외호하는 데 있어서 종파에 차별을 두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무인적인 성격에서 자연 선종을 좋아하여 선승(禪僧)에게 귀의, 왕사(王師)와 국사(國師) 제도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958년에 관리등용을 위해 과거제도를 쓴 데에 견주어, 승려의 위계질서를 가리려고 승과(僧科)를 설치했다. 이것은 승려를 존경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 그들을 통제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신라 말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9산선문은 고려에 와서 이엄(利嚴, 866~932)의 수미산파의 성립으로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고려 중기의 선종의 부진 [편집]

성종 구산의 성립에 따른 선법의 영향으로 여러 종파의 교학이 빛을 잃은 듯했으나 화엄교학만은 그 세력을 잃지 않았다. 남북국 시대에 의상이 화엄을 널리 펼친 이래 끊임없이 연구되어 고려에 계승되었다. 화엄교학은 고려조 전체를 통해 선종이나 교종을 막론하고 널리 연구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대승보살의 실천적 행동을 강조한 사상이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는 왕자들의 출가가 많았는데, 의천(義天: 대각국사(大覺國師),

## 진전사(삼층석탑,부도)

1055~1101)은 문종의 제4왕자로 11세에 출가, 영통사의 왕사 난원(爛圓)에게서 화엄을 배웠다. 그는 송(宋)에도 유학하였으며, 그때 천태학(天台學)을 전수받고 귀국 후에는 천태교관(敎觀)을 널리 강설했다. 그는 또 교장도감을 설치, 국내외의 논저(論著)를 널리 수집하여 속장경(續藏經)을 출판했다. 고려는 초기부터 선(禪)이 성하였으나 천태교학이 들어온 뒤부터 중기에는 재래의 선종은 심히 부진하게 되었다.

고려 후기의 선종의 중흥과 조계종의 성립 [편집]

천태교학이 들어온 뒤부터 고려 중기에는 선종은 심히 부진하였다. 이때 고승 지눌(知訥, 1158~1210)이 나와 조계선종의 중흥을 이루었다. 많은 선승이 끊이지 않고 배출되어 고려불교의 후기는 선종 일색이 되었는데, 지눌은 9산선문의 교리를 종합하여 한국 불교의 정통인 조계종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塔(탑)의 實測值(실측치)

탑의 높이 5m

上基面高 : 32.5    下基面幅 : 230.5

上基面高 : 91.5    下基面幅 : 178.0

塔身部(탑신부) 단위:cm

	身 高	身 幅	屋蓋長(옥개장)
제 1 층	79.5	90.0	154.0
제 2 층	30.5	80.5	136.5
제 3 층	26.5	66.5	116.5



## 청동기시대 무덤형태

### 1. 인류의 등장과 선사시대의 시작

#### 1) 인류의 등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35억 년 전 바다에 미생물이 나타났으며, 그 후 약 2억 9천만 년 전에 공룡이 지구에 나타났다. 그리고 약 400만 년 전 인류의 첫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타났고, 한반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다. 그 증거로 단양의 굴에서 동물의 뼈와 도구들이 발견되었으며, 충청북도 청원군 두루봉에 있는 동굴 여러 곳에서 지금은 멸종된 동굴 곰 화석이 발견되고 4만 년 전에 살았던 홍수아이의 유골도 발견되었다.

1만 년 전쯤 빙하는 완전히 물러가고 날씨가 따뜻해져 얼음이 녹고 바다가 높아져 오늘날의 환경과 비슷해졌으며, 바다에는 커다란 고래도 살고 물고기도 많았고, 썰물 때에 갯벌에 나가면 조개를 쉽게 잡을 수 있었다.

(주) 홍수아이 :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화석 인류는 1983년 발견자 김홍수의 이름을 따서 홍수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홍수아이는 약 4만 년 전의 후기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5살 때 이 동굴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뒤통수가 튀어나와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 짱구였다. 홍수아이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장례풍습에 의해 매장되었기 때문이다. 1983년 발굴당시에 홍수아이는 편편한 석회암 낙반석 위에 누워 있었는데 일부러 시신을 바로 펴놓고 고운 흙을 뿌렸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 2) 구석기시대 ~ 철기시대의 변천과정

#### (1) 구석기 시대

- 70만년전 - 곧선사람이 한반도에 들어오고 짝개 주먹도끼 같은 뿔석기를 사용함.
- 50만년전 - 평안남도 상원 검은모루 동굴에서 사람이 살았다.
- 만2천년전 - 활과 화살을 사용했다.
- ※ 1984년 서울대학교 조사단이 손양면 도화리 일원에서 전기 구석기에 속하는 ‘아슐리앙’ 계통의 토기가 출토되어 이시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짐.

## 고인들

### (2) 신석기 시대

- 기원전 8천년경 - 한반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환경이 오늘날과 비슷했다.
- 기원전 6천년경 - 움집에서 살았으며 간석기와 빗살무늬토기를 만들었으며, 양양 오산리에서 신석기 인들이 살았다.
- 기원전 5천년경 - 서울 암사동에서 신석기 인이 움집을 짓고 생활하기 시작하다.
- 기원전 2333년 - 단국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

### (3) 청동기 시대

- 기원전 2천년경 - 중국 만주지역에서 청동기 사용 시작하였다.
- 기원전 1천년경 - 한반도에서 민무늬토기를 만들고 청동기 사용함.
- 기원전 8백년경 - 고조선이 발전하여 중국 제나라와 교역을 하다.
- 기원전 450년경 - 중국 송화강 상류에 부여가 세워지고 한반도 남쪽에는 진국이서다.

(주) 진국 : 초기철기문화를 배경으로 기원전 3~2세기경 한반도 중남부지역에 살았던 정치 집단이다.

### (4) 철기 시대

- 기원전 400년경 - 한반도에 철기 문화가 들어오다.
- 기원전 221년 - 연나라의 공격으로 고조선 서쪽 땅 2000여리를 빼앗기다.
- 기원전 194년 -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다.
- 기원전 109년 - 한무제가 5만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다.
- 기원전 108년 - 왕검성이 함락되고 고조선이 멸망하다.

#### ※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생활상의 비교

구석기시대	생활상	신석기시대
동굴이나 막집	어디서 살까 ?	움집
똥석기	무엇을 쓸까 ?	간석기:갈아서 만든 도구
짐승 가죽옷	무엇을 입을까 ?	섬유질의 베포
열매와 고기	무엇을 먹었나 ?	고기와 곡식
사냥과 채집	무엇을 할까 ?	사냥과 농사
불을 피우는 법을 알게 됨	새로운 변화 !	마을이 생기기 시작함

## 2. 선사인 들의 도구

### 1) 뎨석기 종류

뎨석기는 말 그대로 떼어낸 돌이다.

찍개는 가죽을 벗기거나 땅을 팔 때 썼고

밀개는 나무껍질 등 단단한 껍질을 밀어내 부드럽게 만들 때 썼다.

찌르개는 사냥을 할 때 쓰려고 끝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주먹도끼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만능 찍개였다.

### 2) 뎨석기 쓰는 법

주먹도끼는 사냥을 하거나 털과 가죽을 분리할 때

긁개는 짐승 가죽을 벗겨 손질할 때

찌개는 나무를 자르거나 사냥할 때

뚫개는 옷감을 만들거나 구멍을 뚫을 때

### 3) 뎨석기 만드는 법

모루떼기는 돌을 쥐고 땅위에 있는 큰 돌에 내리쳐 떼어내는 방법

간접떼기는 뼈나 뿔을 이용하여 [끌(뼈, 뿔)과 망치돌]을 이용하여 떼어내는 방법

눌러떼기는 뾰족한 뿔 도구로 돌감을 가공해서 정교하게 잔손질을 하는 방법

직접떼기는 돌을 쥐고 망치 돌로 때려 떼어내는 방법

※ 선사인 들의 도구였던 주먹도끼에 날 하나를 더 만드는데 수천 년 어찌면 수 만년이 걸렸을지도 모른다.

## 3. 고조선의 건국

고인돌은 한 씨족이나 부족의 우두머리였던 족장과 그 가족의 무덤으로 그 무덤을 세우려면 우두머리의 힘이 아주 커야했으며, 그 시기에 사람들이 청동기를 각기 시작하면서부터 큰 힘을 가진 우두머리가 등장했는데 한반도에도 그런 힘을 바탕으로 우리겨레의 나라가 처음 탄생했는데 바로 단군 왕검이 세운 고조선이다.

조선이라는 말의 기원은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신선한(鮮) 아침(朝)햇빛이 처음 비치는 곳이란 뜻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고조선의 수도는 아사달이며, 아사달이란 말은 임금이 사는 큰 마을이라는 뜻이 담겨있는데, 아사달이 실제 어디를 말하는지 여러 가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 고인들

이러한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고조선은 철기문화를 받아들이며 더욱 강한 나라가 되었다. 고조선 이후 만주지역에는 부여와 고구려 한반도에는 옥저 동예 마한 변한 진한이 등장했다.

### 4. 청동기 시대

#### 1) 청동기의 시작

청동기시대에 접어들자 지배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농사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나 필요한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마을로 쳐들어와 추수해 놓은 곡식을 몽땅 차지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사냥한 짐승을 빼앗기면 며칠 굶으면 되지만 거두어들이는 곡식을 빼앗기면 일 년치 식량이 없어졌고 게다가 싸움에 지면 집을 잃고 끌려가서 노예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 겨레가 금속도구를 처음 사용한 시대는 BC 1,000년 전인데, 대체로 청동기 문화는 BC10세기 무렵부터 중국 요령 지방에서 한반도로 들어왔는데, 이들이 예죽과 맥죽, 곧 예맥죽이 우리의 조상이기도 하다.

청동기시대라고해서 모든 사람이 다 청동무기를 쓴 것은 아니다.

고인들 안에서 발견되는 청동화살촉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은 모두 제사를 지낼때 쓰는 도구다. 따라서 고인들에서 나온 청동검도 사실은 적을 무찌르는 칼이라기보다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도구였으며 특히 지도자는 8개의 방울이 달린 팔주령을 들고 제사를 지냈다.

#### 2) 청동기의 종류

- (1) 무기 - 비파형동검, 격창, 세형동검, 투겁창 등
- (2) 공구 - 청동끌, 청동갈, 청동도끼 등
- (3) 치레거리 - 청동단추, 청동방울, 청동거울 등

#### 3) 청동검 만드는 법

- (1) 구리(Cu)에 주석(Sn) 또는 아연(Zn)을 넣고 불을 피운뒤 온도(약600도)가 올라가면 쇳물을 얻을 수 있다.
- (2) 거푸집에 쇳물을 붓고 거푸집은 끈으로 묶는다.
- (3) 거푸집이 식으면 청동기를 꺼내어 솥뚜껑에 갈아서 날을 세우거나 다듬는다.

#### 4) 화폐로 사용된 쇠 덩이와 명도전

우리조상들은 쇠 덩이가 매우 귀하고 중요한 물건이라 마치 화폐처럼 사용 했는데, 경남 창원 다호리에서는 날을 세우지 않고 자루도 끼우지 않은 쇠도끼 2점을 엿갈리게 포개 뒤 끈으로 묶어서 무덤에 묻은 것이 출

토되었다.

전국시대의 중국연나라에서 사용하던 명도전이 고조선영토에서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국 연나라와 무역을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명도전은 겉면에 한자로 밝을 명(明)자 비슷한 글자가 새겨져있고, 모양이 칼과 같으며 끈이나 줄 따위로 꿰어 여러 개를 간수 할 수 있도록 손잡이 부분에 구멍이 나 있으며 칼 도(刀)자를 써서 명도전(明刀錢)이라고 했다.

### 5) 농경(벼농사)생활의 발전

우리나라의 벼농사는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그 시기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지만, 최근에는 후기신석기시대에 유입되어 청동기시대에 본격적으로 재배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에서 볍씨가 불에 탄 이 볍씨를 탄화미라고 부르는데, 경기도 고양 일산, 여주 혼암리, 충남 부여 송국리, 충북 청원 소로리에서 나왔다.

고고학자들은 이 볍씨들을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으로 알아보니 충북 소로리에서 나온 볍씨는 1만 3천년에서 1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로 인정받았다.

소로리 볍씨는 재배종과 야생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한반도에 살았던 후기 구석기인들이 쌀을 가장 먼저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 6) 양양지방의 청동기시대 유적

1970년대 초반 감곡리와 범부리 고인돌이 확인된 이래 최근까지 포월리, 수여리, 학포리, 상양혈리, 하광정리, 조산리, 사천리, 강선리, 기정리, 밀양리, 포매리, 원포리, 지리, 임호정리, 입암리, 등 비교적 많은 곳에서 다수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에 들어와 많은 이들이 주요 하천의 나지막한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가꾸면서 살았음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아울러 일정한 규모의 토착집단이 거주하였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청동기시대 유적 중에서 포월리유적, 밀양리유적, 임호정리유적, 지리유적이 발굴되었으며 최근 영동지방 최초로 청동기시대의 분묘유적인 송정리 토광묘 1기가 새로이 조사되었다.

발굴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돌창, 민무늬토기, 구멍무늬조각, 밀동조각, 반달돌칼, 돌작살, 화살촉, 돌도끼, 숫돌, 돌끌, 돌대패, 홍자귀, 가락바퀴 등이 출토되었다.

## 5.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우리나라 고인들

2000년 12월 2일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WHC)는 전남 화순, 전북 고창, 강화도의 고인들떼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고인돌

### 1) 고인들의 종류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무덤형식 가운데 하나가 고인돌이다.

유럽을 비롯해 인도 동남아 중국의 절강성과 요령성 그리고 일본 규슈 지역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다.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산간지대를 제외한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며 그중에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평안 남도와 황해도 그리고 전라북도 등 서부지역에 밀집되어있는데, 전라도 지역에만 약 2만 여기가 분포한다.

강화도의 고인돌은 지배자의 무덤이었다면 전라도 고창과 화순지역에는 고인돌이 때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곳은 부족의 공동무덤이었다.

고인돌은 그 짜임새에 따라 크게 2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북방식(北方式)이며, 다른 하나는 남방식(南方式)이다.

북방식은 그 형태에 따라 탁자식으로 부르며, 조사된 지역의 대표적인 지명을 붙여 오덕형(五德形)으로도 부른다.

남방식은 변형(變形) 또는 조사된 지역의 대표적인 지명을 붙여 침촌형(沈村形)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북방식은 주검을 안치하는 곳, 즉 주검 칸이 지상에 드러나 있으며, 남방식은 주검칸에 지하에 설치된 것이다.

남방식은 다시 큰 윗돌[上石]이 괴임돌로 고여진 바둑판식(支石式)과 괴임 돌이 없는 개석식[無支石式]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형태에 따라 탁자식고인돌, 바둑판식(기반식)고인돌, 개석식(구덩식)고인돌, 위석식고인돌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 이는 고인들의 생김새를 보고 지은 이름이다.

(1) 탁자식고인돌 -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인돌은 탁자식으로 모양이 탁자와 닮았다. 두꺼운 판돌 4개를 세워 네모꼴로 된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평평한 덮개돌을 올려놓은 것으로 무덤방을 지상에 노출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덮개돌의 크기는 대개 2-4m정도가 보통이나 8m이상인 것도 있고, 전체높이가 2m이상인 경우도 있다.

(2) 바둑판식고인돌 - 바둑판식은 탁자식과 반대로 당숙에 돌로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돌을 올려놓은 것이다. 땅위에 놓인 받침돌이 덮개돌을 받치고 있는 모습으로 바둑판고인돌이라 불리고 주로 전라도 경상도 한강 이남지역에 분포되어있다.

(3) 개석식(구덩식)고인돌 - 덮개돌과 지하 돌방 사이에 받침돌이 없어 덮개돌이 직접 무덤방을 덮고 있는 형식으로 무지석식 도는 놓인 형 고인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를 바둑판식 고인돌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고인돌은 한반도 전역에 분포되어있어 우리나라 고인돌의 대표적인 형식이라 볼 수 있다.

(4) 위석식고인돌 - 제주도에만 분포하고 있으며, 덮개돌 아래에 자연석이 고임돌로 둘러져 그 자체가 주검 칸을 겸한 형태이나 외형적으로는 고임돌이 덮개돌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고임돌은 덮개돌 아래에 6~16매가 둘러져 있는데 고임돌을 잇대어 놓은 것과 고임돌을 작은 돌로 쌓는 것이 있다.



〈사진-1〉탁자식고인돌



〈사진-2〉바둑판식고인돌



〈사진-3〉개석식고인돌



〈사진-4〉위석식고인돌

## 2) 고인돌 만드는 방법

- (1) 바위 돌 쪼개기 : 먼저 사용할 돌을 찾아낸 다음 바위덩이에서 돌 판을 떼어낼 경우 바위 결을 따라서 난 틈에다 깊은 홈을 파서 나무 말뚝을 박고 홈에 물을 채운 후 나무가 물에 불어 팽창하면서 바위가 갈라진다.
- (2) 바위 돌 옮기기 : 먼저 길을 따라 큰 통나무를 기차 길처럼 깎고 다음 그 위에 다시 통나무를 얹고 돌을 통나무위로 옮겨놓고 밀면서 앞으로 나간다.
- (3) 꺾돌 세우기 : 무덤을 쓸 곳에 돌을 옮겨 바침으로 꺾돌을 세우고 양 옆에는 꺾돌이 넘어지지 않도록 췌기돌을 박는다.

## 고인돌

(4) 덮개돌 올리기 : 꺾음을 세운 윗부분 까지 흙을 덮어 양쪽으로 비탈길을 만든 다음 줄을 이용하여 덮개돌을 끌어올린다.

※ 덮개돌은 수백 톤이〈사진-5〉 넘는 것도 있으며, 이 커다란 돌을 옮기려면 백여 명도 넘는 사람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5) 무덤방에 시신안치 : 무덤방 안에 흙을 제거하고 시신을 안치한 뒤 큰 돌로 문을 막으면 고인돌이 완성된다.



〈사진-5〉덮개돌이 300톤이 넘는 고창 매산리 고인돌



〈사진-6〉우리나라 고인돌을 대표하는 강화도 부근리 고인돌

### 3) 양양지방의 고인돌 현황

#### (1) 범부리 1호고인돌

범부리 1호고인돌의 덮개돌은 장방형판석으로 크기는 길이 2m 너비 0.83 ~1.45m 두께 40cm 덮개돌 밑에는 판석으로 구성된 석관 형 하부구조의 석실은 동벽은 2매 서벽은 1매 판석이고 남벽과 북벽은 결실되고 바닥은 1매의 판석을 깔았다.

#### (2) 범부리 2호고인돌

이 고인돌은 1호고인돌과 인접해 있으며 덮개돌 크기는 길이 2.06m 너비 0.77m 두께 40cm 이다

#### (3) 수여리 고인돌

이 고인돌은 마을에서 “철성바위”로 불리고 있으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제를 올렸다고 한다. 덮개돌 형식의 돌은 동~서 방향으로 길이 3.1m 너비 2.35m 두께 30~40cm이며 덮개돌 사방으로 1~1.4m 거리에 두레돌이 세워져 있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 (4) 금강리 고인돌

이 고인돌은 금강리 고인돌로 알려져 왔으나 그 위치가 수여리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다. 길이 2.5m 너비 1.8m 두께 40cm 길이 80cm 두께 30cm 크기의 장대석이 덮개돌을 받치고 있다.

## (5) 기정리 고인돌

이 고인돌은 포월리 48번지 일대에 소재하고 있으며 덮개돌의 길이는 2m 너비 60cm 두께가 50cm이다

## (6) 포월리 1호고인돌

이 고인돌은 폭 1m 내외로 덮개돌 중간 부까지 쌓여있고 덮개돌의 방향은 남에서 북향이며 크기는 길이 2.5m 너비 1.7m 두께 20cm이다

## (7) 포월리 2호 3호 고인돌

이 고인돌들은 1992년 양양군에서 포월리 농공단지 조성 시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2기 중 1기는 유물의 보전과 후세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강릉시립박물관으로 이전 원형대로 복원하여 전시중이며 나머지 1기는 매몰처리 되었다.

## 4) 순장제도

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 몸은 없어지더라도 영혼은 불멸한다고 믿었다.

구름도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겨울에 땅 밑에 숨었던 식물들도 봄이 되면 끊임없이 새로 피어난다. 사람들은 이 같은 자연의 순환을 보고 모든 것이 부활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죽음은 이승의 삶이 저승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았을 때 쓰던 물건들과 부리던 시종 곧 노비를 함께 매장했다. 많을 경우에는 100여명 적을 경우에는 수십 명에 이르는 노비가 주인의 무덤에 같이 묻혔다. 이렇게 산 사람을 함께 매장하는 잔인한 풍습을 순장이라고 한다. 순장은 현재의 지배자들이 죽음의 세계에서든 현세 때의 영화를 누리려는 의도에서 만든 장례방식인데, 소모품처럼 산 사람을 일부러 죽여 묻거나 산채로 묻어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 향교

해설 김양식

## 가. 유학이 들어온 시기

- 1) 儒學은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본다.  
이 때 유학의 성격은 孔子의 효재충신(孝悌忠信)과 맹자의 五倫이 중심이었다. <삼국사기>
- 2) 284년 백제는 아직기(阿直岐)가 일본에 건너가 일본왕자의 사부(師傅)가 되었고,
- 3) 372년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에 太學을 설치하여 자녀들을 교육하였다고 한다. <고구려본기>
- 4) 682년 신라는 신문왕 2년에 國學을 설치하였으나 불교의 융성으로 크게 떨치지는 못했다.
- 5) 1003년 고려는 목종 6년에 서경의 학원(學院)으로 3경 10목에 향학(鄉學)을 설치하여 박사와 교수를 파견하여 생도를 교육하였고 1127년 인종 5년에 여러 州에 향교를 세우도록 조서를 내려 유교를 국가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다. <增補文獻備考>
- 6) 1398년 조선에 와서는 태조 7년에 성균관이 창설되었으며 문묘(文廟)와 明倫堂이 함께 있어 봉사(奉祀)와 교육 및 문화적 기능을 확대 강화하였다.



대성전



대성전 내부 재단

## 나. 양양향교 건립 시기

- 1) 우리나라의 향교의 설치 연대는 정확치는 않지만 고구려는 太學과 경당(扁堂), 고려의 국자감(國子監)과

東西學堂, 조선의 성균관이 개설될 당시에 전국 지방의 향교가 설립되었을 것으로 본다.

2) 양양향교(임천리 297)는 고려 충숙왕 17년(1330) 5월에 江陵道 존무사(存撫使)로 임명된 안축(安軸)에 의해 양양부 구교리(舊校里)에 창건 되었다고 한다.

존무사 안축은 당시 이 지방을 순방하면서 산수가 수려하고 풍광이 뛰어난 지역에서 100여년이 지나도록 인재가 나오지 않음은 예부터 변방에 인접하여 변란이 자주 일어나 학교가 재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마침 양양지방의 향로(鄕老)들에게 물어보니 구읍(舊邑) 북쪽에 예로부터 구학(舊學)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향교 설치를 명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구교리를 향교골이라고 부르고 있다. <안축의 양양신학기문>

3) 그 후 성종 21년(1490)에 부동일리(府東一里) 城外로 移建되었고 인조 4년(1626)에 확장 증수되었다. 숙종 8년(1682)에 부사 최상익(崔商翼)이 진사 박호(朴灝), 崔相殷에 의하여 옛 文宣王洞(현 임천리)으로 移建되었다고 한다. <최상익의 양양향교이건기>

4) 그러나 1946년에는 향교의 모든 토지와 건물은 공산당에 몰수되었고 1950년 9월30일 6.25전쟁 당시에 공산당의 방화로 건물 및 제기(祭器), 제복(祭服), 서적 등 역사적 사료들이 안타깝게도 모두 소실되었다.

5) 1951년 수복과 동시에 다시 향교의 모든 재산을 회수하였으며 1952년에는 대성전(大成殿)과 동서무(東西廡), 동서재(東西齋) 등을 재건하고 석전제(釋奠祭)를 봉행하였다.

6) 1954년에 明倫堂을 증건하여 향교재단에서 명륜중학교를 설립하여 중등교육에 열성을 다해오다 1975년에 폐교되어 현재는 석전제를 비롯한 행사에만 그치고 있다.

7)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5호로 지정되었다. <襄陽郡誌>

8) 현재 남한에 남아있는 향교는 1900년에 재건된 충남 보령시의 오천향교(鰲川鄕校)를 끝으로 231개의 향교가 남아 있다.



향교 전경



명륜당

**다. 향교 운영**

1) 향교의 운영은 교사(敎舍) 등 시설물의 설치·보수·유지, 교수관(敎授官)의 후생비, 교생들의 숙식비, 학업활동에 부수되는 제반비용, 그리고 향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석전례, 향음례 등에 이르는 비용을 이른바 학전(學田)과 학노비(學奴婢)로 공급하였고 교생은 무상교육을 받았다.

2) 성종 15년(1484)에 <제읍향교급전절목 諸邑鄕校給田節目>을 제정하였고, 이것이 토대가 되어 호전(戶田)·학전조로 운영하였다. <大典續錄>

3) 그 밖에도 증건·중수의 공역이 있을 때에는 관청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였고 필요하면 유전(儒錢)을 각출하거나 그 지방 유지의 보조를 받기도 하였다.



동재



동무

**라. 교육제도**

1) 향교의 교육과정은 수기치인(修己治人)과 숭덕광업(崇德廣業)이란 유교의 교육목표하에 인격수양과 사회기강을 통한 인재육성을 목표로 삼았다.

2) 시문(詩文)을 짓는 이른바 사장학(詞章學)과 유교의 경전을 공부하는 경학(經學)을 교과내용으로 한다.

대체로 小學, 四書, 五經, 性理大全, 三綱行實, 孝經, 近思錄, 通鑑, 鄉約, 家禮, 鄉飲酒禮, 鄉射禮, 居接 등을 교육하였다.



명륜당

3) 교관제도는 성종 때 와서 府 이상의 고을에는 6품 이상의 교수관(敎授官)이나 7품 이하의 훈도관(訓導官)을 배치하고 교관의 나이는 40~70세로 제한하고 임기는 900일로 명시되어 있다.

4) 학생들의 입학연령은 17세 이상이 정구생으로 정하고, 府, 대도부(大都府), 牧의 향교는 90명, 도호부

(都護府)는 70명, 府나 郡은 30~50명으로 정원을 정하고 있다. <경국대전>

5)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생원·진사시험 회시에 직접 응시하는 특전을 부여받거나 일강(日講)·월과(月課)에 우등한 자는 호역(戶役)을 면제받았다.

6) 조선왕조의 유교교육은 양인(養人)과 교화라는 양면적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국역의 대상이 되는 신분이라도 누구나 독서를 원하면 향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였다.

세종 때에 신백정(新白丁)에게 향교입학을 허락한 것이나 조선 초기부터 농민들에게 향교교육을 허락한 점은 그러한 반증이다.

7) 일단 교생이 되면 그들의 사회신분이 양반이건 평민이건 법제적으로 문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재(東齋)·서재(西齋)로 기숙사를 구별하기도 하고, 액내(額內)와 액외(額外)로 양반과 평민 교생들을 구분하기는 하였으나, 균역의 문제라든지, 과거시험을 응시하는 자격을 얻는다든가 하는 점에서 차별을 두지 않았다.

### 마. 건물의 구성과 배치

1) 향교의 배치는 배향공간과 강학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건물이 자리잡은 대지가 평지인 경우는 전면이 배향공간이 나오고 후면에 강학공간이 오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를 이루고, 대지가 구릉을 낀 경사진 터이면 높은 뒤쪽에 배향공간을 두고 전면 낮은 터에 강학공간을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이룬다.



향교 전경

2) 양양향교는 경사진 면에 위치하고 있어 장대석 석축을 쌓아 기반을 만들어서 건물전체가 위엄이 있고 당당해 보이는 전학후묘형(前學後廟型)이다.



내삼문 전경

3) 전면에 학생들이 강학하는 明倫堂이 있고 후면에 동재, 서재를 두고 內三門을 지나 공자의 제자들과 현인들을 위패를 모시는 동, 서무(東, 西廡)가 위치하고 그 위에 先聖을 祭享하는 대성전(大成殿)이 있다.



## 향교

4) 전면의 明倫堂은 정면 7칸, 측면 2칸이고, 동재, 서재는 명륜당을 중심으로 두고 동서에 각각 4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형식의 건물이다.

동재 뒤쪽에 평행으로 교직사(敎直舍)가 있다.

5) 東廡, 西廡는 내삼문을 지나 大成典을 가운데 두고 동서로 마주보며 각각 9현을 모시고 있는 맞배지붕형식의 전면 3칸, 측면 2칸의 와가이다.

6) 대성전은 전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익공형이다.

7) 향교의 봉사(奉祀) 기능에는 봄, 가을 두 번의 석전제(釋奠祭)가 있다.

중국의 五聖(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과 孔文 10철, 宋朝 6현, 우리나라 18현이 서무에 (남계 박세채, 우암 송시열, 중봉 조헌, 우계 성훈, 하서 김인후, 회재 이언적, 일두 정여창, 포은 정몽주, 고운 최치원) 9위와 동무에 (빙월당 설총, 최현 안유, 한헌당 김굉필, 정암 조광조,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사계 이장생, 실녹재 김집, 동춘당 송준길) 9위에 모두 39위를 서무 배향하고 있다. <양양군지>



서무 내부

## 바. 기념비

1) 흥학비

당시 부임 중 향학에 공이 많은 분들로 부사 조공중저흥학비, 부사 안공경운흥학비, 부사 이공구영거사비, 부사 임공희교흥학비가 세워져 있다.

2) 양양향교중건비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에게 교육과 교화하는 뜻을 알리기 위해 세운 비(碑)다.



서무

3) 공부자묘정비(孔夫子墓庭碑)

유가의 창시자 공자(B.C551~B.C479)의 사상과 인류사에 남긴 영향들을 기록한 碑다.

4) 모성단(慕聖壇)

양양읍 선비 이종국, 고성재, 김익수, 조도원, 황낙기, 김윤기, 최선재, 김용석 등이 단기 4332년 기묘 8월에 “양주행우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유교를 숭상하고 성인들을 흠모하며 향교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단이 입구에 배열되어 있다.



훈학비



# 명주사

해설 이철수

## 명주사(明珠寺)

-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만월산
- 소 속 : 대한조계종 제 3교구 (본사 신흥사)
- 창건연대 : 고려 제 7대 목종 12년(1009년)
- 창 건 자 : 慧明(혜명)스님 大珠(대주)스님
- 절 이 름 : 明珠寺(명주사)-혜명, 대주의 한자씩 취하여 지음

### 명주사의 내력

처음 두 스님이 창건할 때는 비로자불을 모셨는데 여러 번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유물들이 남아있지 않다. 고려 제 17대 인종 원년(1123년) 靑蓮庵(청련암)과 雲門庵(운문암)을 창건하였는데 고려시대에는 현북면을 중심으로 명주사 도량이 창업되고 주변에 암자까지 창건배치 하였음은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 까지 현북면이 불교가 크게 번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의상대사가 창건한 낙산사, 원효대사가 창건한 영월사 등 불교가 호국불교, 국민불교로서 거족적인 종교가 되었다.

### 명주사의 변화

고려시대에 번창하던 불교가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배불정책의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북면 어성전리를 중심한 지역에는 암자들이 창건되었다. 제 19대 숙종 2년(1676년) 향로암이 창건되었고, 또 숙종 27년(1701년)에 벽옥루가 창건되었고, 제 22대 정조 5년(1781년)에 蓮坡(연파)스님이 원통암을 창건하고 관음보살상을 봉안하였다.

제 24대 현종 15년(1849년)에 원통암이 화재로 소실됨에 즉시 중건하였고 제 25대 철종 4년(1853년)에 원통암이 화재가 일어나 다시 중건하였다. 철종 11년(1860년)에 명주사 본사와 원통암, 청련암, 운문암, 향로암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때 이절의 月虛(월허)스님이 명주사를 중건하였고 다음해에 인허스님이 운문암을 중건하고 향로암을 서쪽으로 옮겨 짓고 보련암이라 이름을 바꾸었다.

제 26대 고종 원년(1864년)에 학운, 정원스님이 개인 사재를 털어 원통암을 중건하였다.

고종 15년(1878년)에 명주사가 화재를 당하자 고종 16년(1879년)에 명주사를 중건하였다. 고종 34년(1897

년)에 명주사가 모두 소실되었으며 이후로는 원통암에서 사찰의 사무를 보게 되었으니 이때의 명주사는 원통암을 칭하였다.

명주사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화재가 종종 일어나 명주사는 물론 암자들도 자주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증건되었다. 이와같이 조선시대에 있어서 양양지구의 불교가 배불승유정책에도 불구하고 별 탄압을 받지 않고 항상 불교가 왕성하였다.

예컨대 낙산사는 조선 초기 태조는 원년(1392년)부터 춘추로 사신을 보내어 삼일제를 올리도록 하였는데 이후 매년 규칙적인 행사가 되었다고 한다. 제 7대 세조는 낙산사에 행차하여 삼층이던 석탑을 7층으로 다시 축조하였고 낙산사를 중창토록 하였다. 제 8대 예종은 교지를 내려 절의 건물들을 증건하고 대종을 주조토록 하였으며 경작지와 노비를 내렸다. 제 9대 성종도 교지를 내려 전답과 노비를 하사하고 노역을 격감, 사찰 땅을 면세토록 하였다. 제 17대 효종은 향로를 하사하였다. 제 22대 정조는 화엄사의 미타암 화응전을 원당으로 정하고 관음상과 병풍, 궁중의 가마를 하사하며 사찰의 영역을 표시하는 사표(동, 남, 북의 표석)를 정하도록 하였다. 제 25대 철종때 화재로 소실된 화엄사 본사와 암자들을 증건할 때 조정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조선시대 양양지역 불교는 왕실의 비호를 받으면서 면면히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통암이 증건 확장되고 사찰의 면모가 새로워지고 있던 바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1912년 건봉사의 말사가 되었으며 여러 스님이 바뀌면서 사찰을 보수 증수하고 1926년 명주사의 소속 암자들이 청련암, 운문암, 향로암이 있었는데 모두 폐사하였다. 역대 스님들의 부도와 석비 10여기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해방후 38선상에 위치하고, 또 6.25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명주사는 폐허가 되어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석조건물로 이루어진 부조밭의 석조부조도와 석비들만 화재에서 살아남고 그 외 건물과 유물들은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1963년부터 중창불사가 시작되어 법당과 삼성각, 추성각, 종각, 요사채 등을 증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사찰 규모는 큰 편이 아니나 이름난 학생들을 배출한 곳이다.

현재의 명주사는 옛날 암자였고 현판과 인경중(人警鍾)은 보물급에 속한다.

### 명주사의 문화재

특이할 만한 문화재는 없으나 범종은 숙종 30년(1704년) 2월 높이 85cm의 조선후기 범종으로 1980년 2월 26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4호로 지정되었다. 2005년 동종 보호각을 개축보호하고 있다. 현판(懸板)과 무량수전은 추사(秋史) 완당(玩堂)의 친필이다. 그리고 부도밭의 석조부도들과 석비가 이 사찰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용뉴와 음통 : 용뉴는 종을 메달기 위한 고리이며 음통은 대롱 모양의 관으로 종의 공명과 관계되는 음향 조절기능을 고려하여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명주사에서 500m 정도 아래쪽에 중봉당선사탑이라 칭하는 2.5m 높이의 석조부도가 서 있는데 그 앞에 발이 옛 절터라고 전한다.

## 명주사

명주사 뒷산인 만월산에는 문필봉(文筆峰)이라 부르는 산봉우리가 있는데 이 절에서 공부하는 승려들이 이 산봉우리에 올라가 기도하면 도를 깨친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어 산행하는 사람들도 이곳을 찾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주사 도량은 물론 이곳 문필봉도 수도의 도량삼아 많은 학생들이 찾아 올라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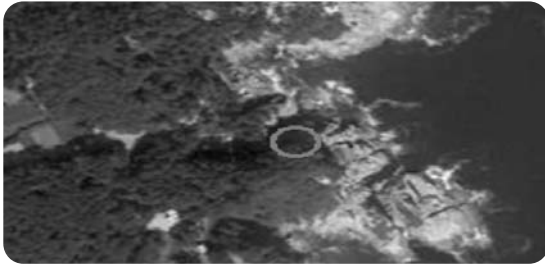




# 하조대

해설 이기용

## 하 조 대(河趙臺)



하조대 위치



하조대



하조대 앞 천년송



양양부사 이세근 글씨

## 하조대의 유래

### ● 양주지 전설편에 보면

이들(하륜과 조준)이 이곳 하조대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고려가 쇠퇴해져 나라 안이 어지러울 때 이 두 사람이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으나 나라 안의 정세를 미루어 보아 고려왕조의 왕통이 지탱할 수 없으니 새로운 왕조를 건립하여야겠다는 뜻을 품고 벼슬을 버리고 정치가 좋은 이곳에서 소일하면서 새 왕조 건국 모사를 하여 새 왕조가 등극하자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떠났다고 한다. 그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 혁명을 꾀했고 이곳에서 꾀한 혁명이 성취되어 후일 그들이 현관이 되자 그들의 성자를 따서 하조대하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양주지)

## 하조대

옛날 하광정리 하조대 근처에 하씨성을 가진 준수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웃 조씨 가문에 혼기가 찬 두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처녀들은 하씨 청년의 준수함에 반해서 둘이 다 같이 한 청년에게 애정을 품게 되었다. 두 처녀는 한사코 양보를 하지 않으므로 해결책이 없자 ‘저 세상에는 도덕이니 윤리이니 하는 번거로움이 없을지도 모르니 우리 다 같이 저 세상에 가서 함께 살자고 합의하여 이들은 하조대 절벽에서 몸을 던져 죽었다’ 고한다. 그 후 이곳을 하조대라고 불렀다고 한다.(양주지)

하륜은 “1388년 최영(崔瑩)이 요동(遼東)을 공격할 때 이를 반대하다가 양주(襄州)로 유배되었다가 위화도 회군 후 복관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조준은 “권간(權奸)의 발호에 실망하여 우왕 말년까지 4년 동안 은둔생활을 하면서 경사(經史)를 공부하고, 윤소종(尹紹宗)·허금(許鎬)·조인옥(趙仁沃)·유원정(柳爰廷)·정지(鄭地)·백군녕(白君寧) 등과 교우를 맺으면서 우왕의 폐위와 왕씨 부흥을 꾀하다 1388년 위화도 회군 후 이성계에게 발탁되어 지밀직사사 겸 대사헌(知密直司事兼大司憲)에 발탁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은둔생활을 하면서 우왕의 폐위를 꾀하던 조준이 우왕으로부터 유배되어 양양에 머물고 있던 하륜을 찾아 우왕의 폐위를 논했을 것으로 이들이 현관이 되자 이들의 성(姓)을 따서 하조대(河趙臺)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2009년 12월 9일 명승 제68호로 지정되었다.

정자는 조선 정종 때 최초로 건립하였고 이후 수차례 중수를 거듭하였는데 1940년 세웠던 것이 6·25한국 전쟁으로 소실(燒失)되었고 이후 1955년, 1968년, 1998년 세 차례에 걸쳐 중수하였다.

1820년대 기록인 양주읍지(襄州邑誌) 형승(形勝)편에 조선 숙종 때 양양부사와 대사헌을 지낸 이세근(李世瑾)이 ‘하조대’라 크게 세 글자를 정자 앞에 있는 바위에 새겨놓았다고 전한다. 우의정을 역임하신 명재 윤증(明齋 尹拯)이 ‘비를 무릅쓰고 하조대에 올라 바위에 기대 하염없이 시를 읊었다.’라는 시가 기록되어있다.

하조대와 관련한 한시는 12편이 전한다.

### ● 하륜(河崙)

#### 개 설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대림(大臨), 호는 호정(浩亭). 공진(珙辰)의 후예로, 할아버지는 식목녹사(拭目錄事) 시원(特源)이고, 아버지는 순흥부사 윤린(允瀾)이다. 어머니는 증찬성사 강승유(姜承裕)의 딸이다.

생애와 활동사항

1360년(공민왕 9)에 국가감시(國子監試), 1365년에는 문과에 각각 합격하였다. 이인복(李仁復)·이색(李穡)의 제자로, 1367년에 춘추관검열·공봉(供奉)을 거쳐, 감찰규정(監察糾正)이 되었으나 신돈(辛旽)의 문객인 양전부사(量田副使)의 비행을 탄핵하다가 파직되었다.

그 뒤 고공좌랑(考功佐郎)·판도좌랑(版圖佐郎)·교주찰방(交州察訪)·제릉서영(諸陵署令)·지평·전리정랑(典理正郎)·전교부령지제교(典校副令知製敎)·전의부령(典儀副令)·전법총랑(典法總郎)·보문각직제학·판도총랑(版圖總郎)·교주도안렴사(交州道按廉使)·전리총랑(典理總郎)·전교영(典校令)·대사성 등의 관직을 거치고, 1380년(우왕 6) 모친상을 당하여 관직에서 물러났다.

3년 상을 마친 뒤 우부대언·우대언·전리판서·밀직제학을 거쳐, 1385년에 명나라사신 주탁(周卓) 등을 서북면에서 영접하는 일을 맡았다. 1388년 최영(崔瑩)이 요동(遼東)을 공격할 때 이를 반대하다가 양주(襄州)로 유배되었으나, 위화도회군 이후로 복관되었다.

그리고 그 해 가을 영흥군 왕환(永興君王環)이 일본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가짜임을 밝혔다가 오히려 광주(光州)·울주 등지로 추방되었다.

그러나 윤이(尹彝)·이초(李初)의 변이 일어나자 의혹이 풀려 1391년(공양왕 3)에 전라도도순찰사가 되었다가 조선이 건국되자 경기좌도관찰출척사가 되어 부역제도를 개편,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하였다.

또한, 신도(新都)를 계룡산으로 정하는 것을 반대, 중지시켰다. 1394년(태조 3)에 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가 되었으나 이듬해 부친상을 당하여 사직하였다.

그러나 곧 기복(起復)되어 예문춘추관학사가 되었는데, 때마침 명나라와의 표전문(表箋文) 시비가 일어나자 명나라의 요구대로 정도전(鄭道傳)을 보낼 것을 주장하고 스스로 명나라에 들어가 일의 전말을 상세히 보고, 납득을 시키고 돌아왔다.

그러나 정도전의 미움을 받아 계림부윤(鷄林府尹)으로 좌천되었는데, 그 때 항왜(降倭)를 도망치게 했다 하여 수원부에 안치되었다가 얼마 뒤 충청도도순찰사가 되었다.

그는 이방원(李芳遠)을 적극 지지하여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종이 즉위하자 정사공신(定社功臣) 1등이 되고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서 진산군(晉山君)에 피봉되었다.

그리고 그 해 5월 명나라 태조가 죽자 진위 겸 진향사(陳慰兼進香使)로 명나라에 가서 정종의 왕위계승을 승인받아 귀국, 참찬문하부사·찬성사·판의흥삼군부사 겸 관상서사사·문하우정승(門下右政丞)을 거쳐 진산백(晉山伯)으로 봉해졌다.

이 해 태종이 즉위하자 좌명공신(佐命功臣) 1등이 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했다가 영삼사사(領三司事)로서 지공거(知貢舉)가 되고 관제를 개혁하였다. 그리고 영사평부사 겸 관호조사(領司評府事兼判戶曹事)로서 저화(楮貨)를 유통시키게 하였다.

1402년(태종 2)에 의정부좌정승 판이조사(議政府左政丞判吏曹事)로서 등극사(登極使)가 되어 명나라 성제(成帝)의 즉위를 축하하고 조선의 고명인장(誥命印章)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 하조대

그리하여 1405년에는 좌정승 세자사(世子師)가 되고, 다음 해에는 중시독권관(重試讀券官)이 되어 변계량(卞季良) 등 10인을 뽑았다. 그 뒤 영의정부사·좌정승·좌의정을 역임하고 1416년에 70세로 치사(致仕), 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이 되었다.

그는 태종의 우익으로 인사 청탁을 많이 받고 통진 고양포(高陽浦)의 간척지 200여 섬 지기를 농장으로 착복, 대간의 탄핵을 받았으나 공신이라 하여 묵인되었다. 치사한 뒤에도 노구를 이끌고 함경도의 능침(陵寢)을 돌아보던 중, 정평군어(定平郡衙)에서 죽었다. 인품이 중후, 침착, 대범하였다.

저서로 문집 《호정집 浩亭集》 약간권이 있다. 태종의 묘정(廟庭)에 봉안되었다. 후대에 그를 한나라의 장자방(張子房·張良), 송나라의 치규(稚圭)라 일컫기도 하였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 ● 조준(趙浚)

#### 개 설

본관은 평양(平壤). 자는 명중(明仲), 호는 우재(吁齋) 또는 송당(松堂). 문하시중 인규(仁規)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판도판서 덕유(德裕)이다. 아들 대림(大臨)이 태종의 둘째딸 경정공주(慶貞公主)와 혼인, 태종과는 사돈이 된다.

원래 평양 조씨는 이름없는 집안이었으나, 인규의 대에 이르러 몽고어를 잘하여 역관(譯官)으로서 출세, 충선왕의 국구(國舅)가 되면서 귀족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는 6형제 중의 5남으로 태어났는데, 형제가 아무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여 어머니가 항상 개탄했으므로 어려서부터 힘써 공부하였다.

#### 생 애

1371년(공민왕 20) 책을 끼고 수덕궁(壽德宮) 앞을 지나가자, 왕이 보고 기특히 여겨 마배행수(馬陪行首)에 보하였다. 1374년(우왕 즉위년) 함과에 급제하고, 1376년 좌우위호군(左右衛護軍)으로서 통례문부사(通禮門副使)를 겸하고, 강릉도안렴사(江陵道按廉使)로 뽑혔는데, 정치를 잘하여 이민(吏民)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이어 전법판서(典法判書)를 거쳐, 1382년 병마도통사 최영(崔瑩)의 천거로 경상도에 내려가 왜구 토벌에 소극적이던 도순문사를 징벌하고 병마사를 참하여 기강을 바로잡았다. 1383년 밀직제학(密直提學)을 지낸 뒤 상의회의도감사(商議會議都監事)가 되었다.

도검찰사(都檢察使)가 된 뒤에는 강원도에 쳐들어온 왜구를 토벌하여 선위좌명공신(宣威佐命功臣)에 올랐다. 그러나 권간(權奸)의 발호에 실망하여 우왕 말년까지 4년 동안 은둔생활을 하면서 경사(經史)를 공부하고, 윤소종(尹紹宗)·허금(許錦)·조인옥(趙仁沃)·유원정(柳爰廷)·정지(鄭地)·백군녕(白君寧) 등과 교유를 맺으면서 우왕의 폐위와 왕씨 부흥을 꾀하였다.

그가 이성계(李成桂)와 인연을 맺은 것은 이 무렵이다. 이성계는 1388년 위화도에서 회군한 뒤 중망(重望)이 있는 조준을 불러 일을 논의하고는 지밀직사사 겸 대사헌(知密直司事兼大司憲)에 발탁, 크고 작은 일을 일

일이 자문하였다. 이에 그는 크게 감격하여, 아는 것을 모두 이성계에게 이야기하는 등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해 이성계·정도전(鄭道傳) 등과 전제 개혁을 협의,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찬의를 얻고, 같은 해 7월 처음으로 전제 개혁의 필요성을 상소하였다.

또 다음해 8월과 12월에 잇달아 전제개혁소를 올려 이색(李穡)·이림(李琳)·우현보(禹玄寶)·변안열(邊安烈)·권근(權近)·유백유(柳伯濡) 등 전제 개혁 반대파와 대립하였다. 그는 관제·신분·국방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주장하고, 지문하부사 겸 대사헌(知門下府事兼大司憲)으로 추충여절좌명공신(推忠勵節佐命功臣)이 되었다.

이어 조민수(曹敏修)·이인임(李仁任) 등 권신을 탄핵하고 창왕을 폐위, 공양왕을 옹립하는 데 참여하여 이성계·정도전 등과 더불어 중흥공신에 서훈되었다. 1389년(공양왕 1) 전제개혁을 단행하고, 평리 겸 판상서 시사(評理兼判尙瑞寺事)에 올라 전선(銓選)을 주관했고, 다음해에는 찬성사로 승진하여 1391년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392년 정몽주 일파의 탄핵을 받아 정도전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정몽주가 죽자 풀려나와 찬성사·판삼사(判三司事)가 되었다. 이 해 7월에 이성계를 추대하여 개국공신 1등으로 평양백(平壤伯)에 피봉되고 문하우시중(門下右侍中)의 자리에 올랐다.

조선 개국 후 정치적 실권이 점차 정도전에게 집중되자, 그와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게 되었다. 세자책봉에 대해 정도전은 방석(芳碩)을 지지했으나, 조준은 이를 반대하여 개국에 공이 많은 방원(芳遠)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문하좌시중·오도도통사(五道都統使)가 되면서 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로서 병권을 장악하고, 요동공벌을 계획하던 정도전과 대립하여 공요운동(攻遼運動)을 반대하였다.

그의 정치적 입장은 자연히 이방원과 가까워져서 그와 친교가 두터웠고, 평소 방원에게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주고 읽기를 권장하였다.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戊寅靖社, 혹은 鄭道傳亂) 때 백관을 이끌고 적장(嫡長)을 후사로 정할 것을 건의한 후, 정종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도와 정사공신(定社功臣) 1등에 피봉되었다.

1400년(정종 2)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로 있으면서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에게 무고되어 한때 투옥되기도 했으나, 이방원에 의해 석방되어, 11월 이방원을 왕으로 옹립하고 좌정승·영의정부사에 승진, 평양부원군에 진봉되었다.

그는 사학(史學)을 잘하고 경학(經學)과 시문에도 능했으며, 문집으로 《송당집》을 남겼다. 한편,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에게 국조의 헌장조례(憲章條例)를 모아 《경제육전(經濟六典)》을 간행하게 했으니, 이는 뒤에 《속육전》·《육전등록》 등으로 보완되어 《경국대전》 편찬의 토대가 되었다.

그의 전제개혁안은 부곡강병과 민생안정에 목표를 둔 것이었다. 즉, 제1차 상소에서는 녹과전(祿科田)·구분전(口分田)·군전(軍田)·투화전(投化田)·외역전(外役田)·위전(位田)·백정대전(白丁代田)·사사전(寺社田)·역전(驛田)·외록전(外祿田)·공해전(公廩田) 등의 설치를 통해 관리와 군인 그리고 국역담당자의 생계



## 하조대

를 안정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2·3차의 전제개혁상소에서는 세신거실(世臣居室)이 경기 이외의 외방에까지 사전(私田)을 두려는 움직임을 저지하고, 기내사전(畿內私田)의 원칙을 고수, 전제개혁의 지역적 안배를 설정하였다.

1391년 5월에 정해진 과전법은 그의 개혁안이 토대가 된 것이나, 구분전·투화전·백정대전에 대한 분급 규정(分給規定)이 빠져 있고, 그 대신 중흥공신전의 세습에 대한 규정이 첨가되었다.

그가 여말에 올린 국정개혁안은 《주례 周禮》에 바탕을 둔 것으로 광범위한 사회개혁안을 포괄하고 있다. 즉, 총재(冢宰, 재상)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간과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며, 양친신분제(良賤身分制)를 확립하여 국역체제를 강화하고, 경연과 서연제도를 실시하며, 학교(향교)제도를 강화하여 사장(詞章)을 폐하고 사서오경을 배우도록 할 것, 《주자가례 朱子家禮》를 시행할 것, 의창(義倉)과 상평창(常平倉)·사창(社倉)의 법을 시행할 것, 향리의 출사(出仕)를 억제할 것, 환자(宦者)의 정치 참여를 막을 것, 과거시험에 복시제(覆試制)를 시행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의 관제 및 사회개혁안은 정도전의 그것과 상통하는 점이 많으며,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 및 《경제문감 經濟文鑑》 편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며, 태조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 ● 누정대(樓亭臺)의 구분

#### ■ 누각(樓閣) - 빈일루, 설악루, 죽서루 등

“휴식(休息)을 취하거나 놀이를 하기 위해 산이나, 언덕, 물가 등에 높이 지은 다락집, 주변의 풍광(風光)을 즐길 수 있도록, 대체로 문과 벽이 없이 사방으로 트여 있다.”라 하였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이르기를 “樓重屋也”라고 하여 루(樓)는 중옥(重屋)이라고 하고 중옥은 복옥(複屋)과 구별하였다. 중옥은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집이나 복옥은 사람이 거처할 수 없는 집이라고 하였다. 루(樓)는 좁고 굽어진 곳에 위치한다. 높은 산이나 언덕 위에 위치하지 않아서 앞이 훤히 트이지 않았으며 온 고을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집 앞에 강, 호수, 하천, 연못이 있다. 건물은 2층이라고 할 수 없으나 웅색한 곳에 위치하며, 밑기둥을 높이 세워 높은 마루 아래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다.

#### ■ 정자(亭子) - 이화정, 독송정, 청간정 등

“자연경관(自然景觀)을 감상하면서 한가로이 놀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주변경관(周邊景觀)이 좋은 곳에 아담하게 지은 집, 벽이 없이 지붕만 있으며 단층이다.”라 하였다. 『대한사전(大漢韓辭典)』에 “觀覽處也”라 하여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 것처럼 보인다. 정(亭)은 정자(亭子)의 약어(略語)이다. 정자(亭子)의 “자(子)는 다만 조사(助辭)일 뿐이다. 정자는 놀이를 목적으로 마을과 다소 거리가 있는 산수가 좋은 곳에 지은 집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亭民所安定也”(정은 백성이 안정하는 곳)라 하였다. 이것은 정현(鄭

玄)이 註를 달아 풀이하기를 “잠을 잘 수 있으나 잠을 자지 않는 곳으로 마치 지금의 정자에 방이 있는 것과 같다.(宿可止宿 若今亭有室矣)” 라고 하였다. 정(亭)은 방은 있지만 밤에 유숙하는 곳이 아니라 다만 산수 좋은 곳에서 그저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대(臺) - 의상대, 하조대 등

“흙이나 돌로 높이 쌓아 사방을 볼 수 있게 만든 곳.”이라 했다. 『문체명변(文體明辯)』은 대(臺)는 네모나고 높이가 위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觀四方而高者也”라 하여 사방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집이라 하였다. 『대한한사전(大韓漢辭典)』에 “榭築土觀四方而高者”라고 하여 높은 위치에 흙을 높이 쌓아 집을 지어 사방을 조망할 수 있게 한 집을 뜻한다고 하였다.

● 하조대 관련 한시

『玄谷集』 詩 (현곡 조위한(玄谷 趙緯韓) 1567~1649)  
현곡 집

仙臺縹緗接蓬壺(선대표묘접봉호) / 선대는 아득하니 봉래산과 접하고  
二子遐蹤問釣徒(이자하종문조도) / 두 아들이 멀리 와서 낚시꾼에게 물렸다.  
落日獨登招海若(낙일독등초해약) / 해질녘에 혼자 올라 해신을 부르니  
臨風長嘯響山都(임풍장소향산도) / 휘파람이 바람을 타니 산이 울렸다.  
東南無際迷封域(동남무제미봉역) / 동남이 무한하니 봉역은 미혹하고  
上下皆空沒宇廡(상하개공몰우구) / 상하가 모두 비었으니 집터 잠겼네.  
憐我杳然如一粟(연아묘연여일속) / 아득하고 멀어 내 가련하니 한 알의 좁쌀 같고  
不知何處着微軀(부지하처착미구) / 천한 이 몸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가 없구나.

『十清軒集』 (십청헌 김세필(十清軒 金世弼) 1473~1533)  
십청헌 집

河趙臺(하조대)  
祥雲南指一長亭(상운남지일장정) / 상운 역말의 여관에서 남쪽을 가리킨 곳  
疊石爲臺入海汀(첩석위대입해정) / 바닷가에 불쑥 층층 돌 위에 대가 있구나.  
蜃氣接天成殿閣(신기접천성전각) / 하늘에 접한 신기루의 전각을 이루고  
浪花環坐浸階庭(낭화환좌침계정) / 헛꽃 앞에 둘러앉으니 계정은 잠기네.  
扶疏松竹生清韻(부疏松竹生淸韻) / 무성한 송죽은 맑은 음향을 일으키는데  
出沒魚龍見怪形(출몰어룡견괴형) / 어룡이 출몰하는 괴이한 형상을 보았네.

## 하조대

徙倚乾坤懷抱在(사의건곤회포재) / 아주 넓은 천지간엔 회포가 있는데  
杯樽今日酌東溟(배준금일작동명) / 오늘은 술독에다 동해물을 잔질하네.

『明齋遺稿』 [명제 윤증(明齋 尹拯) 1629~1714]  
명재유고

河趙臺(하조대)

奇峰突兀入波心(기봉돌울입파심) / 파도 속으로 불쑥 솟은 기이한 봉우리여  
十里松間冒雨尋(십리송간모우심) / 숲 사이 십 리 길을 비 맞으며 찾아 왔네  
遊子何知河與趙(유자하지하여조) / 나그네는 하류와 조준을 어찌 알 것인가  
倚巖空復費莊吟(의암공복비장음) / 바위에 기대 부질없이 시 한수 읊었다오

『澤堂先生集』 [택당 이식(澤堂 李植) 1584~1647]  
택당선생집

河趙臺(하조대)

臺名河趙自何年(대명하조자하년) / 하조대란 이 이름 시작된 게 언제 인고  
形勝兼將姓氏傳(형승겸장성씨전) / 멋진 경치와 더불어서 성씨까지도 전해 오네  
屢屢千尋爭巨浪(회회천심쟁거낭) / 엄청난 물결과 맞싸우며 천 길 우뚝 솟은 누대  
灣回一曲貯深淵(만회일곡저심연) / 한 굽이 돌 때마다 깊은 연못 물 고였네  
初疑砥柱當橫潰(초의지주당횡괴) / 격류 속의 지주런가 처음에 눈을 의심타가  
更覺桑田閱變遷(갱각상전열변천) / 문득 상전벽해(桑田碧海)세월의 변천을 깨달았네  
從古爽鳩遺此樂(종고상구유차낙) / 상구씨(爽鳩氏)가 이 즐거움 물려준 뒤로부터  
幾人陳迹逐風煙(기인진적죽풍연) / 속인의 발길 그 얼마나 이 풍광을 좇았을꼬

『白軒先生集』 卷之十一 [이경석(李景奭) 1595~1671]  
백헌선생집 권지십일

自祥雲至河趙臺.路中記見(자상운지하조대.노중기견)

處處饒佳景(처처요가경) / 곳곳이 너무 좋은 가경이라  
徐行日暮歸(서행일모귀) / 천천히 돌아가니 해는 저물어.  
蒼松夾路立(창송협로립) / 푸른 솔 사이 길에 서있으니  
白鳥近人飛(백조근인비) / 백조는 내 옆을 날아다니네.  
漁戶依沙岸(어호의사안) / 어촌의 집들은 바닷가에 지어졌고  
鯨波濺客衣(경파천객의) / 큰 파도일어서 객의 옷은 젖었다오.

長風掃雲霧(장풍소운무) / 바람이 불어오니 운무는 살아지고  
 海月吐清輝(해월토청휘) / 바다에 뜬 달은 맑은 광채 토하네.

『鶴洲先生全集』卷之一 [김홍욱(金弘郁) 1602~1654]  
 학주선생전집 권지일

登河趙臺(등하조대) 在襄陽(재양양)

氣母當年巧琢磨(기모당년교탁마) / 당년에 기모가 교묘히 닦고 갈려서  
 荒巖白石勢嵯峨(황암백석세차아) / 황암백석의 기세는 울쭙불쭙하구나.  
 不知河趙何如者(부지하조하어자) / 하조는 알 수 없는데 어찌 같다하는가  
 吾欲同乘上漢槎(오욕동승상한사) / 은하수에 뗏목 띄워 내 같이 타려 한다.

『希菴先生集』卷之十六詩 峴山錄[上] 蔡彭胤仲耆甫著  
 희암선생집 권지십륙시현산록 상 채팽윤중기보저

河趙臺示雲丞(하조대시운승)

蒼蒼偃盖界官途(창창언개계관도) / 창창한 솔 그늘 덮인 관할 구역 안에  
 馬首鵝紅萬萬株(마수견홍만만주) / 말이 향하는 곳마다 진달래 엄청 많구나.  
 河趙臺空滄海闊(하조대공창해활) / 하조대의 하늘은 창해같이 트이었고  
 蓬萊島近彩雲孤(봉래섬근처채운고) / 봉래섬 근처의 채운이 고상도하구나.  
 督郵肯許迴金勒(독우긍허회금륵) / 찰방이 께히 허락하니 말머리 돌리고  
 醉守何妨枕玉壺(취수허방침옥호) / 취해 술병 베고 누운 수령 어찌 깨우리.  
 得出風塵是輕舉(득출풍진시경거) / 경거망동하여 풍진에 벼슬 얻었으나  
 神仙未必世間無(신선미필세간무) / 이 세상엔 신선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其二(기이)

風磴空中轉(풍등공중전) / 빙글빙글 바람이 공중으로 오르고  
 烟濤兩畔開(연도량반개) / 뽕안 물결에 하늘과 바다가 열리네.  
 春寒芳樹懶(춘한방수라) / 봄 날씨 싸늘해 꽃나무 게으르고  
 日暮遠帆催(일모원범취) / 날 저물어 멀리서 돛단배 서두네.  
 咫尺三山色(지척삼산색) / 지척의 온산은 삼색으로 물들고  
 層溟一酒杯(층명일주배) / 저 너른 바다는 한 잔의 술인가.  
 英雄有遺跡(영웅유유적) / 영웅의 끼친 자취 남아있고  
 長嘯意悠哉(장소의유재) / 긴 휘파람에 정취가 한없네.

## 하조대

### 『樗村先生遺稿』卷之五詩 [저촌 심육(樗村 沈鎭) 1685~1753]

저촌 선생유고 권지십일

#### 河趙臺(하조대)

石骨峻嶮海流(석골릉증한해류) / 해류를 막아 선 험준한 돌산에  
姓傳河趙至今留(성전하조지금류) / 하 조 성자가 지금까지 전하네.  
高厓大字欲磨滅(고애대자욕마멸) / 꼭대기의 세 글자 마멸되어 가는데  
去後居然三百秋(거후거연삼백추) / 삼백년이 지난 지금도 완연하도다.  
迥出松陰并馬來(형출송음병마래) / 빼어난 소나무 그늘에 나란히 걸어서  
春風倚醉上高臺(춘풍의취상고대) / 술기운에 봄바람 안고 높은 대에 올랐네.  
危岩突兀當空碧(위암돌출당공벽) / 위험하게 높이 솟은 바위는 벽공에 닿았고  
勢抱滄溟萬里迴(세포창명만리회) / 창해를 껴안은 기세로써 만 리에 뻗었구나.

### 『樗村先生遺稿』卷之五詩 關東錄

저촌 선생유고 권지십일

#### 河趙臺(하조대)

英豪初未遇(영호초미우) / 영웅호걸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닌데  
書劍昔遊斯(서검석유사) / 문과 무가 옛날에 여기서 놀았다네.  
草澤沉淪久(초택침륜구) / 가난한 선비는 오래전에 고경에 빠졌다가  
風雲際會奇(풍운재회기) / 풍운아는 끝내 기이하게도 만나게 되었네.  
千秋遺迹在(천추유적재) / 천년의 유적이 남아있으니  
百尺古臺缺(백척고대결) / 백 척의 고대가 일그러졌네.  
片石留荒字(편석류황자) / 돌 판에 크나큰 글자 남아있으니  
今人豈解誰(금인기해수) / 지금 사람 누가 뭐라 해독하려나.

### 『知退堂集』卷之二詩 [지퇴당 이정형(知退堂 李廷馨) 1549~1607]

지퇴당 집 권지이시

#### 登河趙臺(등하조대).次申企齋光漢韻(차신기재광한운)

一上高臺豁客愁(일상고대활객수) / 객의 수심 풀고자 혼자 높은 대에 오르니  
波間隱約見瀛洲(파간은약견영주) / 삼신산의 숨은 이야기를 파도에서 보누나.  
騷人物色分留少(소인물색분류소) / 시인이 읊은 물색이 적지 않게 남아있으려면만  
取次陳言記遠遊(취차진언기원유) / 차례차례 케케묵은 말로 기록하며 오래 놀랐다.



白軒先生集卷之十一 詩稿海上錄 自金剛歸路。仍作海上之遊。

백헌선생집권지십일 시고해상록 자금강귀로 잉작해상지유

河趙臺.與襄高兩使君把杯,見鯨魚露背噴波(하조대.여양고량사군파배,건경어로배분파)

策馬登臨萬(勿岡)峽(책마등림만인강) / 만길 산등성이 말을 몰아 올라서서

笛聲吹捲海雲長(적성취권해운장) / 피리부니 바다에 뜬구름은 걷히누나.

醉來欲喚群鯨起(취래옥환군경기) / 취한 김에 부르고자하니 고래 떼 솟구치며

噴雪層空舞夕陽(분설층공무석양) / 눈을 뿜듯 공중에 뿜으니 서양이 춤추누나.

湖陰雜稿卷之三關東日錄

호음잡고권지 삼관동일록

河趙臺(하조대)

本朝河崙,趙浚共遊之地,後人因以名臺云(본조하륜조준공유지지후인인이명대운)

凌虛臺上逢微雨(릉허대상봉미우) / 가랑비 맞으며 하늘을 능멸하듯 높은 대에 올라서

河趙峯頭看晚晴(하조봉두간만청) / 산꼭대기 하조대에서 저녁에 비개인 풍광을 보았네.

風色偶乘今夕好(풍색우승금석호) / 오는 저녁 경치는 짝지울대 없이 좋은데

登臨還想昔人情(등림환상석인정) / 대에 올라서니 옛사람의 정이 돌이켜지네.

名惟不朽傳悠久(명유불후전유구) / 생각건대 이름은 썩지 않고 오래도록 전해지는데

物固無窮亦變更(물고무궁역변경) / 아무리 단단한 물건이라도 오래되면 변경되더라.

只愧往來渾漫興(지괴왕래혼만흥) / 다만 부끄럽게 왕래하나 흥치가 흐릿하니

岷山羊子莫愁生(현산양자막수생) / 현산의 양호(羊祐)와 두예(杜預)의 생각이 나지 않는다.



초진산 봉수

봉수는 밤에는 횃불(燭, 봉)로, 낮에는 연기(煙, 수)로써 신호를 전달하던 통신 시스템이었다.

이 봉수는 군대의 이동 상황이나 적의 침입에 대한 정보를 임금이 있는 조정에 전해주던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이었다.

또한 봉수는 변방의 위급상태를 중앙에 알려주는 기능 외에도 국가의 치안상태를 알려주는 역할도 하였다. 1해(炬)의 봉수 신호는 아무 일도 없다는 의미였으므로, 당시의 한양 사람들은 통금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고 목멱산(현재의 남산)의 봉수가 올라가면 하루가 무사하게 지났음을 알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봉수는 신호를 보내는 곳과 받는 곳 상호 간에 약속된 신호 규정에 따라 통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신호 방식은 횃불이나 연기의 개수가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디지털 신호였던 셈이다.

● 봉수의 발전

우리나라의 봉수 제도는 삼국시대 초기부터 시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의하면 가락국의 김수로왕이 허황후를 맞이하기 위해 신하 유천간(留天干)으로 하여금 붉은 깃발을 휘날리는 배를 횡불로서 안내하였다는 기록에서 봉수의 유래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봉수 제도를 갖추게 된 것은 세종대왕부터이다.



세종대왕은 기존 중국 및 고려 시대 때 운영되었던 봉수 제도를 참고하여 각 도의 땅 보기 좋은 산봉우리에 연대(煙臺 / 일반적으로 높이가 7.5m, 둘레가 21m나 되는 단층 시설로서 주변에는 목책(木柵)을 쌓아 적의 침입을 막고, 봉군(烽軍)을 보호하던 역할을 했음) 또는 봉수대를 높이 쌓고 근처에 사는 백성 10여 명을 모집하여 봉졸(烽卒)로 삼았다. 봉졸은 3인이 1조로 구성되어 병기를 가지고 항상 그 위에서 주야로 정찰하며 5일 만에 교대하게 하고 전쟁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급히 알리도록 하였다. 초기 봉수제도의 시작이었다.

이후 세종대왕은 봉화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체계를 크게 개선하였다. 이는 봉졸 인원수 확대, 봉수를 4거에서 5거로, 전국의 봉수 노선을 1로(路)에서 5로(路)로 나눈 것 등이다. 이러한 봉수대는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조선 시대에는 전국적으로 약 643개의 장소에 설치되었다. 봉수의 전달 방식은 국경의 변방에서부터 내륙을 거쳐 서울 남산에 이르는 중앙집중식이었으나 때로는 중앙에서 국경지역으로 내보내는 분산식으로도 운영되었다.

봉수의 신호방식을 보면 평상시에는 1개의 화(봉수 신호)를, 적이 나타나면 2화, 경계에 접근하면 3화, 경계를 침범하면 4화, 접전 중이면 5화를 올리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면 안개나 비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과 같이 기상환경이 좋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연락을 취했을까? 문헌에 따르면 화포나 나팔 등과 같은 소리를 이용하여 전달하기도 하였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깃발이나 봉수군이 직접 다음 연락 지역으로 달려가 소식을 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인재(人災)가 발생하듯이 봉수의 운영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즉 적이 나타나거나 위협의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화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근무태만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봉수를 두고 도망간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조선 조정에서는 봉수군의 기강과 징계와 관련된 여러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숙종시대에 편찬된 [수교집록(受教輯錄)]에는 그 처벌규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적이 출현하거나 국경에 가까이 왔을 때 거화하지 않은 경우 70~100대에 이르는 장형(불기)에 처했으며, 적의 침입을 보고하지 않는

## 하조대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봉수군의 근무 태만은 날로 늘어났다.

하룬과 조준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 제5경 하조대



조선 정종 때 세워진 것이 시초인 육각정이 있고, 정자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그 빼어난 절경은 2009년 12월 명승 제68호로 지정됐다.

낙산사 의상대와 함께 일출의 명소로 잘 알려져 있고,  
드라마 '태조 왕건'을 촬영한 곳이기도 하다. ▽

# 오색석사

해설 이규환

## 오색석사와 그 옛터

### 유래

■ 양양군 서면 오색리의 남설악 골짜기에 경영되었던 사찰이다. 전하건대 신라 말 구산선문의 하나인 가지산파의 개산조사인 도의국사(道義國師)가 창건한 사찰이라고 한다.(정영호 박사)

※ 大韓佛教曹溪宗 宗祖(한 중파를 처음 세운사람)-道義國師

■ 고운 최치원선생(孤雲崔致遠先生:통일신라말기의 학자·문장가, 868년 12세 때 당나라에 유학하여 18세의 나이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의 고운집(孤雲集)에 의하면 오석사(五石寺)에는 오색석(五色石)이 있는 고로 오석사(五石寺)라 이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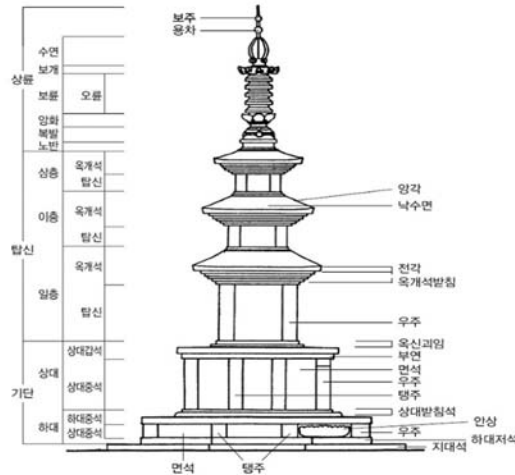


■ 오색석사는 그 옛날, 오색령을 넘나들던 나그네들의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했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까지 이름이 현곡사 였는데 현대에 들어 성국사란 이름을 어느 교수가 지었다고 전한다.(속초 향토사학가 박익훈 선생 낙수집에서)

### 유물·유적

■ 현재 오색석사 옛터에는 법당 자리와 많은 초석들, 신라 3층 석탑(보물 제497호)이 건립되어 있고 별도의 석탑재와 석사자, 장대석 등이 남아있으며 신라시대의 연화문·수막새·당초문·암막새 등 여러 가지 문양이 새겨진 평기와 등이 수습된 바 있다.





〈석탑의 세부명칭〉

■ 최근에 이르러 인법당(因法堂 : 불당(佛堂)이 따로 없는 작은 절에서 승려가 거처하는 방에 불상을 모신 곳) 1동을 지어 한 때에는 성국사(盛國寺)라 하였으나 사찰 규모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

■ 3층 석탑의 건조양식은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부를 형성하고 정상부에 상륜을 장식한 신라 식 일반형이다. 이 석탑은 9세기에 이르러 유행된 양식과 기법을 보이고 있어 오색석사가 법등을 크게 밝히고 있을 때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다른 기록에 현곡사(玄谷寺)가 오색천 상류에 있다고 하였는데 오색석사 옛터 이외에 상류에 올라 갈수록 골짜기 좁아졌으며 사찰을 건립할만한 대지가 없으므로 오색석사 사지를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무염선사 (無染禪師)**

■ 무염선사는 신라 애장왕 2년(801년)에 출생하여 진성여왕 2년(888년)에 입적한 당시 제일의 고승이었다. 성은 김씨, 호는 무량(無量) 또는 무주(無住)라고도 한다. 태종무열왕의 8세손이며 어려서부터 글공부에 뛰어나 해동신동(海東神童)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 12세에 출가하여 이곳 오색석사에 들어가 법성(法性)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때에 법성대사는 당나라

에서 소승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왔으며 무염에게 한문과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당나라 유학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 그 후 무염은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가려 했으나, 도중 풍랑으로 배가 흑산도(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에 기착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이후 헌덕왕 13년(821년)에 다시 정조사(正朝使)를 따라 당나라에 가서 성남산 지상사(至相寺)의 화엄강석(華嚴講席)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 때 당에서는 이미 선종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무염도 불광사(佛光寺)의 여만(如滿)을 찾아가서 선법을 문의하였다.

■ 무염을 맞이하여 선법을 논한 뒤 여만은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이와 같은 신라의 젊은이는 본적이 없다. 훗날 중국이 선종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신라로 가서 선법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칭찬하였다는 것이다.

■ 이후 무염은 마곡산의 보철(麻谷山寶徹)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 법맥을 이어받고 중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고독한 사람, 병고를 겪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폈다. 이렇듯 10여 년간 보살행을 실천하니 그의 이름은 당나라 전역에 퍼졌고 사람들은 무염을 동방의 대보살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 신라 문성왕 5년(845년)에 귀국하였는데 이때에 왕자가 성주사에 머물기를 간청하였다. 이후 무염은 성주사에 주석하면서 이 절을 구산선문의 하나인 성주산문의 근본도량으로 삼아 40여 년간 교화하였다.

■ 성주사지에서는 백제시대의 연화문, 수키와 등 백제의 유물들이 출토된 바 있어 백제 이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량임을 알 수 있으며 이때에 이르러 무염선사가 선문의 본산으로 삼을만한 곳이다.

■ 이후 문성왕, 헌안왕, 경문왕,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 등 6국왕이 모두 그를 존경하며 법을 물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불도를 구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 때 최고의 고승인 무염이 출가한 역사적인 사찰이 바로 오색석사인 것이다.



## 3.1만세운동유적비

해설 김양식

### 3.1 운동사

#### 가) 원인과 배경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민족의 저항으로 일어난 운동이다.

일본은 조선을 강점한 뒤 군사력을 배경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분야에서 폭력적인 억압과 수탈을 자행하는 무단통치(武斷統治)를 실시했다. 그리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였고, 조선태형령(朝鮮答刑令)으로 가혹한 신체적 처벌을 가하여 인권을 유린하였으며, 또한 토지조사사업과 회사령으로 경제적 수탈을 자행하였다. 이에 민중의 생활은 크게 악화되었으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지가 높아졌다

#### 나) 준비 과정

1)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외의 항일운동세력은 국제사회에 일제의 조선강점의 불법성과 조선독립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2) 상하이[上海]에서는 1918년 6~7월 무렵부터 여운형(呂運亨)·김구식(金奎植)·장덕수(張德秀)·김철(金澈)·선우혁(鮮于赫)·서병호(徐丙浩)·한진교(韓鎭敎)·조동호(趙東祐) 등이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을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이들은 그 해 11월 28일 윌슨 대통령의 특사로 중국에 온 크레인(Charles R. Clane)에게 독립청원서를 전달하였다.

3) 미국에서는 1918년 12월 안창호(安昌浩) 등이 조직한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가 중앙총회를 열어 이승만(李承晩)·민찬호(閔瓚鎬)·정한경(鄭翰景) 등 3인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출국을 허가하지 않자 1919년 2월 25일 이승만은 윌슨 대통령에게 조선을 일본의 학정에서 구할 것, 장래 조선의 완전 독립을 보증할 것, 조선은 당분간 국제연맹의 통치하에 둘 것 등의 3개조로 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4) 만주와 연해주에서도 1918년 12월 조소앙(趙素昂)이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해 여준(呂準)·김좌진(金

佐鎭)·황상규(黃尙奎)·박찬익(朴贊翊)·김교헌(金敎獻)·안창호·김규식 등 39명의 서명을 받아 이듬해 2월 1일 이를 발표하였다. 무오년(戊午年)에 작성되어 ‘무오독립선언(戊午獨立宣言)’이라고도 불리는 ‘대한독립선언서’는 무장투쟁으로 완전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독립군의 궤기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5) 1919년 1월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화조약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했고, 여운형은 만주와 연해주로, 선우혁·김철·서병호, 김순애(金淳愛) 등은 국내로, 장덕수는 일본으로 건너가 각지의 인물들과 협의하여 대규모 독립운동의 추진을 준비하였다.

6) 일본에서는 1919년 1월 조선인 유학생 학우회가 도쿄[東京]의 YMCA회관에서 웅변대회로 속여 모임을 갖고 최팔용(崔八鏞)·김도연(金度演)·백관수(白寬洙)·서춘(徐椿) 등 10인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해 독립선언을 준비하였다. 이들은 각지의 독립운동가들과 연계를 맺기 위해 송계백(宋繼白)과 이광수(李光洙)를 국내와 상하이로 파견하였고, 2월 8일 유학생대회를 열어 민족대회소집청원서와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7) 국내에서도 1918년 말부터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여 선우혁은 이승훈(李昇薰)·양전백(梁甸伯)·길선주(吉善宙) 등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만나 국외 독립운동의 소식을 전했고, 송계백도 최린(崔麟)을 통해 도쿄 유학생들의 소식을 손병희(孫秉熙)·최남선(崔南善)·송진우(宋鎭禹) 등에게 전했다. 천도교, 기독교와 여기에 한용운(韓龍雲) 등의 불교계 인사가 가담했다.

8) 학생들은 1919년 1월부터 박희도(朴熙道)와 이갑성(李甲成)에게 종교계의 계획에 합류할 것을 요구받고 일단 민족대표들과 합류했다. 또한 대한독립의군부, 민단조합, 광복회, 조선국민회 등의 비밀결사가 각지에서 결성되어 군자금 모금과 무기구입 등을 추진했다.

9) 1910년대에 민족개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에 설립된 사립학교, 서당, 야학 등은 항일운동을 조직하는 거점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0) 농민들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토지조사사업 반대투쟁, 삼림정책 반대투쟁, 각종 조세 반대투쟁 등을 벌였다.

#### 다) 주변국가의 정세변화

1)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전후로 세계정세의 변화도 3·1운동이 일어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의 패전으로 끝나면서 열강 간의 힘 관계가 재조정되어 국제정치의 큰 변화가 나타났다.

### 3.1 만세운동의 유적비

2) 독일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오스만제국 등에서 전제국가가 무너지고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수많은 국가들이 독립하여 새로 탄생하면서 민족주의가 고조되었다. 특히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 제정 러시아 치하의 압박을 받던 민족들에게 민족자결의 원칙을 선언하였다.

3) 이어 1918년 1월에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도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여 세계의 식민지 약소민족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 라) 전개 과정

1) 1단계(접화기) : 서울을 비롯해 평양·진남포·안주·의주·선천·원산 등의 주요 도시에서 독립선언서 배포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비폭력 투쟁이었으며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2) 2단계(도시 확산기) : 3월10일 전후로 전국의 함흥·수안·황주·중화·강서·대동·해주·개성 등 천도교와 기독교의 조직력이 강한 평안도·함경도·황해도의 주요도시들로 시위가 확산되었으며 상인과 노동자들도 철시와 파업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3) 3단계(농촌 확산기) : 3월 중순부터는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농촌에도 시위가 확산되었다. 시위의 양상도 몽둥이와 죽창 등으로 무장하여 면사무소와 헌병주재소 등을 습격하는 폭력투쟁으로 발전하였다.

4) 드디어 3월 1일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식의 거행장소를 군중들이 모여 있던 탑골공원에서 서울 인사동의 태화관(泰和館)으로 변경하고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29명은 오후 2시 태화관에 모여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학생인 서영환(徐永煥)을 통해 독립통고서를 조선총독부에 전달했다. 그리고 오후 3시 한용운(韓龍雲)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에 일본 경찰에 통고하여 스스로 체포되었다. 탑골공원에 모여 있던 학생들은 장소 변경에 당황하여 강기덕 등을 민족대표들에게 보내 항의하기도 했으나, 오후 2시 30분 무렵에 따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두 갈래로 나뉘어 종로·서울역·정동·이화학당·서대문 등을 행진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5) 3월 3일에는 고종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였다. 이들 가운데 많은 수가 시위운동에 참가했고 서울의 학생들은 원래의 계획대로 3월 5일 남대문역 광장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6) 3월 10일 이후에는 시위가 경상도·전라도·강원도·충청도 등 중남부 지방으로 확대되어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었다.



7) 청년과 학생들이 주도한 비밀결사는 전단과 격문 등을 제작·배포하여 투쟁열기를 높였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신문을 만들어 민족의 총결기와 결사항쟁을 촉구하기도 했다.

3·1운동 당시에 발간되었던 신문은 <조선독립신문>, <노동회보>, <반도의 목탁>, <충북자유보>, <혁신공보>, <각성호외보>, <광주신문>, <강화독립회보> 등 30여 종에 이르렀다.

8) 일제는 3·1운동을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는데, 화성 제암리·천안 아우내·정주 곡산·남원 광한루·익산 이리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는 등 학살을 저질렀다. 당시 일제의 통계에 따르면 3·1운동 이후 3개월 동안 집회횟수 1,542회, 참가인원 2,023,089명에 이르렀다. 진압과정에서 7,509명이 사망, 15,961명이 상해를 입었고 46,948명이 구금되었으며, 교회 47개소 학교 2개교 민가 715채가 전소되었다.

#### 마) 양양지방의 3.1운동과 만세고개의 유래

1)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일본인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2월 20일 밤에 현산공원에 이종만을 비롯 유림 20명이 모여 이석범외 10명이 인산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석범선생이 고종황제의 인산에 참례를 하고 서울의 만세운동을 직접 목격하고 독립선언서를 몰래 가지고 왔고, 양양감리교회 전도사 딸 조화벽이 개성의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개성만세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는데 독립선언문을 버선 속에 감추어 3월 말 대포항으로 들어왔다.

2) 이석범선생(당시 도천면)은 동생 이국범과 아들 이재훈, 이재형과 함께 1919년 4월 4일 장날을 기해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4월 3일 양양읍 선생의 고향 임천리 마을에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등을 준비하던 중 정보를 입수한 일본경찰에 의해 마을 주민 약 20여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다음날 4월 4일 손양면 가평리 마을 이장이던 함흥기열사는 경찰서로 군중과 함께 몰려가 잡혀온 이들을 석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경찰서장실의 화로를 집어 던지려다 일경의 칼에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이를 본 손양면 권병연열사가 다시 항의하자 일경의 칼에 맞아 쓰러지고 세 번째로 김학구열사가 뛰어들자 이번에는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3) 이에 격분한 도천면 이국범과 이재훈, 장세환을 필두로 4월 5일 물치 장날을 기해 약 1,300여 주민들이 합세하여 물치장터와 대포주재소 주변에서 가장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만세운동을 벌였고 양양으로 까지 나와 필사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양양문화원에서는 매년 물치장터에서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를 하고있다.

4) 또한 4월 9일에는 현북면에도 확산되어 면사무소에서 궐기대회를 한 후 양양 장마당에 들어가 만세운

### 3.1 만세운동유적비

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정보가 노출 되어 감시가 심하자, 그 계획을 변경하여 기사문리 경찰주재소를 공격하기로 하고 약 천여 명의 군중이 당시 관 고개를 넘어 기사문리 주재소 앞에서 일본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만세를 부르고 있었는데, 이때 언덕 밑 계곡 숲속에서 미리 잠복하고 있던 일본경찰의 발포로 인해 현장에서 9명이 피살되고 2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치열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후 8.15 광복 후 부터 이심전심으로 자연스럽게 관고개가 “만세고개”로 지명을 바꿔 부르고 있다.

5) 1919년 4월 3일~4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양양군 관내 7개면 132개 리에서 15,000명 이상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사망자 12명과 부상자 43명, 체포 142명, 그중 실형 73명, 태형은 수없이 많았다. <참고문헌:3.1운동사 조용희. 양양군지 참조>



물치만세운동 기념식(2013.4.10. 양양문화원주관)

# 선림원지 (禪林院趾)

해설 이철수

## 1. 양양의 불교 문화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이다. 백제는 침류왕 원년(384년)에 신라는 법흥왕 15년(582년)에 이차돈의 순교한 후 공인되었음을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렇듯 삼국시대 4세기 후반부터 불교가 수용되었는데 처음에 삼국이 그들의 왕도에서 포교되면서 점차 각 지방으로 알려져 전파되었다. 양양지역 불교의 전래는 신라 불교가 들어왔다. 고대부터 근현대까지의 문헌들에 의하면 낙산사, 영혈사, 명주사, 신흥사, 진전사 등 28개의 사찰이 유명한 대사들의 창건 유래를 가지고 창건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 폐사되고 현재까지 범등을 밝히는 사찰은 많지 않다.

## 2. 선림원지 -沙林寺(사림사) 강원도 기념물 53호

양양군 서면 황이리 미천골에 있었던 사찰로 일명 사림사라고도 부르는데 현재는 절터만 남아 있다. 선림원 절터 조사에 의하면 해인사를 창건한 순웅법사 등이 창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연대는 신라 애장왕 5년(804년)으로 추정된다. 이는 1948년 10월경 이 절터에서 솥을 굽던 사람들에게 의해 신라시대의 범종이 출토되었으며 이 범종의 주조연대가 애장왕 5년으로 밝혀져 이 절도 이때에 창건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범종은 [貞元(정원) 二十年銅鐘(동종)]으로 알려져있는데 1949년



11월 오대산 월정사로 옮겨져 사용하다 6.25전쟁때 소실되어 여러조각으로 파손된채 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이곳이 38선의 접경이므로 조사 후 범종만 옮겨왔을 뿐 조사연구를 하지 못하다가 1965년 수복지구의 문화재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곳의 유적 유물을 발견 조사하여 흩어진 유물들을 원위치로 옮겨놓았다. 도괴된 유물들을 수습하여 3층석탑(보물 444호), 석등(보물 445호), 홍각선사탑비(보물 446호), 홍각선사부도(보물 447호) 등이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원위치에 보존하게 된 것이다.

창건 당시에 이 절은 화엄종의 사찰이었는데 그후 경문왕 무렵에 弘覺禪師(홍각선사)가 이 절에 주석하게 되었고 현강왕(875~885년)때 크게 중창하여 선종의 도량으로 많은 교화를 행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선림원지

홍각선사는 신라 헌강왕 때의 이름난 선사이나 그의 탄생과 입적연대는 밝혀지지 않았다. 홍각선사에 관한 모든 사항이 적혀있는 석비가 미천골의 절터에 있었으나 파손된 상태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碑題(비제)는 弘覺禪師碑銘(홍각선사비명)이라 하였는데 碑身(비신)이 파손되고 마멸되어 판독이 어렵다. 그러나 홍각선사가 書史(서사)에 해박하며 불경을 깊이 연구한 뒤 영산의 선석을 두루 찾아다니며 수행하였고 수양이 깊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법도를 구하였던 당시의 고승이었다는 사실만은 판독하여 알 수 있다. 1985년 동국대학교 발굴조사단의 발굴조사를 통해 금당터로 추정되는 정면 3칸, 측면 4칸의 거닐지가 확인되었다. 9세기경 산사태로 사찰이 매몰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절터는 1982년 11월 3일 강원도 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었다.

### 3. 3층석탑(보물 444호)

통일 신라시대의 석탑 양식을 하고 있으며 석탑의 전체 높이는 약 5m, 2층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부를 올리고 상륜부가 일부 남아 있는데 상부 기단의 면석에 조각된 팔부신중상을 비롯한 전체적인 구성과 조형이 통일신라시대의 3층석탑의 양식을 보이고 있다.



기단부는 2층으로 구성하였고 하부기단의 지대석은 모두 6매의 판석으로 짚으며 하대중석갑석은 양 끝에 우주와 중앙에 탕주를 둔 형식으로 상부기단과 동일한 구성을 보이는데 하대갑석은 6

매의 판석으로 상부는 둥근 형태로 2단으로 깎아 상층기단의 중석을 바로 받고 있다.

상부기단 중석의 면석에는 각 면에 구름위에 앉아있는 팔부신중상을 2구씩 돈을새김하였고, 상대갑석은 4매의 판석으로 아래에는 부연을 조각하고 상면에는 하대갑석과는 달리 각진 형태로 2단을 깎아 탑신석을 바로 받고 있다.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을 각각 1석으로 쌓았고 탑신에는 모두 기단부 중석과 마찬가지로 양모서리는 기동형식으로 깎았고 옥개석은 받침을 5단으로 하고 처마는 수평을 이루면서 추녀끝에서 약간 올라가면서 낙수면은 완만한 물매를 이루는 전형적인 양식으로 추녀부분에는 풍경을 달았던 구멍이 남아 있다. 상륜부는 방형의 노반 위에 일부 남아 있는 원형의 보륜을 올렸는데 노반의 중앙에는 직경 10.5cm의 찰주공이 있다. 상단부에 새겨진 팔부신중상은 진전사지 삼층석탑과 유사한 조형을 보여준다.

### 4. 석등(보물 445호)

팔각형을 기본으로 기단부가 상·중·하대로 구성된 통일신라시대 팔각석등으로 1966년 9월 21일 보물



제445호로 지정되었다. 전체 높이는 2.92cm인 이 석등은 4매의 사각형 지대석 위에 기단부의 상·중·하대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며 중대 부분이 북 모양의 笏柱(간주)로 장식된 고북형 석등으로 상부에 화사석과 옥개석 그리고 보주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 통일신라시대 팔각석등의 기본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기단부의 하대는 맨 아래 팔각형으로 각 면에 안상을 음각한 하대받침을 놓고 그 위에 중앙에 귀꽃 장식을 한 8개의 복련을 조각하고 복련상부는 1단 중인 형태로 구름모양을 새기고 다시 1단 중인 팔각형 중대받침을 모두 1개의 석재로 구성하였다. 중대는 중간부분에 띠를 두르고 위 아래로 원형형태의 단을 구분하며 넓혀가는 고북형으로 중간에 타원형 꽃잎이 8곳에 배치된 띠를 두르고 위는 대칭적인 연화판을 새겼고 위 아래의 간석 상·하단에는 권운문이 있으며 상대석에는



복판팔엽의 양련이 있다. 상대석 상부에는 팔각의 킴대와 화사받침을 2단으로 구성하고 있다. 화사석은 8각형으로 4개의 장방형 화장을 뚫었으며 화장을 비롯한 팔각형의 각 면 아래에는 가로로 장방형 형태로 액을 마련하고 그 안에 안상을 새겼다. 옥개석은 팔각지붕형식으로 처마선이 직선화되고 낙수면이 급한 물매를 이루고 있으며 전각에는 화려한 귀꽃을 장식했는데 일부는 없어진 상태다. 팔각의 합각은 사선이 뚜렷하고 옥개석 상부에는 복연무늬를 새겼고 그 위에 상륜부를 올렸는데 상륜부는 작은 원형의 연화대석만이 남아 있다. 석등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사한 양식을 보이는 석등으로 전북 임실 용암리 석등(보물 제267호), 실상사 석등(보물 제35호), 전남 담양 개천사지 석등(보물 제11호)이 있어 이들 석등이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본다. 특히 891년에 조성된 개천사 석등과는 아주 유사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 5. 홍각선사탑비(보물 446호)

거북모양의 귀부와 용이 어우러진 모양의 비석 머릿돌인 이수만 남아 있고 비신은 파괴된 홍각선사탑비는 비문을 통해 신라 헌강왕 12년(886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시대 탑비로 1966년 9월 21일 보물 제 446호로 지정되었다.

거북이 형상을 한 비석의 하단부인 귀부분의 높이는 73cm, 이수부의 높이는 54cm로 비신은 대부분 파괴되고 일부만 남아 국립춘천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2008년 비신부를 복원하여 전체적인 형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홍각선사는 합천 영암사와 여주 고당사 등지에서 정진하였는데 이름은 利觀(이관), 시호가 弘覺(홍각)이다. 귀부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거북형상을 받치고 지대석은 모서리를 곡면처리 하였으며 귀부의 육각 거북등무늬는 뚜렷하게 새겨져 있고 정수리 부분에 긴 홈이 있어 용뿔을 장식했을 것으로 추정



## 선림원지

된다. 네 발의 끝은 구름모양으로 등 위로 올라가 있으며 꼬리는 오른쪽으로 18도 돌아 위쪽으로 향하다 약간 오른쪽으로 꺾여있다. 비신 받침에는 안상을 음각하였는데 정면에는 2개, 배면에는 3개, 좌우 측면에는 1개씩 배치하였고 아래에는 구름무늬를 위에는 연꽃무늬를 새겼다. 탑신부는 원래 없었으나 근래에 복원하였고 이수받침에 연꽃무늬를 새겼으며 비머리는 반응과 소용돌이형태의 구름무늬가 뒤섞여 있다. 이수의 전면 중앙에 사각형의 제액을 만들고 그 안에 홍각선사비명이라는 글씨를 새겼는데 해서에 가까운 전서체이다. 전액의 글씨는 崔徑(최경)이 쓰고 비문은 雲澈(운철)스님이 왕희지의 글씨를 모아 새겼다고 하는데 1,340자 정도로 추정되는 비문 중 현재까지 약 710자를 확인하여 비문에 복원하였다. 탑비의 건립연대는 홍각선사가 880년에 입적하자 헌강왕 12년(886년)에 왕명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한다.



### 6. 선림원지 부도(보물 447호)

홍각선사탑비와 더불어 홍각선사의 부도로 알려져 있는 9세기경 팔각원당형 부도로 현재 기단부만 남아있으며 1966년 9월 21일 보물 제447호로 지정되었다.

기단부만 남아있는 이 부도는 사각형 지대석 위에 팔각형의 하대석을 올렸는데 각 면에 안상을 새기고 번갈아가며 안상 안에 사자 한쌍을 조각하였다. 중대괴임은 아래 받침을 겹연꽃을 둥근 모양으로 새겼고 위는 팔각으로 모서리가 명확하게 꺾여있다. 중대와 상대석은 하나의 석재로 구성되었으며 중대는 위로 갈수록 약간 줄어드는 원통형으로 용의 수염, 입술, 햇바닥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상대석은 중대석보다 큰 전형적인 양식으로 원형의 복련 받침을 두고 그 위에 팔각형의 탑신괴임이 있다. 산사태로 묻혀있던 것을 1965년 복원했는데 현재보다 약 50m 위의 뒷산 중턱에 있었다.



## 양양현산문화제 학습자료 I

### 1. 유래

고려 목종10년(1007년) 양주성을 축성 외적의 침입을 수호하는 기지로 삼고 성황사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순국영령을 위로하고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성황제를 지냈다.

조선시대 선조 25년(1592년)부터 매년 단오절에 장군성황신을 수호신으로 성황제를 지냈는데 제주는 고치물샘터의 물을 마시고 제수를 만들 때에도 이 물을 사용했고 경비병 2명이 지켰다고 한다.

### 2. 진행

#### (1) 전야제

##### ① 고치물제와 장군성황제

전야제 행사는 제주(양양군수)가 고치물제와 장군성황제를 지내고 신주[최영장군 신위]를 행사기간동안 행사장으로 모신다.

※ 여기서 최영장군 신위를 모시게 된 동기는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친 장수로서 고려를 수호한 인물인데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후 무속신으로 좌정되어 신격으로 추앙 받는다.

##### ② 시가행진

시가행진은 가장행렬인 양주방어사행차와, 대포수군만호 행차를 재현하고자 하는데, 양주방어사는 고려중엽에 거란병의 침입을 대파하여 양주방어사를 설치했고, 대포수군만호령은 조선 성종 때 조산에 대포수군만호령을 설치 해상방어기지로 삼았는데 대포는 군선이 정박하는 항 포구이며 이 만호영의 기지는 조산리의 동명서원 부근에 있었다.

시가행진 후 각종 행사인 군민노래자랑 인기가수초청 공연 연극공연 사물놀이패 공연 불꽃놀이 등이 펼쳐진다.

## 양양현산문화제

### (2) 개막식 및 민속경기

#### ① 개막식

둔치운동장에서 기미독립만세운동 제현 및 군민문화상시상식과 대회사등이 있는데 우리고장은 삼일 만세운동이 가장 맹렬하게 일어난 고장이다.

#### ② 민속경기

특히 민속시연 중 수동골 상여소리와 상복골 농요는 2011년 전국 민속예술축전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각각수상 받았으며, 20여 종목의 민속경기가 이어진다.

#### ③ 부대행사

그밖에 강원도동구리전통민요 경창대회 및 각종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 (3) 군민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는 육상, 축구, 배구 등이 있습니다.

### (4) 전통민속체험장

전통민속체험은 탁장사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새끼꼬기등이 있습니다.

## 현장학습 자료 II

### 1. 정의

우리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군민의 뜻을 반영하여 1979년 '제1회 현산문화제'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현산문화제는 발전을 거듭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매년 단오를 전후하여 예전부터 계승되어 전해 내려오는 제례행사와 전야제, 각종 민속놀이 등으로 온 군민이 참여하여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을 전승하는 뜻 깊은 문화행사인 양양현산문화제는 전통과 예향의 맥을 이어가는 양양군민의 화합의 축제장이다.

(주) 예향 : 예술을 즐기는 사람이 많고 예술가를 많이 배출한 고을

자료 : 양양군지

※ 2013년부터는 현산문화제위원회에서 기존의 현산문화제를 "양양현산문화제"로 명칭을 조정하였다

## 2. 행사 특성

선사문화, 불교문화, 호국문화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계승하고 향토문화의 고유한 독창성과 특성을 살린 양양 현산문화제는 장군 성황제를 비롯 양양 기미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 신석기인 가장행렬, 제등행렬, 양주방어사 행차, 대포수군만호 행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전 및 영신 행렬이 있다

### (1) 선사문화

우리 고장에는 선사문화의 시대별유적이 넓게 분포되어 하나의 큰 선사문화권을 이루고 있는데 손양면 도화리의 구석기유적과 그 중에서도 신석기인 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먼저 취락을 이루고 살았던 오산리 신석기 유적지의 주거지와 그리고 청동기 철기시대의 유적지도 있어 선사시대에서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이지역의 문화를 이루고 살았다.

### (2) 불교문화

우리고장은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부터 불교문화가 가장 크게 번창하였고 낙산사, 영혈사, 오색석사, 선림원, 진전사 등이 우리나라에서 고승대덕을 지칭하는 큰 스님들(의상, 원효, 무념, 도의, 홍각 등)에 의하여 창건되었으며 이 큰 스님들이 주석을 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낙산사는 세계 8대 관음성지의 한곳으로 고려를 거쳐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궁중불교의 도량으로 각광을 받았으며, 오늘의 조계종을 신라로 연결시켰을 때 진전사로 직결된다. 따라서 이곳의 불교문화야 말로 오늘의 정통성을 찾을 수 있는 원류가 되는 것이다.

### (3) 호국문화

우리 군은 서쪽으로는 험준한 태백산맥이 가로놓여 있으며 동쪽으로는 외침으로부터의 취약한 긴 해안이 이어져 영동에서 영서로 넘어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많은 외침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초에는 양주성을 축성하여 향토수호의 기지로 삼았고, 고려 중엽에는 거란병의 침입을 대파하여 양주방어사를 설치하였다.

그 후 조선 성종때에는 조산에 대포수군만호영을 설치 영동지방의 해상방어까지 맡은 군사요충지가 되었다.

구한말에는 의병 항쟁을 비롯한 기미 독립만세운동으로 가장 맹렬한 구국 항쟁이었으며, 8·15 해방 이후에는 반공 운동의 진원지가 되었고 6·25 동란 때에는 국군 6개 사단이 창설되기도 하였다.

### (4) 민속문화

우리지역에 전승되는 민속놀이에는 농경사회의 생활상과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특히 탁장사놀이, 귀애파기, 패다리농기, 멸치후리기 등의 민족 유산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놀이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질 높은 민족문화로 가치를 더하고 있다.

## 3. 행사개요

본 고장은 예로부터 험준한 준령이 남북으로 뻗어 동서를 가로막고 중동부의 변방인 영동에서 영서로 넘어가는 길목에 자리하여 술한 전란을 겪게 되자 서기 1007년(고려 목종 10년) 현재 양양읍 성내리를 중심으로

## 양양현산문화제

양주성을 축성 외적의 침입을 수호하는 기지로 삼고 순국영령 위로와 국태민안, 풍년을 기원하는 장군성황제를 봄, 가을로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선조 25년) 이후부터는 매년 5월 5일 단오절의 기하여 장군성황신을 수호신으로 성황제를 지내고 굿을 성대하게 하였는데 제주는 고치물(서문리 양지마을쌈물)을 마시고 제수를 만들 때도 사용하였고 샘터에는 항상 경비병 2명이 지키고 있었다고 구전으로 전해진다.

그 후 성황사는 일제 전통문화 말살정책으로 철폐되었으나 성황제는 은밀히 지내오다가 1920년부터 단양회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단오절을 기하여 대제전으로 발전 성황제로 지내고 남대천변에서 5, 6일씩 별신굿을 하고 관동축구대회를 비롯 각종 민속행사를 개최하여 영동은 물론 관동지방의 명실상부한 대 행사로 베풀어졌다.

1945년 8·15 해방이 되면서 불행하게도 3·8이북의 북한치하에 들게 되면서 미신타파라 하여 강제로 중지시켰으나 성황제는 계속 은밀히 지내오다 6·25전후 1964년 행정수복이 되면서 다시 마을제(祭)로 소규모 성황굿이 전승되었다.

1968년 군민들이 성미(誠米)로 성황제를 매년 5월 5일 단오제로 지내오다 향토고유의 전통문화제로 제정하기 위하여 1979년 2월 5일 현산문화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통성을 찾아 전래의 민속일인 음력정월 대보름을 축제로 하여 제1회 현산문화제로 명칭을 정하고 전야제와 본제를 행 하였으나 정월대보름은 계절적으로 범국민적인 축제행사를 하기에는 적합지 못하여 1980년부터 이 고장의 기미만세 운동시 지방으로는 가장 치열했던 항거지이며 많은 열사가 순국한 점을 기려 3월 1일로 정하여 4회 제전까지 행하였다.

1983년 제5회부터 이 고장의 기미만세 운동의 역사성에 바탕을 두어 함흥기 의사가 일경의 서장실에 뛰어 들어가 항거하다가 장열하게 순국하면서 만세운동이 불이 붙기 시작한 실질적인 발발일인 4월 4일로 변경하여 제7회부터 제11회까지 거행하여 오다가 제12회부터는 기후와 농사철을 감안 뿌리 깊은 전통축제였던 단오절을 전후하여 일자를 정하고 명실공히 전 국민이 동참하는 향토축제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4. 행사내용

- 장군성황제 : 고치물제, 성황제
- 전야제 및 식전행사 : 사회단체시가행진, 청성풍물패, 어린이농악 및 고적대, 청사초롱, 한가람풍물패, 가장행열(양주방어사행차, 대포수군만호행차, 오산리신석기문화재현), 양고관악부행렬, 영신농악행렬
- 개막식 : 양양기미만세운동재현, 군민문화상시상, 대회사 등
- 식후행사 : 헬기축하비행, 통일염원풍선날리기, 농악, 특공무술 등
- 민속놀이 : 물동이이고달리기, 그네뛰기, 목침뺏기, 어린이세발자전거대회, 투호놀이, 씨름대회, 한궁경기, 탁장사놀이, 전통혼례, 어린이굴렁쇠 굴리기, 짚단멀리던지기, 민속시연(입암농요, 상복골농요, 수동골상여소리), 율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장기대회, 농악경연대회(읍면별), 줄다리기 등
- 민속체험장 : 제기차기, 닭싸움, 목침뺏기, 탁장사놀이, 투호놀이, 율놀이, 널뛰기, 한궁경기, 새끼꼬기,



그네뛰기, 비석치기,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파대놀이, 물동이이고달리기, 다담이질 등

## 사진으로 보는 양양현산문화제 행사

○ 장군성황제 (고치물제, 성황제)



고치물제



성황제

○ 전야제 및 식전행사 (양주방어사행차, 오산리신석기문화 재현)



양주방어사 행차 재현



오산리신석기문화 재현

## 양양천산문화제

○ 민속놀이 (전통혼례, 수동골 상여소리)



전통혼례



수동골 상여소리

○ 민속체험장 (목침뺏기, 그네뛰기, 물동이 이고 달리기, 널뛰기 등)



목침 뺏기



그네뛰기



물동이 이고 달리기



널뛰기

## 2013 문화학교 소개

### 문화학교 교실별 수료자

교 실 명	강 사	수 료 자
합 계	10 명	123명
한 시 교 실	이 종 우	김경일외 13명
서예교실(한문)	함 연 호	손인환외 20명
서예교실(한글)	김 광 희	김재옥외 9명
한국화교실	정 영 택	이순애외 9명
민 요 교 실	김 봉 신	고춘옥외 13명
기 타 교 실(초급)	강 명 근	고혜진외 2명
기 타 교 실(중급)	강 명 근	권옥수외 9명
사물놀이교실(초급)	홍 이 표	남춘란외 3명
사물놀이교실(중급)	홍 이 표	손영애외 7명
색소폰교실	이 명 재	윤여준외 10명
난 타 교 실	주 동 진	김숙연외 7명
수채화교실	김 영 덕	박현희외 9명

### 모범상 수상자

교 실 명	성 명	교 실 명	성 명
한 시 교 실	김무풍	기 타 교 실(중급)	정미애
서예교실(한문)	이명근	사물놀이교실(초급)	남춘란
서예교실(한글)	김영순	사물놀이교실(중급)	박종량
한국화교실	이상옥	색소폰교실	최종원
민 요 교 실	오연옥	난 타 교 실	송경숙
기 타 교 실(초급)	고혜진	수채화교실	박현희



# 2013년도 문화학교 수강생 수상 및 공연 내역

강좌명	수상 & 공연 내역	강좌명	수상 & 공연 내역
한글서예	대한민국단오서화대전 특 선 : 이희숙, 김영순, 박경숙, 김재옥 입 선 : 이근천, 이희숙, 김영순	한문서예	운곡서예대전 특선 : 손인환, 신동우 입선 : 김주용
	대통령상님의 침묵 서예대전 특 선 : 김영순, 박경숙, 이 희숙 입 선 : 이근천, 김재옥		민요
한 시	전국공모강원서예대전 특 선 : 김영순 입 선 : 이근천	기 타	◇ 제3회 강원도 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 우수상 ◇ 장애인대회 대상 ◇ 속초설악소리 개인(장려상), 단체(금상) ◇ 양양현산문화제공연 ◇ 양양장터공연 ◇ 송이축제공연 ◇ 제8회 태백아라레이대회 금상
	대한민국 운곡서예·문인화대전 우수상 : 김재옥 삼체상 : 이희숙, 이근천 특 선 : 박겨숙, 김영순 입 선 : 김영순		◇ 양양현산문화제공연
한 시	한국한시협회 백일장 참 방 : 함연호 가 작 : 김주호, 황광수 장 려 : 김경일, 김무풍, 추종삼	사물놀이 (중급)	◇ 신년 하례식 공연(1.3) ◇ 오색그린야드공연(코스타리카 지적장애인 평창스페셜 올림픽 선수단 환영식)(1.27) ◇ 국악수련원 개관식 공연(4.2) ◇ 로타리 어버이잔치공연(4.13) ◇ 시장공연(5.4) ◇ 싸이클대회공연(5.14) ◇ 양양현산문화제공연(6.21) ◇ 제3회 강원도 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공연(6.22) ◇ 중국관광객팀공연(6.25~7.23) ◇ 송이축제마라톤대회공연(10.6)
	제10회 상주전국한시백일장 가 작 : 추종삼, 황재권		수채화
한문서예	강릉단오한시백일장 가 작 : 김구래	한문서예	
	시협풍아 제31회 가 작 : 김형래, 이근천		
한문서예	조선과거재현 한시백일장(서울시청) 병과급제 : 황광수	한문서예	대한민국미술대전(서예) 입선 : 윤정희
	님의 침묵서예대전 특선 : 손인환		
한문서예	동아국제미술대전 금,은상 : 윤정희	한문서예	대한민국미술대전(서예) 입선 : 윤정희





# 겨울철 건강상식, 겨울철에 주의해야할 질환들

## 1. 심장마비와 뇌졸중

겨울철은 여름보다 심장마비가 50% 이상 많이 발생합니다.

심장은 추운 날씨에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수축되고,  
이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면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갑자기 수축된 혈관으로 혈액의 통로가 좁아지면서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혈관질환은 중장년층에서 쉽게 발생하기 쉬운 질환입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게 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특히 체온조절이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지방이나 근육이 적으면 몸에 열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중년이나 연세가 많으신 70대 이상의 분들은 추위에 견디기 힘들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팔이나 다리 손가락 등의 말초 혈관까지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는

말초 혈관질환도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대표적인 혈관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 겨울철 건강상식, 혈관질환 예방법 ※

1. 옷을 따뜻하게 입고 체온을 유지해줍니다.  
얇은 옷을 여러겹 겹쳐 입으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2. 급격하게 온도나 혈압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목욕탕 등을 주의합니다.
3. 과로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면을 취해줍니다.
4. 나트륨이 많이 든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 않습니다.
5.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걷기, 수영 등) 운동을 해줍니다.

## 2. 비타민 D 결핍증과 우울증

겨울철에는 여름철에 비해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비타민 D가 결핍되기 쉽게 되어 여러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관절염이나 치매, 심장질환과 파킨슨병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구루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비타민 D 결핍이 뇌손상을 가져와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떨어뜨리고 다른 인체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겨울에도 하루 20분 정도는 햇볕을 쬐어주어 비타민D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햇빛은 비타민D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면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햇빛을 잘 받지 못하면 무기력해지고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시어 신체와 함께 정신적인 건강도 지키시고 우울증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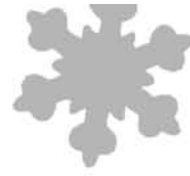
※ 겨울철 건강상식, 비타민D가 많이 들어 있는 음식 ※

간, 우유, 고등어, 계란, 연어, 치즈

## 3. 항문·비뇨기계 질환

앉아서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질환 중 대표적으로 치질이나 치핵 등의 항문질환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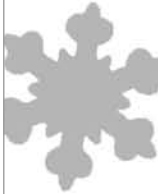


항문이나 비뇨기계 질환은 4계절 중에 특히 겨울철에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근육과 피부가 수축되고 혈관을 압박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몸속 수분이 땀보다 소변으로 배출되어 요실금이나 요로감염도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질환입니다.  
소변량이 겨울철에 증가하는 것은 어느정도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루 8번 이상의 소변을 보는 것은 빈뇨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빈뇨현상은 과민성 방광염으로 발전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겨울철 건강상식, 항문·비뇨기계 질환 예방법 ※**

1. 아침, 저녁으로 5분정도 좌욕을 해줍니다.
2. 충분한 물을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3. 용변을 볼 때에는 5분 이상 앉아 있지 않도록 합니다.
4. 지나친 음주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5.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많이 섭취합니다.
6. 휴지 대신 비데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데 수온은 38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7. 녹차나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지 않고 너무 늦은 시간 섭취를 피합니다.

[출처] 겨울철 건강상식





## 겨울철 건강상식, 심장병 예방습관

### ◆ 보온을 습관화하자!

추운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단시간 밖에 나갈 일이 있어도 반드시 따뜻한 외투를 입어 보온에 힘써야 해요. 특히 머리를 찬 기운에 노출시키면 체온을 빨리 떨어뜨릴 수 있으니 방한 모자를 써주면 체온 관리에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아침이나 새벽 찬바람을 쐬는 것도 절대 금물이에요.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을 가진 분들이나 노인, 흡연자 등은 추운 아침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어요.

### ◆ 근력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

운동의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겨울철 운동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운동시간은 비교적 따뜻한 낮에, 운동장소도 실내가 좋으며 운동하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따뜻한 옷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해요.

또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는 걷기나 산책, 수영, 자전거타기와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으며, 운동의 강도는 약간 숨이 차거나 등에 땀이 날 정도로 하루 20~60분씩, 일주일에 5~7일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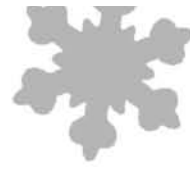
### ◆ 채소, 과일 섭취 듬뿍

지방 함량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이 많이 포함된 규칙적인 식단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체중을 일정하게 관리해주는 노력도 필요해요.

### ◆ 흡연, 과음은 만병의 근원

흡연은 혈압을 높이는 동시에 혈액 응고 성향도 증가시키는 등 심장질환의 위험율을 높입니다. 또 뇌졸중에 걸릴 위험도 비흡연자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죠.

과음 또한 심장에 좋지 않은데요. 과음은 심장 부정맥 발생은 물론 관상동맥의 경련성 수축을 유발한



다고 해요. 이에 과음이나 흡연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음주와 흡연 후 아침에는 추운 공기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합시다.

◆ **충치, 잇몸병 심혈관 질환 악화**

충치나 치주질환이 심장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치 균인 류탄스균이 잇몸 상처를 통해 혈관을 타고 심장에 도달하면 세균성 심장 질환인 심내막염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치주질환은 국내 5대 사망 원인 중 심장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세 가지와 관련돼 있다는 보고 있을 만큼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심장병 환자는 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 [가족여행] 체험마을



### (1) 탁장사마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 2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은 주변경관이 산성(山城)을 이룬 듯한 분지형으로 기름진 전답(田畓) 수 십 만평이 마을입구에 있으며 오대산, 응복산으로 둘러내리는 여러 대소 계곡물이 합수되어 평탄한 하상이 넓게 펼쳐져 물고기가 많아 붙여진 어성전리(漁城田里)에 위치해 예로부터 넉넉한 농촌의 인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 (2) 해담마을

양양군 서면 서림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은 깊은 계곡과 푸른 숲을 끼고 있는 농촌마을로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인진숙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2005년에는 양양군 최초로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선정되었다. 서림리 마을 휴양지에서는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모여 즐겁고 건강한 여름 피서를 보내는 곳, 바로 자연 속 건강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짚풀공예 만들기, 돌탑쌓기, 뗏목타기, 은어, 산천어 맨손잡기, 아르고[ARGRO] 등 고향의 향기와 해담마을만의 이색적인 체험이 있다.

### (3) 금플애마을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에 위치하고 있다. 산 좋고 물 맑기로 유명한 연어가 소상하는 남대천의 상류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아름다운 마을이다. 이 마을은 송이가 나고 은어, 산천어가 노니는 자연이 숨쉬는 농촌마을로





여름이면 계곡물이, 가을이면 송이체험이 이뤄지는 농촌생활 체험마을이다. 양양송이는 산림청 지리적 표시 1호로 등록될 만큼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송이의 주생산지가 바로 원일전리가 위치한 현북면 일대이다. 마을에서 생산된 송이는 매년 국내외 송이 애호가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2002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로 다리가 끊어지고 논두렁이 쓸려나가는 등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나 마을 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교각을 복구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 마을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처음으로 마을축제인 제1회 금풀애마을 들꽃축제를 개최하였다.

#### (4) 석교리마을

양양군 강현면 석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은 설악산 대청봉 아래 첫 마을로 넓은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마을 앞으로는 넓은 평야가 있는 우리나라 전형적인 아름다운 농촌풍경을 간직한 마을이다. 마을 뒤로는 설악산 자락이 굽이굽이 펼쳐지고 마을 앞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흘러내리며, 계곡과 마을 주변으로 송림이 우거져 아름답다. 송림과 송림사이 한옥과 새로 지은 아담하고 예쁜 별장 같은 집들이 나즈막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뤄 설악산 아래 아름다운 농촌마을의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마을 입구에는 효성 지극한 현모양처의 정신을 기리는 ‘경주이씨효열각’이 있다. 마을에서 좀 더 오르면 진전사지 등이 있어 전통문화와 정신을 간직한 마을이기도 하다. 상류에는 둔전저수지가 있으며, 300여 년 전부터 대문터라 칭하다가 조선 후기 행정구역 개정시 노고천에 큰 돌다리가 있어 석교리라 하였다.

#### (5) 남애어촌체험마을

양양군 현남면 남애 2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은 바닷물이 맑고 깨끗하며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빨간색, 하얀색 등대가 명물이 되어 항구의 운치를 더해주는 마을이다. 해안에 즐비하게 놓여진 바위섬과 방파제로 연결된 두 개의 섬, 섬마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해송, 섬 안으로 크고 적은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하고 있는 모습과 항구 밖으로는 3개의 해수욕장이 멀리서 보면 지중해의 어느 해변을 연상케 하는 이국적이고, 그림같이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추억의 영화 <고래사냥>, <호텔리어>, <그 여자> 등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항구에 정박한 어선들과 귀항을 서두르는 어선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이 장관이며 영동고속도로 현남 인터체



인지와 가장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선상일출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일출명소이다.

### (6) 동호리마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동해바다가 있고 서쪽으로는 양양국제공항이 있으며 청정 하천인 남대천과 인접하여 휴양과 교통의 중심마을로 7번국도와 인접해 있다. 해수욕장이 유명하여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피서를 즐기고 있으며 관광객유입 및 마을 홍보를 위해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멀치후리기를 포함한 다양한 마을축제를 양양송이축제와 연계(鏈繫)하여 개최하고 있다. 마을 주변에는 해산물과 섭을 이용한 횡집이 들어서 있고 낙산 및 양양의 배후에 위치하는 지리적 여건에 맞춰 펜션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마을이다.

### (7) 학포리마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에 위치하고 있다. 동해바다에서 1km 안쪽으로 들어서있는 곳으로 흰 학이 많이 모여드는 강어귀[개]라는 뜻을 지니는 마을이다. 동쪽으로 고즈넉한 갈대숲의 쌍호, 마을을 감싸는 울창한 송림과 대나무 숲, 야트막한 골짜기를 따라 웅기종기 들어선 마을, 학이 날개로 품은 마을처럼 아늑한 농촌이다. 마을에는 상업적인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유원지, 음식점이 없다. 도시화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아 청정한 자연환경과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음의 고향과 같은 농촌마을이다. 학이 모여든다는 뜻을 지닌 학포리 마을의 남쪽에 지명의 뜻과 상통하듯 영동지역의 항공 관문인 양양국제공항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을의 어귀에 해당하는 쌍호(동해안 석호의 하나) 일대는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이 발굴된 오산리선사유적지로 8천 년 전인 신석기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이다. 마을 초입에 들어선 오산리선사박물관에서 남한 최고의 신석기 유적을 만날 수 있다.

### (8) 포매리마을

양양군 현남면 포매리에 위치하고 있다. 백로와 왜가리가 머무는 청정하고 깨끗한 마을로 『양양 해뜨미(米)』등 친환경 유기농쌀을 재배하는 최고의 자연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포매리마을 친환경농법연구회에서는 청정 환경을 밑거름삼아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여 생산된 친환경쌀은 전환기유기농 품질인증(제11-18-2-01호) 까지 받았으며 한살림과 농협 등에 납품하고 있다. 친환경 3無농법(무농약·무제초제·무화학비료) 실천으로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와 농업환경을 지켜가고 있다

### 체마대 (遞馬臺)

상운관의 동쪽으로 내려다보면 왼편으로 바다가 임하고 오른편으로 연포를 낀 백사창송 넓은 곳에 중앙으로 큰 길이 통하고 있는 곳이 체마대이다. 이 대는 조선조 상운역시대에 우마가 교체하던 곳이다. 물론 그 시대에 찰방이 주차(駐筭) 하고 수의사도(繡衣使道)가 내려 홍백패(紅白牌)가 날릴적에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 듯 이대에서 위풍이 선듯선듯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옮겨지고 역제도가 철폐된 오늘날의 사람으로서는 이 대의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다. 신설된 동해철도 연변에 버려진 채 비오고 바람 찬 긴 세월을 지키는 동안 무정한 봄풀이 폐허의 눈물을 저어낼 뿐이다.

### 관덕정 (觀德亭)

고월산 줄기가 동으로 수여리 뒤를 싸고 흘렀다. 바로 양양에 대가인 흥덕가택 뒤 산록이다. 뒤로는 남대천을 등에 지고 앞으로는 동면 평야가 놓였으며 동으로는 오봉과 수산봉수대를 가까이 바라보고 서로는 구탄봉이 내려다 본다. 여러 그루의 소나무가 수백년동안 자양해오는 우로의 자연완부를 받으면서 울울창창하여 자연정을 이루어서 경색도 청숙하지만 조선시대에 예인재사(藝人才士)들이 모여들어 궁예를 습득하던 수도장이다.

논어에 “군자무소쟁야 기쟁야일군자(君子無所爭也其爭也一君子)”라 하였으니 여기에는 가히 덕을 볼 수 있는 것이라 해서 정의 이름을 관덕정이라 한 것이지만 왜적이 우리나라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내정을 간섭하며 오영문군사(五營門軍士)를 해산하던 당시 한국인의 궁예술까지 금지하는 바람에 폐지되어 빈 정자로만 내려오다가 약50년 전에 이 정송까지도 없어지고 지금은 그 유지만 남아 있다.

### 수산굴암자 (水山窟庵子)

손양면에서 정동으로 4km지점의 수산진 봉수대 아래에 있다. 남쪽으로 하조대를 바라볼 수 있으며 북쪽으로 오봉을 바라보고 있다. 육지로는 수산진의 청룡 끝이다. 산을 타고 바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낙산사를 구경하고 일엽편주로 전진바다를 떠나 오봉을 바로보고 해협을 끼고 돌아 절벽만장하에 다다르면 좌우로 병풍과 같은 석벽이 삭립하고 중간으로 굴이 통하여 파도가 몰아 들어갔다가 석면에 마주치고 다시 돌아나오니 마치 낙산사 관음굴을 보는 것과 흡사하다.

관동으로 모여드는 관광객들이 낙산사 석굴암을 보고는 반드시 여기를 찾게 되지만 특히 조선시대에 문장이던 택당(澤堂) 이식(李植)이 강원감사로서 영동을 순시하다가 이 석굴을 찾아보고는 노룡잠처운개굴 오수격시해월성[老龍潛處雲開掘鰲水激時海月聲] : 늙은 용이 잠기는 곳에 구름은 굴을 열었고, 놀란 물이 부딪칠 때에 바다달의 소리로다]이라는 시구(詩句)를 토(吐)한 일까지 있다.

## 질래꾼 썰래매기

설악을 배경으로 험준한 계곡이 중첩된 지세로 분지 형태의 산간 마을인 양양 북골마을은 촌락의 형태를 이루면서부터 산간 전통 농경 민속문화가 형성 발달한 마을이다. 옛날부터 유동가구나 주민이동이 거의 없는 마을로 외지 문화의 유입이 없으므로 마을 고유의 민속이나 생활풍습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 마을의 다락논과 비탈밭 화전 등 농토의 특성으로 아직까지 재래식 유농방법을 버릴 수 없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마을의 배경 속에서 영농현장, 노동현장에서 힘든 일을 지혜와 슬기로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민속이 유래되었으며, 두레를 짜서 모심기를 하였다.



## ☞ 금석문

금석문(金石文)은 금속이나 돌로 만든 각종 유물에 있는 명문(銘文)을 일컫는 것으로 재료와 내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재료에 따라 금석문은 금문(金文)과 석문(石文)으로 나누어진다. 금문은 금속제의 용기·악기·무기·화폐·인장(印章)·경감(鏡鑑)·조상(造像)·범종(梵鐘)·도량형 등에 주출(鑄出)되었거나 새겨진 문자이다. 석문은 석제의 비(碑)·묘지(墓誌)·조상 등에 새겨진 문자이다. 금문은 중국의 옛 동기(銅器)에서 볼 수 있는 명문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서양에서는 그리스의 비문(碑文)과 묘지명(墓誌銘)이 유명하다. 그러나 동양에서도 석고(石鼓)나 진(秦)나라 각석(刻石)을 비롯하여 역대의 비문·묘지명·조상비(造像碑) 등에 걸친 석문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금석문은 그 출처나 전해 내려오는 사정이 분명한 것일수록 가치가 크다. 이는 정확한 문헌이 많지 못한 고대사의 해명에 기여하며, 때로는 문헌상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도 한다. 우리 군에도 많은 금석문이 보존되어 있는데, 자료로는 『애향의등불』(내 고장의 비, 양양문화원),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 유적』(1994년, 강릉대학교 박물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의 전통 석조물 도감』(2008년, 양양문화원) 등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 [선정비(善政碑)]

#### 1) 부사권진선정비(府使權善政碑)

권진은 조선 광해군 때의 문신으로 현(峴)의 아들로 태어나 1597년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수원부사와 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한성판윤에 올랐다. 1610년 2월부터 헌부(憲府)의 계(啓)로 파직되는 1611년 5월까지 양양부사로 재직중 혹정(酷政)을 하였기에 부민이 먼저 선정비를 건립하여 그의 뜻을 전환시키려고 하였더니 부사께서는 이 비석을 본 후 과연 일기호전(一機好戰)하여 청렴관후(清廉寬厚) 하여져서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유도술로써 이루어진 이 비는 참으로 선정비가 되었다고 한다. 1623년에는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승차하였으나, 인조반정(仁祖反正)에 연루되어 양산에 유배 후 이듬해 참형 당하였다.

비(碑)는 비갓이 없어 둥글게 마감된 것이 특징이며 현재 현산공원에 위치해 있다.



## 2) 부사유공항선정비(府使柳公恒善政碑)

1633년 5월에 부임하여 1635년에 고만(考滿)으로 이임한 부사 유항의 선정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선정비를 세웠다. 현재 선정비는 현산공원의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에 있으며 연화문의 비갓이 특색이다.

## 3) 부사강공호청덕선정영세불망비(府使姜公鎬清德善政永世不忘碑)

강호청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조선 효종 때의 문신이다. 1642년 문과에 급제하여 내외직을 역임하였다. 1655년 장영헌납(掌令獻納)을 거쳐 1657년에 세자시강원필선(世子侍講院弼善)에 승차하였다. 1660년 8월에 양양부사로 부임되고, 1664년 정월에 장령(掌令)에 제수되었다. 1668년 승지(承旨)에 오르고, 1669년에는 강원도의 각 지역이 강등되었을 때 원양도(原襄道) 관찰사(觀察使)에 제수되었다. 이때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비(碑)를 세웠으며, 연화문의 비갓이 특징이며 현산공원에 위치해 있다.

## 4) 현감한공명상청덕선정영세불망비(縣監韓公命相清德善政永世不忘碑)

한명상은 1691년 양양부사(襄陽府使)로 부임하여 1692년 공주목사(公州牧使)로 제수되면서 이 임하였다. 숙종 신미(辛未)년에 부임한 이래 선정(善政)을 펼쳐 이에 현(縣)의 백성들이 선정비를 세웠으며, 현재 선정비는 현산공원의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에 있으며, 구름무늬 비갓이 있다.

## 5) 부사양공중하애민선정비(府使梁公重廈愛民善政碑)

양중하는 숙종 때인 임오년(1702년) 6월 양양부사(襄陽府使)로 부임하여 1705년 2월에 사임하였다. 재임기간 중 선정(善政)을 펼친 것에 감사한 관민들이 선정비를 세웠다. 현재 선정비는 현산공원의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에 위치해 있으며, 비갓이 없이 둥글게 마무리 지은 것이 특징이다.

## 6) 부사채공팽윤선정비(府使蔡公彭胤善政碑)

채팽윤은 1722년 2월 양양부사로 부임하고 1724년 11월에 승지(承旨)로 승차하였다. 재임기간 동안 정사(政事)에 탁월하고 문교(文教)를 진흥시켜 매년 시절(好時節)에 청년을 동반하여 학사(學舍)나 관루(官樓) 같은 곳에서 글을 짓고 대제사(大堤詞)를 작곡하였으며 문형(文衡)

으로까지 칭송되었다. 동해묘(東海廟)를 중수하고 백천문(百川門) 및 현산정(峴山亭) 현판을 썼다. 선정비는 정조 연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며, 상지이십사계미중건(上之二十四癸未重建)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순조 24년(1823)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1989년 4월 12일 당시 양양읍사무소 정원에서 발굴되었으며 현재의 위치인 현산공원으로 이전되어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의 우측에 보존되어 있다.

#### 7) 부사정공필동진기견역선정비(府使鄭公必東賑飢益蜀役善政碑)

정필동은 숙종 32년(1706년) 3월에 부임하여 동왕 33년에 사직하였다. 부임 이래 풍속을 교화하고 기근을 구휼하였으며 부역을 감소시켜 민폐를 근절하는 선정을 베풀어 이에 선정비를 세웠다. 현재 선정비는 현산공원의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에 보존되고 있다.

#### 8) 부사정공기풍선정비(府使鄭公基豐善政碑)

정기풍은 헌종 14년(1848년)에 부임하여 철종 1년(1850년) 6월에 병조(兵曹)에 승차한 사람이다. 현재 선정비는 현산공원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에 위치해 있으며, 구름모양의 비갓이 특징이다. 비문의 훼손이 심하여 그의 공적(功績)을 알아보기 어렵다.

#### 9) 부사김공연청덕선진불망비(府使金公演淸德善賑不忘碑)

김연청은 숙종 23년(1697년) 2월에 부임하여 다음해 5월에 사임하였다. 재임 동안 향교를 면옥치(綿玉峙: 현 양양군 면옥치리)로 이전할 것을 상신하여 허락을 받기도 했으며, 부임 이래 영세민을 구제하고 장학에 힘썼던 바 이에 숙종 26년(1700년)에 선정비를 세웠으며 현재 현산공원의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에 위치해 있다.

#### 10) 감사유공득일영세불망비(監司俞公得一永世不忘碑)

감사 유득일은 영조 33년(1757년)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같은 해 사임하였다. 현산공원의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에 위치해 있으나 비(碑)의 마모가 심하여 그의 업적을 확인 할 수 없다.

#### 11) 관찰사강공선선진견역영세불망비(觀察使姜公銑善賑益蜀役永世不忘碑)

관찰사 강선은 영조 41년(1765년) 4월 도승지에서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였고 다음해 4월 다

시 도승지로 이임하였다. 재임 동안 빈민의 구휼과 부역 감소에 노력한 바 이에 선정비를 세웠다. 현재 선정비는 현산공원의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에 위치해 있다.

#### 12) 부사이공광식영세불망비(府使李公光埴永世不忘碑)

이광식은 정조 7년(1783년)에 진사, 순조 3년(1803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병조좌랑(兵曹佐郎)과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및 이조좌랑(吏曹佐郎)을 역임하고 동왕 8년(1808년)에 양양부사로 임명되었다. 이후 사헌부 헌납(獻納)을 역임하고, 이조참판(吏曹參判) 및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 벼슬을 하였다. 신중한 언행으로 원만한 행정을 펼치고 선정을 베풀어 이에 선정비를 세웠다. 현산공원 선정비 중에서 유일하게 양각된 철비(鐵碑)이다.

#### 13) 군수겸사령관조공관현불망비(郡守兼司令官趙公觀顯不忘碑)

군수 조관현은 건양(建陽) 1년(1896년) 6월에 부임하여 광무(光武) 4년(1900년)에 퇴임하였다. 재임기간 중 토비중대장(討匪中隊長)을 겸임하면서 의병을 진압하였다. 기념비는 현재 선정비를 모아 놓은 현산공원에 위치해 있으나 비신의 반이 묻혀 비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

#### 14) 도호부사임후목청덕선정비(都護府使林候穆淸德善政碑)

세종 15년 계축(1433년) 윤 8월 2일 세종께서 임목(林穆)을 친히 불러 명하기를 “도내(道內)가 근년에 흉년이 들어 백성의 생계가 염려되니 은혜를 베풀고 구제해 주기에 마음을 극진히 하여 굶주리는 백성이 없게 하고, 또 형벌하는 일을 삼가 행하라” 하심에 임지(양양도호부)에서 명을 어기지 않고 베풀었으므로 선정비를 세웠으며 현재 현산공원에 위치해 있다.

#### 15) 부사류경시선정비(府使柳敬時善政碑)

류경시는 영조 3년 정미(1727년)에 부임하여 특히 교학(敎學)에 힘쓰시면서 선정하였으므로 퇴임 후 양양부민이 힘을 모아 선정비를 세웠다. 한편 뜻 있는 가목한 인사들이 부민의 정이 어린 오동나무로 만든 여섯 줄 거문고인 양양금(襄陽琴)을 만들어 기념으로 증정한 바 있다.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에 양양금(襄陽琴)이 경북도유형문화재 제314호로 창랑보(滄浪譜:악보)와 함께 전시 중이다.

### 16) 부사권공중민선정불망비(府使權公中敏善政不忘碑)

권중민은 순조 23년 계미(1823년) 3월에 양양부사로 부임하여 2년 후인 1825년 6월에 사임하였다. 계미년 부임 이래 법으로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백성을 위해 공평하게 다스리면서 특별히 부민을 다스렸으므로, 부민들의 정성으로 선정불망비를 세웠다. 현재는 현산공원의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 뒷줄 우측에서 여섯 번째에 세워져있다.

### 17) 부사이공경용인정비(府使李公景容仁政碑) : 몰자비(沒子碑)

이경용은 인조 8년 경오(1630년) 9월에 부임하여 2년 후인 1632년 11월에 전라도감사를 제수 받고 양양에서 떠나셨다. 양양부사로 재임당시 어질게 정사를 펼쳤으므로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부민의 정성으로 '인정비(仁政碑)'를 세웠는데 장구한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풍마우세(風磨雨洗)하여 문자가 인멸(湮滅)되어 그 기록을 알 수 없으므로 부사 안경운(安慶運)이 농언(弄言)으로 몰자비(沒子碑)라 하였던 것이다. 그후 중구동칭(衆口同稱)으로 몰자비가 되고 알았다. 현재 이 인정비는 현산공원의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 뒷줄 우측에서 아홉 번째에 세워져있다.

### 18) 타루비(墮淚碑)

이상일(李尙逸) 부사의 선정비이다. 조선조(朝鮮朝) 인조 22년 갑신(1644년) 7월에 도입하여 5년간 양양부사로 재임하면서 선정하였으므로 당시 군민들이 선정비를 양양읍내 동편 구교리와 연창리 사이 길가에 세워 기념하였으며 그 후 백성들은 궁할 때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이 비석을 안고 애걸하였더니 이부사가 베푼 선정의 덕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이상일 부사의 선정비를 타루비라 일컫는 것은 중국 진(晉)나라 무제(武帝) 때의 양호(羊祜)가 일찍이 양양(襄陽)에 있을 때에 늘 현산(峴山)에 올라가 쉬곤하였는데, 그가 죽은 뒤에 백성들이 그 자리에 비(碑)를 세우고 세시(歲時)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비를 보면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하여 타루비(墮淚碑)라 부른 데서 연유하였다. 지금 이 비석은 현산공원에 옮겨져 있는데 풍화에 글자를 알아볼 수 없다.

### 19) 김정순선생교학송덕기념비(金定淳先生敎學頌德紀念碑)

개화초기에 현산 학원에서 부국강병을 역설하였으며 한성사범학교 졸업후에는 안동, 양양등지에서 교직생활을 하면서 한국인 최초로 여자 교장이 되기도 했다. 광복 후에는 양양에서 양양지방인민위원장을 역임한 후 한국전쟁 이후 작고하였다. 이 같은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송

덕비를 세웠으며 현산공원에 위치해 있다.

## 20) 대풍수재조난자위도비(大風水災遭難者慰悼碑)

1936년 7월 11일 양양지방의 대홍수를 양양 사람들은 ‘병자년 포락(浦落)’이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비가 왔었다고 한다. 1일 강수량이 300mm가량으로 강릉·양양·삼척등 영동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1936년 9월 4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강릉에서만 1,000여 명, 양양지역에서 공식사망자가 584명, 비공식적으로 1,000여 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양양은 서면 장리 당상동, 범부리, 수리, 용천리, 손양면 석계리, 양양면의 월리, 남문리, 서문리의 피해가 가장 컸다. 이 당시의 참변을 영원히 위로하고자 서문리로 가는 노변에 위도비를 세웠다가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지금의 제방은 병자년 대홍수가 있는 후 1938년에 재차 견고한 축방을 하여 수해의 우려는 없게 되었다. 현재 현산공원에 위치해 있는데 비문과 휘호는 원창희(元昌禧)의 소작이다.

## 21) 부사임공오상선정비(府使任公五常善政碑)

임오상은 철종 2년(1851년) 통천군수로 있다가 양양부사로 부임하였다. 동왕 6년(1855년) 맹산군수를 끝으로 사임하였다. 영남에서 대홍해를 당했을 때 조정에 구제를 위한 방책을 건의하여 양양군에는 대두 천석(大豆千石)을 배정받는데 힘썼으며, 부사가 도에 친히 상서하여 이재민들이 추곡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직단(社稷壇), 국적고(國籍庫), 취산루, 남문루 등을 중수한 사실을 보고받은 어사 강난형(御使姜蘭衡)은 이에 말(馬)을 내주어 치하하였다. 그 공을 기리기 위해 선정비를 세웠다. 현재 비(碑)는 서면 오색리 망월사 입구에 있다.

## 22) 면장김남원선정비(面長金南元善政碑)

8·15광복 이후 1952년까지 지금의 양양군 서면 일부가 38°선 이남일 때 강릉군 신서면에 편입되어 있을 때 신서면장을 7년간 재임하는 동안 선정을 베푼 공덕으로 1952년 5월 양양군 서면 서림리 서면출장소 옆에 건립하였다.

## 23) 관찰사조공학연선정비(觀察使趙公鶴年善政碑)

조학연은 영조 12년(1736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판결사에 승차한 후, 동왕 18년(1742년) 강릉 부사로 부임하여 경포대 중수 및 상량문을 지었다고 하나 정확하지는 않다. 영조 22년(1746년)

에 영월부사로 부임하였다가 고을의 전염병으로 사퇴하고 말았다. 경사(經史)에 밝고 시부(詩賦)에 뛰어났으며 술을 즐겼다고한다. 선정비에는 ‘조찰민은 교구환폐(照察民隱矯還弊)’라고 하여 각종 민의(民意)를 살피는 가운데 특히 환곡(還穀)의 폐해를 줄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碑)로 현남면 시변리에 위치해 있다.

#### 24) 관찰사신공응호영세불망비(觀察使申公應湖永世不忘碑)

관찰사 신응호(1804~1899년)는 조선 고종 때의 문신이다. 철종 3년(1852년)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정랑(吏曹正郎), 홍문관의 부제학(副提學) 등을 거쳐 대사헌, 이조판서, 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대원군에 의해 우의정에 올랐으나 사퇴한 후, 좌의정에 올라 봉조하(奉朝賀) 신분으로 청나라를 다녀오기도 했다. 후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비(碑)의 좌우에 그의 공적을 기리는 글이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비석의 상단부에 원형문양을 넣은 비갓형상이 새겨져 있고 현남면 시변리에 위치해 있다.

#### 25) 부사심공의진영세불망비(府使沈公宜晉永世不忘碑)

심의진은 청송 사람으로 면천군수를 역임하고 현종 2년(1836년) 12월에 부임하여 동왕 5년까지 재임하였다. 부사의 공적은 비(碑)의 마모가 심하여 그의 업적을 확인할 수 없으며 현남면 시변리에 위치해 있다.

#### 26) 부사조공진상영세불망비(府使趙公鎮常永世不忘碑)

조진상은 1842년 12월 익산군수로 있다가 양양부사로 부임하였다. 1846년 12월 영변(寧邊)으로 이배(移拜)되었다. 공의 아버지는 통훈대부(通訓大夫)로 휘(諱)는 경구(景逵) 아들은 통덕랑(通德郎)이요 휘(諱)는 재형(載)이다. 조선조 영조조(英祖朝)에 (1760년경) 양양부사로 재임 중에 선정으로 백성을 다스렸으니 공도 있고 열의도 있어 후대로 하여금 잊지 않기 위한 뜻으로 이 비를 현남면 시변리에 세웠다.

#### 27) 부사박00선정비(府使朴00善政碑)

현남면 시변리에 소재하고 있으나 비의 마모가 심하여 이름 확인할 수가 없다.

#### 28) 가선대부중추부사겸오위장정원기불망비(嘉善大夫中樞府事兼五衛將鄭元基不忘碑)



철종 10년(1859년) 3월 산불로 양양부에 551여 호의 민가가 소실되고 이재민이 3,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그 피해가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원기와 성균관 진사였던 그의 아들과 함께 백미 천석과 현금 천냥을 군내 이재민들에게 나누어 구휼했다. 주민들이 이 은혜를 철종 임금께 상소하여 철종 11년(1860년) 철비(鐵碑)를 하사하고 그 공적을 치하했다. 비(碑)와 비각(碑閣)은 강현면 석교리에 있다가 1972년 8월 1일 후손인 정주화가 현재의 자리(양양읍 조산리)로 옮겼다.

### 29) 우인근선생공적불망비(禹仁根先生功績不忘碑)

1958년 4월 1일부터 1971년 2월 24일까지 현성고등공민학교에 근무하였던 우인근 선생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졸업생들이 세웠다. 현재 현북면 여성전리에 위치해 있다.

### 30) 석포선생경주김공두경씨비(石圃先生慶州金公斗經氏碑)

현북면 여성전리에 소재하며, 비의 전면에는 석포선생경주김공두경씨비(石圃先生慶州金公斗經氏碑)라고 쓰여 있으며 후면에는 고종정사임의실임인사십육년 문인십명중대오명부록(高宗丁巳立議室任寅四十六年文人十名中代五名附錄)과 15명의 좌목이 기록되어 있다. 1917년에 입의하여 1962년에 세워진 비(碑)이다. 문인(門人)과 10명과 중대(中代) 5명이 동참하여 세운 비(碑)이다.

### 31) 엄주석영세기념비(嚴柱石永世紀念碑)

엄주석의 호는 황헌(篁軒)이다. 성품이 온후하고 무실근검(務實勤儉)하여 요부성가(饒富成家)하였고 빈궁(貧窮)한 사람에게 많은 재화를 나눔으로써 관부로부터 표창하고 입비기념(立碑紀念)하였다. 기념비는 현남면 광진리 광진고개에 있었다.

### 32) 궁내부주사채공상필시혜비(宮內府主事蔡公尙弼施惠碑)

채상필은 현남면 광진리에 소재하며 옛 7번 국도변에 있으며 대나무 숲과 잡목에 가려져 있어 쉽게 보이지 않는다. 바로 앞에는 지주(地主) 정호경의 자선비(慈善碑)가 있다.

비(碑)의 마모가 심하여 그의 공적을 확인할 수 없으며, 비의 측면에는 '소화십육년일월십오일(昭和拾六年壹月拾五日)'이 새겨져 있어 건립 연대가 1941년임을 알 수 있다.

### 33) 지주정호경자선비(地主鄭鎬璟慈善碑)

만호(晩湖) 초계정공호경선생(草溪鄭公鎬璟先生)은 우리 동방에서 덕망이 높고 말솜씨가 좋아 공도 있고 열의도 있었다. 몸가짐은 꾸밈새 없이 순박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재화와 환난이 있으면 늘 따뜻한 정을 베풀어 구제하니 면민들은 그 덕을 잊지 않고 모두 추천하여 현남면장에 뽑혔다.

1928년부터 다음해까지 재임 중 큰 가뭄으로 인하여 큰 흉년이 들어 공의 소작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어 이를 잊지 않기 위하여 현남면 광진리에 이 비를 세웠다.

### 34) 정용화선덕비(鄭龍和善德碑)

강릉에서 대대로 살았다. 공은 성품이 어질고 무던하여 착한 행실을 하며 스스로 배우며 행하였다. 그러나 때의 운수가 천지자연의 조화에 맞지 않아 변화하여 1928년부터 다음해까지 2년에 걸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공의 소작인들로 하여금 재해가 많다는 말이 있어 사람을 시켜 실지로 그곳에 가서 조사하여 전랑 감해 주었다. 그 후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공의 너그러운 공을 길이 후세에 전하자는 뜻으로 비석에 오래도록 잊지 않기 위하여 기록을 실어 현남면 원포리에 세웠다.

### 35) 군수이건웅송덕비(郡守李建雄公貢德碑)

군수 이건웅은 1965년 3월 27일에 부임하여 1967년 12월 1일에 이임하였다. 재임 기간 중이던 1967년에 양양면 송현리(당시 행정구역)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송현·수어의 밭밭들과 가평의 가평들, 그리고 동면평의 넓은 경지를 수리안전담(水利安全畚)으로 전환시켜 놓았다. 이에 그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1967년 4월에 비(碑)를 세워 현재 송현리 양수장 입구에 있다.

### 36) 군수이건웅(李建雄) 유공비(고노동 농로개설 유공비)

군수 이건웅은 1965년 3월 27일에 부임하여 1967년 12월 1일에 이임하였다. 양양군 양양읍 율리 고노동에 농로를 개발한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1967년 5월에 양양읍 율리에 이 비를 세웠다.

## 2013 경로효친 문예작품 심사평

심사위원	심 사 평	비 고
정성교 (양고 교사)	<p>맞춤법이 틀리기도 하고 어색한 표현이 보이기도 했지만, 초등학생, 중학생의 순수함을 읽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p> <p>갈수록 어른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이번 문예대회를 계기로 앞으로 경로효친에 대해 생각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p>	시, 산문 담당
조동호 (양여중 교사)	<p>‘경로효친’이란 단어가 아이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 어른 공경과 부모에 대한 효도는 가장 기본 덕목이지만 그 실천은 말처럼 쉽지 않다. ‘경로 효친’이란 주제로 포스터를 표현하는 그 시간만큼은 아이들의 머리와 가슴에 ‘효’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뜻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본다.</p> <p>포스터란 형식이 초등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운 표현방법일 수도 있겠다.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내용을 얼마만큼 솔직하고 창의적으로 표현 했는가 이다. 출품작의 수가 적고 비슷한 작품이 많아 선정이 힘들었지만 수상작들은 나름대로의 고민과 진지함, 순수함이 나타나 있고 효의 실천을 효과적으로 강조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p> <p>형식에 매달리고 기교에 치우친 작품보다 어린이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풍부한 상상의 세계가 드러난 작품을 많이 보기를 기대한다.</p>	포스터 담당



# 2013년도 경로효친 문예작품 입상자 현황



학교별	등위	산문			시			포스터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초등학교			한남초 6학년 조산초 6학년 장경준	한남초 6학년 김민지	상평초 6학년 김시흥	한남초 1학년 최민지	조산초 2학년 김예나	한남초 3학년 김서연	조산초 3학년 손예술	강현초 3학년 이선희
		한남초 4학년 함주경	한남초 4학년 김나경	한남초 4학년 김나경		한남초 3학년 이건우	한남초 3학년		한남초 3학년	한남초 3학년 전나영
		한남초 4학년 최인정	한남초 3학년 정준섭	한남초 3학년 강현초		한남초 4학년 김재문	상평초 6학년 백웅기		조산초 6학년 양경식	조산초 5학년 장은연
중학교		현북중 3학년 최무엽	현북중 3학년 박지은	현북중 3학년 조보연					현북중 1학년 정진희	

경로효친문예작품 시 부분 최우수상

##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

김시흥 (상평초등학교 6학년)

할머니의 손  
엄마가 안 계실 때  
엄마대신 일을 하며  
거칠해진 손

할아버지의 손  
농사일을 하시면서  
굳은살이 박힌 손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도  
꼭 잡으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 기억 속의 아빠

최무엽 (현북중학교 3학년)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모 그냥 낳아주시는 분이라고 말하지만 나에게 아빠 특별한 분이다.

우리 아빠 내가 어릴 때 갑작스런 병으로 몸이 아프셔서 고등학교 선생님이란 직업을 그만두시고 엄마와 나, 아빠, 이렇게 셋이 강원도 양양이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왔다.

어릴땐 철이 없어서 아빠가 아프고 수술로 인해 잘 못 걸으셨는데 그런 아빠를 싫어하고 미워했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당뇨로 인해 30kg가 넘는 투석액 박스를 하루에 세 번도 넘게 들었다 났다 옮겼고 아버지의 병수발을 엄마와 함께 들었다. 아빠가 아플 땀 정말 원망도 많이 해봤고 몰래 방에서 많이 울어도 봤다. 병원에서 10개월도 못 사신다하신 아버지가 10년을 낳 기르시고 사랑해주시며 살아오시고 추석 전날 소풍을 가자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추석 새벽 날 그렇게 엄마와 나의 걸을 떠나셨다. 처음엔 믿겨지지 않았다.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학교 갔다 오면 쇼파에 앉아 나를 향해 웃음 짓던 아버지의 미소와 행동도 밥 먹을 때 편식하지 말라며 혼내시던 아버지의 언성도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생생한데 한순간에 우리 곁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나니 내가 너무 원망스러웠다. 평소에 사랑한단 말도 못하고 아빠가 어깨가 아프다고 주물러 달라고 할 때도 싫다고 투덜대기만 하였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왜 평소엔 소중한 사람의 존재를 깨닫지 못할까? 왜 뒤늦게 깨달을까? 정말 아빠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반성도 했다.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많이 기도드렸다. 아빠가 얼마나 내 삶의 큰 일부였는지 아빠가 돌아가시고 뒤늦게 알아버렸다. 정말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리웠다. 아버지의 잔소리도 혼내시는 말씀과 언성도 아버지의 부탁 소리도 다 그리워졌다. 젓가락 잡는 법부터 예절까지 모두 가르쳐 주시며 날 강하게 키우신다고 엄격하게 행동하신 아버지가 그리웠다. 하지만 때론 따뜻하게 부드럽게 날 타이르시고 감싸주셨다. 매일 나의 이야기를 일기장에 적으시며 편지도 써 주셨었다. 그땐 몰랐었던 아빠의 빈자리가 오늘 더 크게 느껴진다. 살아 생전 효도를 다하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다. 비록 지금은 아빠가 안 계시지만 아빠 없이 날 키우시는 엄마에게 투정만 부리지 말고 더 잘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모른다.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소중한 함을. 없어졌을 때야 비로소 느낀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 조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이나 웃어른들께 공경을 다해야 한다. 내 기억 속의 아빠에게 약속드리고 싶다. 아빠에게 잘 해드리지 못한거 엄마에게 이제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리라고. 아빠 사랑해요!



경로효친문예작품 산문 부분 최우수상

## 비싼 옷보다 맛있는 음식보다

함주경 (한남초등학교 4학년)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뜻이 경로효친이다. 이 말은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소중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나의 부모님, 또 위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우리 할머니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다. 감자, 고구마, 호박, 고추, 방울토마토 등을 장날마다 가서서 파신다. 주말에 할머니한테 가서 물건 파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은 못하지만 학교에서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면 할머니는 무척 기뻐하시면서 용돈도 주고 기특하다면서 머리로 쓰다듬어 주신다. 그리고는 옆에 할머니한테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무척 기뻐하신다. 비싼 옷보다 맛있는 음식보다 우리가 할머니를 뵈러 가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가끔 친구랑 놀고 싶어서 할머니 집에 가기 싫다고 하면 엄마께서는 이렇게 말하신다.

“너희들 얼굴 보여드리는 게 효도하는 것이야.”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우리가 내려갈 때마다 좋아하시는 모습을 생각해보니 효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도 크면 내 자식을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뵈어야 되겠다. 또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인사를 잘 해야겠다.



경로효친문예작품 포스터부문 부분 최우수상

내가 효도하면 내아이도 효도한다.

김주경 (한남초등학교 3학년)





# 2013 양양문화원 언론홍보현황

〈편집실〉

〈강원일보, 2013년 1월 4일, 이경웅기자〉  
“오색케이블카 설치 3만 군민 힘 모으자”



양양군 신년인사회

양양군 2013년 신년인사회가 양양군과 양양문화원 주관으로 3일 오전11시 쏘비치 그랜드볼룸에서 정상철 군수, 김일수 군의장, 김양수 도의원, 양동창 양양문화원장, 조지호 속초경찰서장 및 유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양군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각계 각종 관계자들이 2013년 신년인사회를 통해 희망찬 새해의 정진을 다짐했다. 양양군과 양양문화원이 주최한 2013년 신년인사회는 3일 오전

11시 쏘비치에서 정상철 군수, 김일수 군의장, 김양수 도의원, 양동창 양양문화원장, 조지호 속초경찰서장 등 각계 각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은 “신년인사회가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로 명실상부한 교통요충지의 양양지역의 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화합과 희망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상철 군수는 “올 한 해 군정을 타인능해(他人能解), 이웃과 공존하려는 나눔의 정신으로 500여 공직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군민을 섬기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또 “군민의 제1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3만 군민들이 다시한번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강원도민일보, 2013년 2월 13일, 최훈기자〉

## 【새해 인사회】 양양군

양양문화원(문화원장 양동창)이 주관한 신년 인사회가 3일 쏘비치에서 정상철 양양군수, 김일수 양양군의장, 김양수 강원도의원 손재형 NH농협은행 양양



군지부장 및 유관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일보, 2013년 1월 10일, 이경웅기자〉

### 양양패지나' 공연 인기몰이

양양문화원 제6기 어르신문화학교 연극반 졸업 작품인 양양패지나' 공연이 뜨거운 호응을 얻어 순회공연에 나선다.

이번 양양패지나' 공연은 이상준 작가의 연출 및 지도 감독으로 지난해 12월29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그동안 익힌 실력으로 공연을 펼쳐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속초시와 인제군 초청공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속초시 공연은 10일 오후2시 속초시 종합복지회관 공연장에서 어르신대상으로 공연하며 인제군은 인제빙어축제 기간인 오는 24일 축제장 특설공연장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강원일보, 2013년 2월 6일, 이경웅기자〉

### 10일 양양패지나' 특별공연

양양문화원은 설날을 맞아 제6기 어르신문화학교 연극반 졸업 작품인 양양패지나'를 특별공연한다.

이번 특별공연은 이상준 작가의 연출 및 지도 감독으로 오는 10일 설날에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귀성객을 위해 준비했다.

2012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동안 35명의 어르신이 연극 연습을 통해 그중 12명의 어르신이 양양패지나'에 출연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양양문화원에서는 올해 제7기 어르신문화학교 연극반 수강생 및 모든 연령층의 일반인 연극반을 신설해 운영한다.

〈강원일보, 2013년 2월 8일, 이경웅기자〉

### [설특집]"오랜만에 찾아온 가족 위해" 어르신들 무대에 오르다

양양문화원 어르신학교 연극반 귀성객 환영 양양패지나' 공연



연극 양양패지나' 공연 모습.

"노인들도 할 수 있다" 맹연습

"설날 무대에 올라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가족이나 친지 등을 대상으로 공연을 한다는 것이 가슴 설레고 기쁩니다."

양양문화원은 10일 설을 맞아 문화복지회관에서 귀성객 환영을 위한 제6기 어르신문화학교 연극반 졸업 작품인 양양패지나'를 특별 공연한다.

어르신 연극단은 35명의 어르신이 이상준 작가의 연출 및 지도 감독으로 2012년 5월부터 공연 연습에 들어가 그해 11월 양양패지나'를 첫 공연했다.

첫 공연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유명세를 타면서 속초근로복지관, 인제 빙어축제에서 초청 공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작품은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던 가족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헌신적인 가족 사랑에 잘못을 뉘우친다는 내용으로 피폐해진 최근 세태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허영에 들뜬 일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에 눈이 멀어 아버지가 죽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다. 검진 결과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간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망연자실 한다. 가족 모두 자신의 죽음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안 아버지는 이런 와중에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 흔쾌히 자신의 간을 이식해주면서 사라졌던 가족애가 회복된다는 감동의 내용이다.

어르신 단원들은 60세 이상으로 매주 1회 2시간 이상 맹연습을 해 왔다. 더구나 연극을 통해 노인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자긍심도 얻었다.

한 단원은 "노인들이라서 처음에 연극을 배운다는 것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대사를 외우고 몸짓을 배우고 익힐수록 재미있고 자신감도 생겨 이제는 무대에 오르는 것이 기다려진다"고 했다.

또 "이번 설 특별공연으로 귀성객들에게 한 해의 희망과 복을 듬뿍 주고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함으로써 고향 사랑을 높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보람과 자부심마저 느낀다"고 했다. 이상준 작가는 "이번 연극을 완성해 낸 단원 모두가 주인공이며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성공의 열쇠였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2013년 2월 13일, 최훈기자〉

### 양양 어르신 연극 '호평' 문화학교 졸업 작품 '양양패지나' 공연 속초·인제축제 초청도

'신바람 나는 양양의 어르신 연극단' 공연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양문화원이 운영하는 제6기 어르신문화학교 연극반인 '신바람 나는 양양의 어르신 연극단'은 지난 10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양양 패지나'를 공연,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10일 양양복지회관에서 어르신 연극단이 '양양 쾌지나'를 공연하고 있다.

어르신문화학교 졸업 작품이기도 한 '양양쾌지나'는 이상준 작가의 연출과 지도·감독으로 지난해 첫선을 보인 이후 아마추어답지 않은 안정된 연기력과 정감있는 표현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속초와 인제빙어축제에서도 초청 공연 요청이 잇따르기도 했다.

특히 설 연휴를 맞아 특별히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 평균연령 65세에 이르는 어르신들의 공연을 지켜본 250여명의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양양문화원 관계자는 "어르신 연극단은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활동무대를 넓혀 건조한 지역문화에 촉촉한 단비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귀농귀촌으로 이주한 어르신 인재들을 찾아 지역과 지식을 공유하고 연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민일보, 2013년 3월 13일, 최훈기자〉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개강**



양양문화원이 주관하는 문화학교가 12일 일출예식장에서 한글, 한문서예, 한시, 통기타 등 10개 과정 200여명의 수강생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개강 11개 과정 200여명 수강**

〈강원일보, 2013년 3월 13일, 이경웅기자〉

양양의 문화학교의 운영 과목이 올해부터 11개 과정으로 다양화됐다.

양양문화원이 운영하는 문화학교가 12일 일출예식장에서 정상철 양양군수, 김일수 양양군의회장, 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을 비롯 11개 과정 20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가운데 개강했다.

운영과목은 한글, 한문서예, 한시, 사물놀이(초급·중급), 통기타(초급·중급), 한국화, 민요, 난타, 색소폰, 수채화 등 11개 과정이다.

문화원에서는 지난해까지 한시, 한글 등 8개과목에 102명의 수강생이 수료했으며 올해는 새로운 과목으로 난타, 색소폰, 수채화 과목을 개설해 보다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강원일보, 2013년 4월 3일, 이경웅기자〉

**94년전 강현 물치 만세운동 10일 200명 참여 재현 행사**

1919년 4월5일 양양군 강현면 물치장날에 분연히 일어났던 물치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는 10일 강현면 물치에서 열린다. 3·1만세운동 94주년을 맞아 양양문화원이 주관하고 강릉보훈지청과 양양군이 후원하는 제5회 물치 만세운동 기념행사에는 애국열사 유족, 강현면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3·1운동 당시 강현면민의 드높았던 애국열사활동을 기념해 지역주민과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애국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이 행사는 올해 다섯번째로 열린다.

기념행사는 양양극단인 행복한 시작의 '함흥기열사와 일본가네사와의 대화' 및 진흥무 공연과 유족대표인 김종명씨의 독립선언문 낭독, 의사, 열사의 활동내용 소개 및 3·1절 노래 제창과 만세 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은 "94년전 이곳 강현면 물치리에서 물치장날에 일어났던 많은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화합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강원도민일보, 2013년 4월 3일, 송원호기자〉

**10일 양양 물치장터서 3·1 만세운동 양양문화원 기념행사**

양양문화원(양동창)은 오는 10일 강현면 물치장터에서 3·1 만세운동 94주년을 맞아 정상철 양양군수, 한상윤 강릉보훈지청장과 애국열사 유족, 강현면 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5회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양양지역 극단인 행복한 시작의 '함흥기 열사와 일



본가네사와의 대화' 및 진훈무 공연과 유족대표 김종명 씨의 독립선언문 낭독, 의사·열사의 활동내용 소개 및 3.1절 노래 제창과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은 "94년전 이곳 강현면 물치리에서 물치장날을 기해 분연히 일어났던 많은 애국지사님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번행사를 통해 되새기고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화합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양/송원호

〈강원도민일보, 2013년 4월 11일, 송원호기자〉

### 양양 물치만세운동 기념식



양양문화원은 10일 강현면 물치항 주차장에서 정상철 군수, 김일수 도의원, 김일수 군의회 의장, 한상운 강릉보훈지청장 등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물치만세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강원일보, 2013년 4월 11일, 이경웅기자〉

### [포토뉴스]물치 만세운동 기념식



제5회 물치 만세운동 기념식이 10일 양양군 강현 물치 주차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정상철 양양군수, 김일수 양양군의회 의장, 양동창 양양문화원장, 한상운 강릉보훈지청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선언문낭독 등 다채로운 행사로 열렸다.

〈강원일보, 2013년 6월 12일, 이경웅기자〉

### [양양]현산문화제·군민체육대회 20일 개최

남대천 둔치서 3일간 열려

양양군민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35회 양양현산문화제 및 제45회 군민체육대회가 남대천 둔치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린다.

양양군 양양현산문화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이 주관하는 제35회 양양현산문화제는 양양3·1 독립만세정신과 향토문화예술했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양양군민들의 높은 기상과 자긍심 고취, 풍농·풍어,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양양군 고유의 민속축제이다.

20일 오후4시 군행리 고치물에서 장군성황제와 고치물제를 시작으로 군악대, 제등 행렬, 양주방어사 행차, 대포수군만호 행차, 신석기인 가장행렬, 양양고밴드 등 시가행진이 펼쳐지고 오후8시부터는 남대천 둔치 특설무대에서 군민노래자랑 및 인기가수 초청공연이 진행된다.

21일부터 22일까지 행사장에서는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가수 공연 등 문화공연과 농악경연, 한시백일장 등 전통문화 경연, 분재공예품, 시낭송회, 휘호대회, 야생화전시회, 공예특산품 전시회, 서예 꽃누르미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과 함께 제45회 양양군민체육대회가 읍·면 대항으로 펼쳐진다.

〈강원일보, 2013년 6월 20일, 이경웅기자〉

### [양양]지역발전·군민화합의 대전치 막 오른다

양양 현산문화제·군민체육대회 오늘부터 22일까지 열려

제35회 양양 현산문화제 및 제45회 군민체육대회가 20일 막이 오른다.

양양군 양양현산문화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이 주관하는 제35회 양양현산문화제는 3·1 독립만세정신과 향토문화예술했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양양군민들의 높은 기상과 자긍심 고취, 풍농·풍어,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양양군 고유의 민속축제로 오는 22일까지 열린다. 현산문화제는 20일 오후4시 성황사에서 주민들의 무사안녕과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장군성황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양양고 관악부 공연에 이어 제등행렬, 영신농악행렬, 신석기인 가장행렬, 양주방어사 및 대포수군만호 행차 등이 전야제 분위기를 띄운다.

오후 8시부터는 남대천 둔치 특설무대에서 군민노래자랑과 인기 가수 초청공연이 열기를 더하고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다.

이튿날인 21일에는 식전행사로 기미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열려 양양군이 충절의 고장임을 재확인하고, 오전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탁자사 놀이를 비롯한 민속놀이와 특공무술, 읍면별 민속경



연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주민들을 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이끈다. 또 장군굿, 추성판소리, 상평초등학교 기악합주, 초청가수 공연, 청소년 국악사물놀이경연, 한시백일장, 시낭송회, 회화대회, 분재·공예품·야생화·서예·꽃누르미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회가 주민들을 찾아간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오전9시부터 다양한 민속놀이와 부대행사를 비롯해 군민체육대회가 열려 군민 화합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다.

최익수 양양현산문화제위원장은 “역사적으로 면면히 이어져온 현산문화제가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기원하고 설악권의 수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길 바란다”고 했다.

〈강원도민일보, 2013년 6월 21일, 송원호기자〉

**양양 현산문화제 도민 함께 즐긴다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도내 9개 시·군 29팀 참가  
내일 문화복지회관서 열려**



양양현산문화제 고치물제 봉행 양양 현산문화제위원회(위원장 최익수)는 20일 현산공원 고치물센터에서 정상철 군수, 김일수 군의장, 김인기 양양향교 전교, 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35회 양양 현산문화제 고치물제를 봉행했다.

제35회 양양 현산문화제가 양양군민은 물론 강원도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양양군은 양양현산문화제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 10시 문화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제3회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경창대회에는 춘천 11개팀, 강릉 3개팀, 홍천 5개팀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총 29개팀이 참가해 정선아리랑, 설악아리리, 흥천아리리, 고성명태소리 등 각 지역 특색이 담긴 전통소리를 선보인다. 양양문화원은 이날 국악인 왕서은, 강원도무형문화재 26호인 양양 상복골 농요팀, 강원소리진흥회 민요팀을 초청해 농요와 전통 민요공연을 펼치며 대회의 흥을 북돋는다.

이번 대회는 심사를 통해 일반부는 최우수상 1팀에게 150만원, 우수상 3팀에 각각 100만원, 장려상 5팀에 각각 60만원의 상금이, 학생부는 최우수상 1팀 80만원, 우수상 1팀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 이날 오전 11시 남대천 현산정에서는 제5회 양양군수기 강원도 남여 궁도대회가 도내 34개정 4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려 강원도 궁도인들의 화합의 장이 펼쳐진다.

최익수 양양현산문화제위원장은 “양양군민의 한마당 축제인 양양현산문화제를 도민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대회와 볼거리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13년 6월 24일, 송원호기자〉  
**“화합 다지고 상경기 활력”**

양양 현산문화제 폐막... 관광객·주민 5만명 찾아  
군민체육대회 강현면·농악경연 부문 양양읍 우승



양양현산문화제위원회는 지난 22일 양양문화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제3회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를 개최했다.

제35회 양양 현산문화제 및 제45회 군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양양현산문화제위원회(위원장 최익수)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원장 양동창)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5만여명의 관광객과 주민이 행사장을 찾아 모처럼 침체된 지역 상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난 2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사흘간 이어진 올 양양현산문화제에는 군민노래자랑과 인기가수 공연, 각 읍·면별 농악경연, 줄다리기, 널뛰기, 씨름, 탁상사 경기 등 민속경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 각 읍·면별로 대항전을 펼치 군민간 화합을 다진 제45회 군민체육대회에서는 강현면이 종합우승을, 민속경기와 농악경연은 양양읍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도내 9개 시·군에서 총 29개팀이 참가하며 강원도민과 함께 즐기는 현산문화제를 만들어준 제3회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에서는 고성 엄채란 외 14명이 연기한 고성 명태소



리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내 궁도인들의 화합의 장이 펼쳐진 제5회 양양군수기 강원도 남여 궁도대회에서는 강릉시 울곡정이 단체전 우승을, 장년부 1위는 황성 태동정 변재근 씨, 노년부 1위 평창 노성정 서창태 씨, 여성부 1위는 고성 수성정 김매실 씨가 차지했다.

최익수 양양현산문화제위원장은 “올 행사는 양양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동단결의 의지를 확신한 자리였다”며 “내년에는 보다 내실있는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일보, 2013년 6월 26일, 오석기기자〉

### 향토문화연구논문발표대회 최원희씨 최우수상



제23회 강원도향토문화연구논문발표대회가 25일 하이원리조트 컨벤션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문화원연합회(회장:원영환)가 주최하고 강원일보사와 강원도, 하이원리조트

가 후원한 제23회 강원도향토문화연구논문발표대회에서 정선문화원 최원희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5일 하이원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자인 최씨는 정선 나무 운영에 대한 연구'논문으로 대회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해문화원 김병욱씨의 동해지역의 용기문화와 흥천문화원 강대덕씨의 흥천 우적산 일월사지 위치비정에 관한 연구'는 각각 우수상에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상금 120만원과 중앙대회 추천해택이 주어졌고, 우수상에는 90만원, 장려상과 노력상에는 각각 60만원과 30만원 등 역대 최대인 총 7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향토문화연구논문발표대회는 향토문화의 전통과 역사를 발굴, 보존, 계발하기 위해 1991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모두 300여편의 우수논문이 발표됐다. 한편 이날 발표대회에는 최광철 도문화관광체육국장, 최흥집 하이원리조트 대표이사, 전정환정선부군수를 비롯한 원영환 도문화원연합회장과 도내 시·군 문화원장, 발표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 수상자

△최우수상=최원희(정선문화원) △우수상=김병욱(동해문화원) 강대덕(흥천문화원) △장려상=정상철(속초문화원) 김광섭(고성문화원) 이기용(양양문화원) 한승윤(인제문화원) △노력상=황운진(삼척문화원) 이학주(춘천문화원) 김강산(태백문화원) 이경복(평창문화원) 박순업(횡성문화원) 채희승(원주문화원)

〈강원일보, 2013년 8월 16일, 이경웅기자〉

### 【양양】양양현산문화제 발전방안 논의

오늘 세미나 개최

양양군민의 한마당 화합축제인 양양현산문화제 발전방안 세미나가 16일 오후 2시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35회째 개최된 양양 현산문화제는 시대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문화제의 개선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나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없어 현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제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양양현산문화제위원회(위원장:최익수)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원장:양동창)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총 2부에 걸쳐 양양현산문화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마케팅, 활성화 방안, 문화적 고찰 등 4개 주제로 양언석 강원도립대학 교수가 진행을 맡는다.

김병철(강원발전연구원) 박사, 함석중(강릉원주대 관광학과) 교수, 김영표(관동대 관광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택철 양양군의회부의장, 윤여준 양양현산문화제위원회 위원, 이관현 군문화관광과장, 이규환 양양문화원향토사연구소 연구원 등 4명의 지정토론자가 토론을 벌인다.

군 관계자는 “올해로 35회째를 맞이한 양양 현산문화제는 지난 6월20일부터 3일간 남대천 둔치를 비롯한 부대 행사장에서 연 인원 6만 여명이 행사장을 찾은 가운데 그 어느 해보다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세미나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현산문화제가 전국적인 향토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원도민일보, 2013년 8월 19일, 송원호기자〉

### “양양 알릴 세계적 축제 비전 필요”



양양현산문화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정상철 군수, 김일수 군의회 의장, 양동창 문화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산문화제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양 현산문화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

해 국내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육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양현산문화재위원회(위원장 최익수)는 지난 16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정상철 양양군수, 김일수 군의회 의장, 양동창 문화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현산문화재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함석중 강원원주대학교 교수는 '양양현산문화재 마케팅 전략 소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양양현산문화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는 3단계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 국내를 넘어 세계화를 이뤄내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콘텐츠 개발과 상품화, 양양현산문화재공원 조성, 전통문화지구 조성, 축제 재정의 자립화, 축제 기획의 체계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수는 "양양현산문화재는 양양의 정신이고, 문화의 중심이지만 이야기가 없는 만큼 지역의 다양한 신화, 전설, 민담을 활용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양양현산문화재만의 이야기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철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양양현산문화재는 차별화된 선명한 주제 없이 군민통합대회 같은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외부평가와 컨설팅 작업을 통해 축제의 내용과 관람객의 경험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지속적 비전과 대안설정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표 관동대학교 교수는 "개최 주체인 지자체는 축제지원정책의 일관성 유지, 축제연관 인프라 구축, 민간 사업체와의 스폰서십 강화 등을 실시하고 주민들도 지역의 숨겨진 스토리텔링을 발견해 이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관광자원화, 축제운영인력으로서 역량 강화, 독특한 축제 관광상품 서비스 개발 등에 나서야 양양 현산문화재를 지금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김택철 양양군의회 부의장, 윤여준 양양현산문화재위원회 위원, 이관현 군청 문화관광과장, 이규환 양양문화원향토사연구소 연구원 등 4명의 지정토론자로 나서 양양현산문화재 발전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강원일보, 2013년 10월 12일, 이경용기자〉

**[양양] 대한민국 문화원상' 수상**

양양문화원이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지역문화창달 향토사 발굴 및 조사연구 부문 2013 대한민국 문화원상을 수상했다.

양양문화원은 1970년 설립돼 지역 향토사의 발굴 및 조사 연구를 위해 애써 왔으며 2008년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를 개설해 7명의 연구원을 위촉, 지역 향토사 발굴 및 조사 연구 활동을 시작으로 향토사의 조사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들은 향토사 조사 연구 논문 발표로 강원도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 향토사의 발굴 및 조사 연구에 기여해 오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2013년 10월 12일, 송원호기자〉  
**양양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수상**

양양문화원(원장 양동창·사진)이 지난 10일 충북 청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3 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문화창달 향토사 발굴 및 조사연구 부문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



지난 1970년 설립된 양양문화원은 2008년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를 개설해 향토사의 조사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고, 향토사연구소 연구원들이 향토사 조사 연구 논문 발표로 강원도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 향토사의 발굴 및 조사 연구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 편/집/후/기

어느덧 계사년도 저물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분주했던 한해를 잘 마무리 하게 되어 문화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문화원은 금년에도 많은 성과를 올린 한해로 최근 향토사연구 분야의 많은 공적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로부터 2013 대한민국문화원상을 수상하는 행복한 한해였습니다.

그러므로 향토사 연구의 지속적인 연구 조사 활동으로 “양양의 누정대” 책자 발간과 “校界”연구 및 2014 강원민속의 해 관련 민속, 지명 조사를 비롯한 많은 사업이 산재해 있으며 그간 연구원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눈부신 활동과 여러 대회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문화학교 강좌를 늘려 나감은 물론 내실 있는 운용으로 군민의 문화 향유 여건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오랜 역사와 풍부한 전통문화를 간직한 우리 고장은 문화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да 할 것입니다.

해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미흡함에 아쉬워 하면서도, 금년 또한 아쉬움을 뒤로하며 계사년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청마의 진취적인 기상으로 문화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더욱 아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가족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가내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유난히도 포근하던 어느 겨울 아침에....

襄陽文化院 事務局長 金光泳



## 양양문화 제25호

2013年 12月 28日 印刷

2013年 12月 28日 發行

발행인 : 양 동 창

편집인 : 김 광 영

발행처 : 襄陽文化院

인쇄처 : 대양프리컴





# 앙앙8경



## 1경 연어들의 고향, 남대천



남대천은 총 길이가 54km되는 하천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역이다. 봄에는 황어, 7~8월에는 은어, 10~11월엔 북태평양에서 3~5년 동안 자란 연어떼가 돌아오는 곳이다. 또한 이곳은 타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두꺼비, 민물참게 등 희귀 민물 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물과 구룡령에서 발원한 물이 만나 큰 하천을 이루어 동해로 흘러가는 양양 남대천은 연어들의 모친인 '어머니의 강'으로 불리며, 매년 연어축제가 열리고 있어 연어들의 힘찬 몸부림을 직접 만나 볼 수 있다.



## 5경 하룬과 조준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하조대



백사장 규모가 크고, 모래가 부드러우며, 경사가 완만하여 가족단위의 피서지로 적합하다. 1976년 처음 개장한 이래 매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2,722㎡의 야영장과 더불어 해수욕장으로 운영되며, 워낙시설이 많지 않아 주변의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조용하다. 담수가 흐르며 남쪽에 기암괴석과 바위섬이 있어 낚시하기에 좋은 곳이다.



## 2경 태고의 웅비를 간직한, 대청봉



대청봉은 해발1,708m로 일출과 낙주로 유명하며, 기상변화가 심하고 강한 바람과 낮은 온도 때문에 눈짓나루 군락이 유단처럼 낮게 자라 국립공원 전체와 동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다. 늦가을부터 늦봄까지 눈으로 덮여 있고, 6월~7월이엔 진달래, 철쭉, 벚꽃으로 뒤덮이며, '요산요수'라는 글귀가 새겨진 바위와 대청봉 표지석이 있다. 정상까지 오색령면, 백담사면, 설악동 방면, 한계령 방면의 코스가 있는데, 오색에서 설악 폭포를 거쳐 정상에 오르는 6km(약 4시간 소요)가 최단거리 코스이다.



## 6경 파도소리와 죽향이 가득한, 죽도정



죽도정은 죽도 정상에 있는 정자로 1965년 5월에 세워졌다. 죽도는 인구리 해변에 있는 둘레 1km, 높이 53m의 섬으로 송옥이 사철 울창하다. 죽도정에 오르면 파도가 깎아 만든 여러 모양의 바위와 해안풍경을 한 눈에 바라 볼 수 있으며, 죽도 북쪽 기슭에는 죽도암이란 작은 암자가 소박하게 자리잡고 있어 신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 3경 자연도 함께 쉬어가는 신비로운, 오색령



해발고도 920m인 오색령은 내설악과 남설악을 잇는 44번 국도이며 선초의 숨결이 담긴 고개이다. 인생을 닮은 듯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따라 달리면 남설악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설악의 운무가 펼쳐는 장관은 오색령에서만 볼 수 있다.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다보면 강원도 지역에서 여섯개의 령을 손꼽았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오색령이라 했다.



## 7경 강원도의 베네치아, 남애항



아름다운 미항 남애항은 386세대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고려사냥의 촬영지이다. 그 시절 그들이 정말 원했던 삶은 무엇이었는지...고려사냥 노래의 "술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라는 가사가 기억에 남는다. 남애항 양쪽에는 서로 마주보는 있는 빨간색과 하얀색의 등대는 남애항의 운치를 더해주며 낚시배를 예약하면 바다에 나가서 직접 고기를 잡을 수 있다.



## 4경 시원한 폭포와 가을단풍이 아름다운, 오색주전골



남설악에 있는 오색약수터에서 선녀탕을 거쳐 절룡산(1,424m) 동북쪽비탈에 이르는 계곡이다. 남설악의 큰 골 가운데 가장 수려한 계곡으로 계곡미와 가을 단풍으로 유명하다. 골이 깊어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끼며 고래바위 · 상투바위 · 새바위 · 여심바위 · 부부바위 · 오색사 · 선녀탕 · 십이폭포 · 웅소폭포 등 곳곳에 기암괴석과 폭포가 이어져 풍광이 빼어나다.



## 8경 일출이 아름다운, 낙산사의상대



낙산사의상대는 낙산사 창건자인 의상대사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정자로, 낙산사의 동쪽 100m 거리의 바닷가 절벽 위에 세워져 있다. 앞으로는 끝없이 맑고 푸른 동해바다를 마주하고, 오른쪽 절벽 아래로는 낙산해수욕장과 인접하여 있으며, 뒤로는 유서 깊은 낙산사와 울창한 소나무숲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주위 경관이 빼어나다.





매년 6월, 남대천 둔치 및 행사장



# 襄陽 峴山文化祭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양양의 문화축제!

## 주요행사내용

- 전야제
- 민속놀이
- 식전행사
- 경축문예행사
- 개막식
- 전시및부대행사
- 식후행사
- 양양군민체육대회



양양현산문화제위원회

